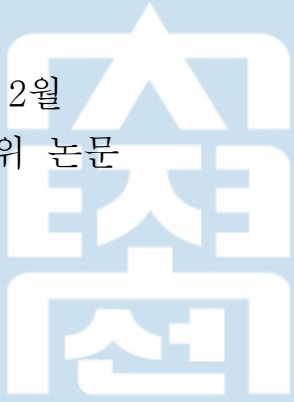


CHOSUN
UNIVERSITY
1946

2007년 2월
박사학위 논문



[UCI]I804:24011-200000234271

조선
CHOSUN

한국 전후소설 연구

- 6·70년대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나 종 입

CHOSUN
UNIVERSITY
1946

한국 전후소설 연구

- 6·70년대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OREA POST-WAR NOVELS

- Centering on Growth Novels in 1960s and 1970s -

2007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나 종 입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
대학교

조선
대학교
CHOSUN

한국 전후소설 연구

- 6·70년대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영천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나종입

CHOSUN
UNIVERSITY
1946



나종입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조선
CHOSUN

위원장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u>홍 문 표</u>
위원	나사렛대학교	교수	<u>김 주 희</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수 남</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혜 영</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임 영 천</u>

2006年 12月 日

조선대학교 대학원

《ABSTRACT》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사 검토
3. 연구 대상과 방법

II. 전후 세대 전쟁 체험과 성장소설

1. 6·25 전쟁과 전후 세대의 전쟁 체험
2. 6·70년대의 시대적 상황
3. 성장의 계기로서의 전쟁 체험

III. 전후 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형상화 양상

1. 감각적 세계 인식과 아버지 되기의 실현 : 김원일
 - 1) 감각으로 기억된 유소년의 모습
 - 2) 아버지 되기를 통한 억압적 과거의 극복
2. 대립적 세계 인식과 원형성의 발견 : 윤홍길
 - 1) 대립이 초래한 일상적 삶의 해체
 - 2) 결합과 상징으로 표상되는 원형성

3. 부정적 세계인식과 위악의 정신 : 김승옥

- 1) 폭력으로 인식된 어른의 존재 방식
- 2) 자기 검열과 위악적 주체의 발견

4. 탈공동체적 세계 인식과 통과제의적 귀향 : 이동하

- 1)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 2) 통과제의 형식으로서의 귀향

IV. 결론

<참고 문헌>

A STUDY ON THE KOREA POST-WAR NOVELS
- Centering on Growth Novels in 1960s and 1970s -

Na jong-ib

Advisor : Prof. Yim young-cheon Ph.D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bstract

It is report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division recognition in post-war novels in the 1950s is that epic development of the whole picture was greatly withered due to the aftermath of the war. So, we have to consider that active presentation of problems on national division under the particularity of war basis was not easy. In short, logical processes of national division were buried because of existential recognition that the war was a tragedy and absurdity. However, the April 19 was a turning point of cultural history that is out of the post-war condition originated from war basis and post-war recovery economy. Accumulated social capability to resist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prevailed in the society of the 1950s is the evidence. The accumulated power erupted and ruined the political power of the Liberal Party. Political taboo relating to national division had a gap. This gap was a specific chance to bring a switch in recognition of the division.

This study is to speculate growth novels by Lee Dong-ha, Kim Won-il, Yoon Heung-gill and Kim Seung-ok based on the conditions of 1960s and 1970s.

The 1960s relied on conceptual recognition and symbols while the 1970s focused on realistic life. The period was dominated by anti-communist

ideology. The desire to develop with a national slogan of " be rich " was developed and national consciousness of developmental despotism was established through voluntary service. In short, the people of the developmental despotism period were the subjects of oppression and control politically and those of active and voluntary service economically by combining developmental ideology with anti-communist ideology. The national slogan of " Be rich " stimulated feeling of populace who wanted to escape out of poverty, and worked as a basis on which the nation could invest all the energy of the people to economic development. Anti-communism was internally tabooed as a search of other values except economic growth was identified with communist and externally was compatible with the ideology of system competition based on economic growth.

Stories on national division search by writers who considered the period of the war as growth period in the history of Korean novels have a common thing that they showed preparation of identity on division and awakening process. The growth periods in division stories were the subjects of writing owned by memories on tragic items affecting individual growth periods while they were corrupted in evil reality and confirmed the weight of pollution of purity and painful life. These writers elucidated painful pieces imposed on their growth periods through historical awakening. Through this process, they confirmed reality of fatal tragedy and established identity to overcome it. The awakening of the subjects was a retrospection to discover adolescence which was hurt and a serious confrontation toward historical fault by calling madness of ideologies and violence of national power. Objectifying the historical shock given to the base of consciousness was a pain that could not be controlled by aesthetic distance because it was an experience of growth period smeared with tragic shocks.

Young speakers were subjects of non-ideology who speculated growth periods

and the meaning of growth in division stories that were liberated from inspection as stories of non-ideology, separated themselves from tragic reality, saved themselves to achieve self-organization, and expanded the horizon of historical understanding on national division. They prosecuted the whole aspect of the events and the violence of the world to find meaning of the world which caused tragic adolescence and their identities, and made memories on their community as a place for self-identification. In addition, they heard about success stories of the persons who overcame the tragedy of national division from their hometown and decided not to repeat the unnecessary war in the history of their fathers. Finally, the division stories connected to the growth period defined the pain of growth in dark experiences limited in their memories to recognition of the history through young speakers.

The suffering children experienced due to the war increased the meaning of tragedy the most as they never accepted the violence of the world and downfall of life. The division stories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the world is evil when they arranged the young ones in the composition of cruel suffering. The young ones who were not involved in the violence at all were arranged in reality of the war, which caused doubled violence. They highlighted the tragedy that induced the evil world dramatically through tanks, squirrels, empty towns, starved children, wild flowers, greed of adults, inspector's induction, and children. So, this study examined it in < War and Squirrel > by Lee Dong-ha, < Wild Flowers in Memories > and < Rainy Season > by Yoon Hong-kil. The stories sought for highlighting effects to show tragedy caused the absurd condition of war. Furthermore, they used young speakers to progress the discourses, targeting the effects.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분단을 야기한 한국전쟁은 민족적, 사회적, 문학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분단의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이 야기한 전쟁 체험의 성격과 그 극복 양상을 살펴보는 일은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후 소설에 나타난 전쟁 체험을 분석하여, 전쟁 체험과 그 극복의 모습을 성장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보려고 한다.

현대문학에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전체의 외상과 내상에 해당한다. 해방직후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려는 한반도의 공공단체 시설과 학교, 병원, 주택들이 파괴되어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민간인 사망자만 남북한 합쳐 60만 명에 이르고, 군인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전쟁이었다. 부분적으로라도 추산이 가능한 물적,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가족이 붕괴되어 버린 이산가족과 실향민, 치명적 부상자들과 고아들의 고통은 단지 상처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에게 현존하는 실존의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적이다. 무엇보다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함께 현재에도 서로 적으로 규정하며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족 전체의 충격과 공포, 정체감을 갖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전후문학¹⁾은 이러한 전쟁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1950년 이후의 한국문학²⁾을 논하면서 ‘분단문학’ 이나 ‘분단인식’ 을 따로 소재

1) 우리의 전후문학이라고 할 때 본 고에서는 남한의 작품과 작가들만을 지칭한다. 북한은 일인독재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의 사회체제에서 작가의 개성적이고, 다양한 관점보다는 혁명 사회의 요구에 적절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 쓰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폐쇄적인 북한의 자료를 다양하게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2) 50년대 전후 오상원, 서기원, 장용학, 손창섭, 김성현, 선우휘, 이범선, 하근찬 등의 소설에는 전후문학의 공통적 특징인 부조리의식인 폐허·절망·정신과 영혼의 불구 등으로 일관된 세계가 묘사되어 있다. 현실

와 주제 차원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부질없다고 할 만큼, 전쟁과 분단은 한국 현대 문학의 원천이며 수원(水源)이기도 하다. 결국 전쟁과 분단 상황은 한국 현대문학의 외곽을 둘러싸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컨텍스트’이며, 전후의 한국문학은 대부분 ‘분단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후의 한국문학은 ‘분단상황’이라는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³⁾

한국문학에 있어서 분단상황은 필연과 당위의 문제이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내상(內傷)을 개인이나 민족이 바꿀 수 없던 ‘필연’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그 전쟁의 상흔을 씻고 분단을 극복해야하는 것은 ‘당위’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체험과 기억이 내상이라면 이러한 내상을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드러내고 치유해야 한다는 당위가 동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역사적 소명이 된다. 이 필연과 당위의 복잡한 교직(交織)이 문학의 영역 안에서 다양한 ‘분단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지배 권력의 공식적인 담론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⁴⁾, 동시대의 완고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복 이데올로기의 굳고 단단한 벽을 허무는 데 일조⁵⁾를 하기도 했다.

전쟁과 분단을 소재로 삼은 전후소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분단의 현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전쟁의 문제는 체형세대의 강박적 전쟁 공포를 넘어 세대에 따라 잊혀 질 수도 있지만, 전쟁의 결과인 분단이라는 현실의 문제들은 고스란히 ‘이월’⁶⁾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후소설은 분단 이야기⁷⁾일 수 밖에 없다. 분단 이야기는 분단의 비극적 현실통찰로 그치지

이 문학을 규제하는 특성을 드러낸다. 이는 꺾어진 시대의 문학이 보이는 한계이기도 하다. 파괴와 살육의 비인도적 행위가 공적으로 승인된 전장의 상황은 문학적 상상력보다 고발과 증언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참담함에 대한 고발과 증언은 휴머니즘의 회복이라는 명제를 이끌어낸다.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막연한 단계의 휴머니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3) 분단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우의 문학작품에서조차도, 그러한 탈상황적이고 몰역사적인 시도의 이면에서 분단과 전쟁에 관한 문학적 관심의 ‘과잉상태’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또한 궁극은 분단과 전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다.

4) 소위 종군 작가들이나 그 후 반공이란 미명하에 생산된 소설들이 대표적인 예에 속할 것이다.

5) 최인훈의 광장을 비롯한 선우회의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인물군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6) 지난 2002년의 서해교전 사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치국면, 남북관계마저 급격하게 경색되는 상황은 분단 문제가 여전히 우리민족에게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남북한 사회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제와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호존중의 태도’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아온 지난 60년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7) 본 연구에서 분단소설, 전쟁소설, 이산소설이라는 용어는 사용을 지양한다. 전쟁의 결과를 소재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한정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원인과 그에 따른 맥락을 드러내는 ‘분단과 전쟁, 실황과 이산, 화해와 통일 등 전쟁에 따른 분단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포괄하는 ‘분단 이야기’라는 용어를 제안

않는다. 분단 이야기는 ‘전쟁은 어떻게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가, 분단이 왜 일어났고, 민족전체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분단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시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 이야기는 슬픈 과거사가 아니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이야기가 된다.

다음으로는 미시적 측면에서 각 개인의 경험에 의해 생산된 전후 소설들 특히 자전적 요소가 강한 성장소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존의 한국 성장소설에 대한 논의는 유형적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즉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중심으로 편중된 소설 논의 속에서, 성장 소설은 교양, 형성, 입사 등의 외국문학 개념과의 비교를 통한 유형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풍토에서 성장소설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김병익은 「성장소설과 문화적 의미」⁸⁾에서 첫째, 우리에게 개인적, 내면적 성장을 발전, 유도할 만한 문화요소가 희박하다는 것, 둘째 소년들의 입사의 계기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이어서 자아의 각성은 개념적 형태라기보다는 사건적, 외형적 형태를 띠는 것, 셋째, 소년이 결말에서 궁극적으로 동화되는 지배적 가치관은 자기 교정능력을 갖춘 살아있는 이념의 체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강요된 경직성을 보인다는 것, 넷째, 다라서 현실에서 긍정될 수 있는 문화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것을 비판할 가치체계도 빈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외 여러 연구자들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중 6·70년대 성장소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부재를 전통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접근하거나,¹⁰⁾ 아버지의 탐구를 통한 역사의 복원으로 해석한 것,¹¹⁾ 「장마」와 「노을」을 대상으로 주인공의 자기인식이 가족과 모성으로의 회귀를 통해 성장소설의 전망부재를 비판한 논의¹²⁾, 그리고 한국성장소설이 편력보다는 화해의 이상으로 귀결한다는 점에서 한 시대의 침체한 모순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로 비판한 논의¹³⁾ 등이 있었

한다.

8) 김병익, 「성장소설과 문화적 의미」,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9) 이보영·진상범·문석우,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남미영, 『한국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1.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10) 김윤식, 「부성원리의 형식」, 『김윤식 문학 선집-소설사』, 숲, 1991.

11)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5.

12) 최인자, 「성장소설의 문화적 해석」, 『문학과 논리』 제5호, 태학사, 1995.

13) 신희교, 「성장소설과 상상력의 빈곤」, 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6호, 1997.

다.

성장소설, 혹은 소년화자의 성장모티프는 단지 6·70년대만의 현상은 아니다. 소년 혹은 청년기란 근대가 시작되면서 문제화된 범주이다. 이광수의 「무정」 역시 주요인물의 성장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소설이 공통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년을 구조화하는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따라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느냐에 대한 지향이 다를 것이고, 이 지향을 통해 드러나는 당대의 특징인 성장의 서사 형식이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대 소설에서 나타나는 입신출세를 향한 개인적 욕망과 그것을 수렴하는 민족주의라는 계몽주의 이름으로 감싸고 봉합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런 봉합이 불가능해진 3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김남천의 소설이나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소년 주인공의 성장 모티프는, 동일한 성장의 서사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전혀 다른 근대성의 전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70년대 전후소설에서 분단이야기는 비극적 체험이 강요하는 주술성에서 벗어나 전쟁의 상흔을 객관화하려는 모색을 드러낸다. 50년대 전후 소설에 나타난 전쟁공포와 피해의식의 ‘반복(repetition)’ 회로’ 들은 ‘전쟁 체험의 통속화’라고 할 만한데, 언어로 수월하게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 서사적 현실의 압도 때문이다. 이 표현의 불가능함은 체험이 문학을 압도하면서 나타나는 수난의 다른 형상이다. 1960년대는 비극적 체험의 압도를 상대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시간적 거리가 확보되어 기억과 체험의 진술을 넘어 그것들의 의미, 진술행위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 물음과 이해를 시도하게 되었다. 6·70년대의 분단이야기는 사건 되짚어보기, 시간적 돌아가기를 통해 불가해한 체험의 이해를 추구하는 유소년 화자 시점의 성장소설¹⁴⁾ 형태로 나타난다.

유소년기나 십대 무렵에 전쟁을 체험한 세대의 작가¹⁵⁾들은 분단비극이 가한 정신적 외상을 객관화하는 데서 출발하여 분단문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확대

14) 성장소설은 유럽에서 교양소설로 부르는데, 청년의 삶과 근대세계의 탐욕스러운 자본 증식과 유비적 관계를 지시하지만 우리 소설에서는 사회 역사적 현안에 관한 인식의 예측상태를 벗어나는 내면 성장의 이야기로 나타난다.

15) 논의의 시발점으로는 김병익의 「성장소설의 문학적 의미」, 『지성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를 들 수 있다. 또한 90년대 후반에 들어 황종연은 편모슬하에서 인간 성장구도를 사회 윤리적 차원을 맥락화했고(「성장소설의 한 맥락」, 『문학과 사회』, 1996, 여름.) 이어서 류보선이 성장구도의 사적 전개를 논의한 바 있다.(그의 「고통의 기억, 기억의 고통」, 『문학동네』, 1998 봄.; 「사생아, 자유인, 편모슬하-성년에 이르는 세가지 길」, 『문학동네』, 1999 여름.; 「두 개의 성장과 그 의미-‘외딴방’과의 ‘새의 선물’에 대한 단상」, 『문학동네』, 2001 봄.)

시킨 글쓰기를 수행¹⁶⁾해 왔다. 이후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작가들이 느끼는 이데올로기적 검열의 압박이 커지게 된다. 가족이야기는 이러한 공포와 압박의 분위기를 우회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후 소설이 분단이야기를 가족사에 스민 자전적 체험으로 형상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6) 분단이야기는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유입하에 의하면 ‘반공 시대’와 ‘탈냉전 시대’라는 측면이다. 유입하는 ‘반공시대’를 ‘반공 규율 사회와 소설의 응전’으로 보았고, ‘탈냉전 시대’는 ‘역사와 기억의 경합’으로 보았다. 전자의 시간적 배경은 6·25부터 군사독재정권까지이고, 후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부터 현재까지다.
유입하, 『기억의 심연』, 이회, 2002. 참조.

2. 연구사 검토

문학사를 ‘변화’와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때, 1950년대의 문학은 분명히 ‘변화’를 무게의 중심에 놓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문학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는데 ‘변화’라는 쪽의 무게 중심에서 평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 이론의 뒷받침은 여러 연구자들의 논거로 대신하고자 한다.¹⁷⁾

변화란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는 시기이며, 문학 그 자체에 질적 변화가 시도되는 시기를 말하는 반면에, 계승이란 앞 시기의 문학적 전통을 심화시키면서 질의 고양에 힘이 모아지고 있는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 작품이 전자의 시기에서 많이 산출되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시기에서는 양질의 작품이 많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변화’의 시기로, 1930년대와 40년대는 ‘계승’의 시기로, 다시 1950년대와 60년대는 ‘변화’의 시기로, 1970년대와 80년대는 ‘계승’의 시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변화」의 시기에서는 축적된 내부적 힘이 강했고, 「계승」의 시기에는 축적된 내부의 힘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론은 어디까지나 거시적 관점에서의 판단이고 문학사에서 예외적인 존재-이를테면 이상과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¹⁹⁾

17) 김상선, 「신세대 작가론」, 일신사, 1964.

박동규, 「현대한국소설의 성격연구」, 문학세계사, 1981.

신경득, 「한국전후소설연구」, 일지사, 1983.

18) 김상태, 『문체의 이론과 해석』, 집문당, 1983. p.308.

19) 1950년대와 60년대를 「변화」의 시기로 판단하는 요인들을 김상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첫째, 세계 속의 한국문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둘째, 50년대 와서는 문학적 체험의 전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표기의 표준화 및 통일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다수가 맞춤법 통일안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이다.

넷째,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대거 등단함으로써 기존의 작가들에게는 볼 수 없는 문체의 변화를 시도했다. 소위 “신세대”작가들의 활동을 예로 들었다.

다섯째, 전쟁와중에 미국의 GI문화가 한국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분단문학의 징후가 비극적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6·70년대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문학사적 의의와 특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기존의 성과물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시대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당대에 활동하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작가론 또는 작품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주로 평론을 통하여 언급한 것이 많은데, 김승옥에 관한 연구 중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것을 살펴보면²⁰⁾ 구조와 문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작가의 현실인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¹⁾ 이와 함께 문학잡지나 학술지를 통해서도 6·70년대 소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²²⁾

- 김상태, 『문체의 이론과 해석』, 집문당, 1983.
- 20) 이경란, 「김승옥 소설의 서술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이동신, 「김승옥 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배성희, 「김승옥 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오은희, 「김승옥 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이정석, 「김승옥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21)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남미영, 「한국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최용석,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 비판과 극복의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22)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133집, 국어국문학회, 2002.
곽종원, 「전쟁문학특집」, 『월간문학』, 1969. 10.
권오룡, 「시각의 확대와 성숙」, 김병익·김주연 편, 『해방40년 민족지성의 회고와 전망』, 문학과지성사, 1982.
권택영, 「평면과 입체 서술」,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서문학사, 1991.
김병익, 「분단인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2. 2.
——, 「분단인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2. 2.
——, 「60년대식 풍속변화—김승옥의 작품세계」, 『신한국문제작가선집 1』, 어문각, 1983.
김세진, 「한국군부의 성장과정과 5·16」, 『1960년대』, 거름, 1984.
김우중, 「윤홍길의 「장마」와 분단 극복」, 『문예중앙』, 1997. 겨울호.
김윤식, 「부성원리의 형식」, 『김윤식 문학 선집-소설사』, 숲, 1991.
——, 「60년대 문학의 특질—김승옥론」, 『김윤식 평론 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 「6·25와 우리소설의 내적 충격」, 『한국문학』, 1985. 6.
김 현, 「김승옥론」, 『현대문학』 1966. 3.
——, 「떠남과 돌아옴」,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92.
백 철, 「전후오십년의 한국소설」,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1.
서종택, 「해방이후의 소설과 개인의 인식」, 『한국학 연구 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신희교, 「성장소설과 상상력의 빈곤」, 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6호, 1997.
우한용, 「소설 이해의 구조론적 방법」,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평민사, 1994)
유입하, 「한국 소설의 분단 이야기」, 책세상, 2006.
유종호, 「김수성의 혁명」, 『문학과 현실』, 민음사, 1975.
——, 「슬픈 도회의 어법」,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문학사를 통하여 6·70년대를 조망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0년 단위 문학사 기술의 관점에서 60년대를 1970년대 산업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로서는 다분히 주제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재선²³⁾과 1960년대 문학의 특징을 허무의식으로 보고 있는 김윤식²⁴⁾, 10년 단위의 문학사 기술 방법을 철저히 사용하여 문학사를 기술하려 시도한 권영민²⁵⁾ 등이 있으며, 또한 “60년대 결론이란 70년대 소설이며 60년대의 성과와 한계란 곧 70년대 소설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면 70년대 소설은 60년대의 가능성을 모조리 현실화시키기 시작한다.” 고 표현한 서경석²⁶⁾과 작중인물을 논지의 중심에 놓고 있는 유기룡²⁷⁾, 60년대 소설을 70년대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려 한 윤병로²⁸⁾, 해방 후 50년간의 소설을 해방공간의 소설, 민족적 비극기의 소설,

윤병로, 「새 세대의 충격과 60년대 소설」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89.

이광호, 「깊고 어두운 자기 세계」 『김승옥문학상수상작품집』, 훈민정음, 1995.

이정희, 「트라우마와 여성 성장의 두 구도」. 『경희대학교 교향논집』. 제25호.

이채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사상』, 1990년 봄호.

이태동, 「자아의 시선과 미망의 여로」, 『김승옥문학상수상작품집』, 훈민정음, 1995.

임영일, 「한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 연구회 편 『한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녹두, 1991.

임현영, 「분단 의식의 문학적 전개」, 『세계의 문학』, 1977.가을.

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한국문학』, 1985.6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 김승옥론」, 『김승옥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정문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외」, 정문길 편, 『소외』, 문학과학지성사, 1984.

정현기, 「1960년대 소설」, 『한국근현대 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85.

——, 「안개와 수군거림과 애욕의 시대를 지켜본 작가 : 김승옥론」. 『이상문학상수상작가대표작품선 1』, 문학사상사, 1986.

조남현, 「미적 세계관에의 입사식」, 김승옥자선대표작품집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아출판사, 1991.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 『김승옥문학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 「묘사와 실험-윤홍길론」, 『장마』, 민음사, 1980.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최인자, 「성장소설의 문화적 해석」, 『문학과 논리』 5호, 태학사, 1995.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담론 특성」 『한국언어문학』 제44집, 한국언어문화회, 2005.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김승옥론」.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황종연, 「인간적 친화를 꿈꾸는 소설의 역경」. 『작가세계』, 1993, 봄.

2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pp.141-317.

24)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1945~1980-』, 일지사, 1983년 증보판, pp.60-83.

2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pp.194-206.

26) 서경석, 「60년대 소설 개관」,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pp.31-47.

27) 유기룡, 「1950~60년대 소설 -반항자상과 피해자상의 인물형」, 『한국소설사』, 김동욱·이재선 편, 현대문학, 1990, pp.524-547.

28) 윤병로, 「새 세대의 충격과 60년대 소설」,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pp.325-336.

혁명과 반혁명의 소설,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소설 등으로 유형화하고, 혁명과 반혁명기가 60년대에 해당 한다고 본 송현호²⁹⁾ 그리고 1960년대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정현기³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대론에 입각한 논의³¹⁾가 있는데, 이 연구 방법은 문학의 통시성을 중심으로 전쟁과 분단 상황에 대한 작가의 역사적 인식을 세대의식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김상선은 역사의 인식을 세대의식에서 찾으며, 50년대에 접어들면서 혁신적인 창작 태도와 기법 등으로 무장하고 새로이 등장한 작가들의 문학적 위상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신세대 작가’ 혹은 ‘전후세대 작가’ 라는 명칭을 부여한다.³²⁾

이상의 연구는 6·70년대 소설을 시대사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서 이 시대의 소설에 나타나는 시대조건에 반영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소설에 대한 구체적 분석보다는 연구자의 관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정은 6·70년대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강만길³³⁾, 박세길³⁴⁾ 등 전보적인 시각을 가진 몇몇 사학자들에 의하여 접근되어 있을 뿐 이 시대에 대한 역사학적 위상 역시 미약하다. 오히려 문학의 분야에서 먼저 접근하여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규명하여 역사학으로 이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6·70년대 문학의 특징을 문제 작품, 혹은 작가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다. 6·70년대 소설은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소외 문제를 다룬 것과 전후문제를 다룬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 작품경향을 산업 사회로의 진

29) 송현호, 「해방 50년, 소설 장르의 전개와 유형론」, 『소설과 사상』, 1995. 여름, pp258-274.

30) 정현기, 「1960년대 소설」, 『한국근 현대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90. pp.234-239.

31) 김상선, 『신세대 작가론』, 일신사, 1964.

김병익, 「분단인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2. 2.

임현영, 「분단 의식의 문학적 전개」, 『세계의 문학』, 1977. 가을.

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한국문학』, 1985. 6.

김윤식, 「6·25와 우리 소설의 내적 충격」, 『한국문학』, 1985. 6.

32) 김윤식의 경우 전쟁체험 유무에 따라 세대를 나누어 전전세대, 전후세대, 유소년체험세대, 미체험세대로 세분하고 있고(「6. 25 소설의 내적 형식」, 『운명과 형식』, 숲, 1992), 김병익·이동하 등도 이와 유사한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지만(김병익, 「6. 25 콤플렉스와 그 극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이동하, 「분단의식의 소설적 전개」, 『문학의 길, 역사의 길』, 문학과지성사, 1986)

33)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34)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도서출판 돌베개, 1989.

입과정에서 인간소의 문제를 다룬 소설과 전후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 파악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 있어서 인간소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황석영의 「객지」, 「삼포 가는 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무진기행」,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등이 있다. 이들 소설에서는 왜곡된 근대화, 산업화가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초래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들 소설에 나타난 전통/근대의 대립은, 공동체적 화해의 세계/인간관계의 소외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린아이가 어른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다룬 성장소설이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대의 성장소설은 개인의 성장문제가 시대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현실비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6·70년대 전후 문제를 다루는 소설에는 김원일의 「노을」, 「불의 제전」 1부, 「겨울골짜기」, 「마당 깊은 집」 등과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서울, 1964년 겨울」, 「건」, 윤홍길의 「장마」, 「황혼(黃昏)의 집」, 「집」, 「양(羊)」, 「아홉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이동하의 데뷔작인 「전쟁과 다람쥐」, 「장난감 도시」 연작, 『우울한 귀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소설에서는 6·26 전쟁이 가져온 폭압적 현실의 모습을 전후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표현함으로써 전쟁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소설 가운데에는 유소년의 시점 혹은 자신의 유소년기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점을 통해 전쟁 체험을 성장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원일, 김승옥, 윤홍길, 이동하 등이 유소년기에 전쟁을 체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 소설은 전후소설을 성장소설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김원일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분단문제를 현실인식 혹은 시대의 고통과 연결시킨 연구로 오생근³⁵⁾, 박혜경³⁶⁾, 홍정선³⁷⁾, 정과리³⁸⁾, 성민엽³⁹⁾ 등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의 문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파

35) 오생근, 「분단문학의 확장과 현실 인식의 심화」, 『그리움으로 짓는 문학의 집』, 문학과 지성사, 2000.

36) 박혜경, 「실존과 역사, 그 소설적 넘나듦의 세계」, 『작가세계』, 1991. 여름.

37) 홍정선, 「기억의 골레를 벗는 통과제의」, 『노을』 해설, 문학과 지성, 1997.

38) 정과리, 「이데올로기 혹은 짐승의 삶」, 『현대문학』, 1987. 7.

39) 성민엽, 「분단소설과 복합 소설」, 『문학과 사회』, 1997. 가을.

악하여 달관과 통찰의 미학으로 보는 관점은 김병익⁴⁰⁾, 김현⁴¹⁾, 서정기⁴²⁾, 김치수⁴³⁾, 김주연⁴⁴⁾, 이창기⁴⁵⁾, 권명아⁴⁶⁾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성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권오룡⁴⁷⁾을 비롯한 제 연구자의 논의가 있다.

김승옥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천이두⁴⁸⁾는 그의 소설이 “50년대 문학이 예외 없이 간직하고 있던 강력한 이슈의 집착 내지 교훈주의에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점과 “강화된 엄숙주의에서 연유되는 고도로 긴장된 문장의 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50년대 작품과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김현⁴⁹⁾은 50년대 작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수락해 버리는데 60년대 작가들의 주인공은 “그 상황을 뚜렷히 인식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해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연은 ‘허세의 포즈로 떨어져 버린 느낌을 들고 나온 김승옥을 계기로 문학에서의 현실의미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⁵⁰⁾고 했다.

김치수는 김승옥의 소설이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사건의 전개가 없고 개인의 일상적 삶이 좀 익살스럽게 전개되며, 인물들의 행동이나 언어는 철저해 계획된 의도된 부분보다는 즉흥적이고 장난스런 부분이 많아 사실주의적 경향이 부족하다’⁵¹⁾고 하였다. 정현기 역시 김승옥 소설에서는 ‘깨어진 공동체 의식, 고향 상실, 정신적 지주를 잃어버린 60년대 상황을 소설화했으며, 특히 그가 보여준 가족 단위 소설세계는 60년대 한국인의 생존형태를 보인다.’⁵²⁾고 하였다.

40) 김병익, 「‘핏빛’에서 ‘가을별’으로」, 『연』 해설, 문학과 지성, 1985.

41) 김 현,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 『문학과 사회』, 1989, 봄.

42) 서정기, 「역사의 신화적 열림」, 『작가세계』, 1991, 여름.

43) 김치수, 「개인과 역사2」, 『문학과 사회』, 1994, 가을.

44) 김주연, 「못 깨닫는 기드온」, 『사랑과 권력』, 문학과 지성사, 1995.

45) 이창기, 「소설 속에서의 상상력과 근원」, 『동서문학』, 1991, 가을.

46) 권명아, 「가족이야기, 그 역사적 형식에 관하여」, 『동서문학』, 2000, 겨울.

47) 권오룡, 「개인의 성장과 역사의 공동체화」, 『문학과 지성』, 1979, 봄.

김병익, 「비극의 각성과 수용」, 『현대문학』, 1977, 여름.

김주연, 「억압과 열림」, 『문학과 지성』, 1980, 봄.

김윤식, 「6·25와 우리 소설의 내적 형식」, 『한국문학』, 1985, 6.

김중희, 「개인의 수난사에서 민족사의 비극으로」, 『동서문학』, 1990, 5

신재기, 「가족적 삶의 서사적 범주-김원일론」, 『매일신문』, 1990, 1.7-10.

48)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 『제 3세대 한국문학』, 제 12권, 삼성출판사, 1985, pp217-239.

49)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다산성:김승옥 대표작품선』, 한겨레, 1988.

50) 김주연, 「개체화의 추구」, 『김승옥: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51) 김치수, 「김승옥의 소설」, 『김승옥: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이태동은 김승옥의 작품의 예술적 성공은 ‘황폐한 삶의 현실에 대한 처절한 리얼리즘과 주제의식으로 한국문단에 새로운 충전을 가하였고, 특히 존재의 인식과정을 치열한 언어로 보여준다.’⁵³⁾고 분석한다. 그 외에도 단편적으로 김승옥의 문체적 매력을 “섬세한 관찰법이나 선명한 문체”⁵⁴⁾, “절묘한 소설적 진술방식”⁵⁵⁾, “싱싱한 감수성에서 연유”⁵⁶⁾,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풍부한 서정적 언어의 상징주의를 융합”⁵⁷⁾ 등의 평가에서 김승옥 예술의 성공이라 평가하고 있다.

윤홍길의 소설 세계는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뉘어 논의 된다.⁵⁸⁾ 그 한 계열이 「장마」, 「황혼(黃昏)의 집」, 「집」, 「양(羊)」, 등의 작품으로 6·25를 겪은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소설로 본다면, 다른 하나는 「아홉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비롯한 작품으로 이른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경험된 삶의 여러 양상을 서술한 작품들이고, 세 번째 계열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등의 작품으로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다룬 소설들이다. 김치수는 「장마」를 윤홍길의 문학의 출발점으로 보며 이 작품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의식과 묘사로서의 소설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천이두는 ‘「황혼의 집」, 「장마」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어린이를 작중의 관찰자 내지 화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 동화적 분위기에 휩싸인 ‘문제적 개인’의 표징을 읽어낼 수 있다.’⁵⁹⁾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하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난, 소외, 실존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치수는 “그가 왜 고향에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서울에서의 생활-그것은 문학이라는 이름 밑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따분함, 젊음의 발산이 불가능한 무위의 생활, 그리고 일시적인 추위와 마음의 공허에 가득 찬 내용이 없는 삶을 이야기한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오랫동안 잊혀진 고향에 돌아가 봄으로써 서울에서의 고통스런 삶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발견,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비관적(悲觀的)사고의 원인에 대한 확인 등등의 것으로

52) 정현기, 「1960년대적 삶」, 『김승옥: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53) 이태동, 『한국현대소설의 위상』, 문예출판사, 1985. pp.93-108.

54) 정현기, 앞의 책, p.410.

55) 정현기, 앞의 책, p.410.

56) 천이두, 『한국현대 작가작품론』, 일지사, 1974, p.326.

57) 이태동, 앞의 책, p.94.

58) 김치수, 『제 3세대 한국문학-윤홍길』, 삼성출판사, 1983.

59) 천이두, 『한국 소설 문학 대계-윤홍길』, 동아출판사, 1995.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소설은 그러한 주인공의 의식을 이중적 구조로써 보여준다.”⁶⁰⁾ 고 한다. 김현은 ‘본토박이 · 피난민 · 떠돌이 등의 세 부류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음’⁶¹⁾을 지적하며 ‘초등학교 4학년생의 의식의 성장과정’을 주목했다.

진형준은 ‘서정적인 문체, 그 문체에서 빚어 나오는 삶에 대한 까닭 모를 비애, 우울함,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그 소설에 짙게 물들어 있다’고 이야기 하며, 화자의 초점에 주목하였는데 ‘그 체험과 상처는, 그 체험과 상처를 회상하고, 어루만지는 행위, 그것을 극복하려는 행위와 노력은 모두 화자의 내면의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바로 ‘그 유년기의 상처를 이동하식으로 회상하고 어루만지는 행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흔적들이며, 따라서 유년기적 상처의 변용된 모습이라’⁶²⁾고 했다. 그 외에도 삶과 실존의 문제를 거론한 연구자로는 조남현⁶³⁾, 김재홍⁶⁴⁾, 이재선⁶⁵⁾ 등이 있고 문체론적 접근의 권성우⁶⁶⁾를 들 수 있다.

한국소설에서 성장소설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최현주는 ‘문학 연구가 혹은 평론가들이 소설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평가하려 했기 때문’⁶⁷⁾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 성장소설이 사회 상황과의 상동성, 즉 사실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사소설적인 경향을 보여 온 반면, 객관적 상징물로서의 자족성, 즉 문학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작가의 체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유입하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사건이 우리 문학, 특히 서사문학인 소설에 어떤 빛깔의 그림자를 드리웠는가를 분석한다.⁶⁸⁾ 그는 ‘한국소설사에서 분단 이야기는 작가 개인으로부터 적용되는 상처 난 기억과 그것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다.’⁶⁹⁾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단이야기에는 해방 이후 전개된 민족 단위의 거시적인 조망과 개개인들의 의식에 가해진 상처와 그 상처들에 대한 미시적인 사유의

60) 김치수, 『제 3세대 한국문학』 이동하편 작품론, 삼성출판사, 1983.

61) 김 현, 「가난한 문화의 현장」, 『장난감 도시』, 문학과 지성사, 1982.

62) 진형준, 「유년의 체험과 상처의 변용들」, 『한국문학 대계』, -이동하 편, 동아출판사, 1995.

63) 조남현, 「도시적 삶의 징후들」, 『현대문학』, 1979.

64) 김재홍, 「이동하, 또는 실존과 휴머니즘」, 『한국대표문학전집 15』, 삼중당, 1982.

65) 이재선, 「인간적 실체의 회복문제」, 『한국문학전집 29』, 삼성출판사, 1985.

66) 권성우, 「미문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소설가의 존재방식-장난감 도시의 작가 이동하」, 『동서문학』, 삼중당, 1989.

67)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담론특성 I’ 『한국언어문학』 제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5, p.487.

68) 유입하, 「한국 소설의 분단 이야기」, 책세상, 2006.

69) 유입하, 「기억의 심연」-한국소설과 분단의 현상학-, 이회, 2002.

궤적이 함께 담겨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유소년화자의 미적 특성과 분단 이야기의 특징을 성장과 각성이라는 코드로 파악하여, 성장과 전쟁체험의 관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전후 소설을 크게 50년대 작가군, 60년대 작가군, 70년대 작가군으로 구분⁷⁰⁾하는데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작가의 전쟁 체험 시기이다. 대체로 50년대 작가군은 성인기에 전쟁을 체험하고, 60년대 작가군이 소년기에 전쟁을 체험한 세대라면, 70년대 작가군은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으로 체험한 세대로 볼 수 있다. 50년대 이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은 지속적으로 전쟁 상황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이들은 전후 상황을 이전 세대의 시각으로 파악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50년대에 작품을 쓰기 시작한 작가들은 전쟁을 체험한 당대 체험의 직접성으로 인해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작품을 보인다. 이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고발하면서 인간의 존재조건에 대해 짙은 회의를 표명하기도 하고, 인간성 옹호를 기치로 삼는 소설세계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내면의식을 추구하고 이념이나 삶이 배제된 심리실체로서의 인간을 보여주는 작품을 쓰거나 관념적 대응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철학으로 추상화된 인간을 그리는 가운데 시대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형상화한 작품들도 주로 이 시기에 나오게 된다.⁷¹⁾ 이러한 작법은 현상과 본질의 괴리를 소설적 문체 삼았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670년대는 50년대의 황폐와 무질서에서 서서히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시기이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대담하고 횡포한 개발의 신화가 정책적 구상과 대중적 캠페인으로 구체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시기는 전쟁의 궁핍과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를 배경으로 하여 풍요로운 선진 국가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근대화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 하는 것이 670년대 한국사회의 과제였다. 새로운 개발의 시대는 철저한 반공의 시대였고, 세속화는 이 시대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70) 십년 단위의 연대구분을 회의적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김병익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이 관점으로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비교적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 측면에서 십년 단위의 연대 구분법을 수용한다.

71) 각주 17)을 참조할 것.

세속화, 그 두 원칙이 근본적으로는 ‘이념적’ 이거나 ‘비판적’ 이 되는 것이 이 세대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등장한 작가들, 이들은 대개 1940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나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의 분단 이야기는 성장기에 가해진 폭력의 전모를 서술하는 주체의 글쓰기가 주류를 이룬다. 자신들의 성장기에 목격한 일들의 불가해했던 기억들은 훗날 장성한 이후 자신의 기억에 담긴 공포와 불안과 슬픔으로 점철된 악한 현실의 정체를 탐문하는 대상이며 이를 통해서 주체의 자기정립에 이르고 있다. 성장기의 기억 저장고에 담긴 체험의 세목들은 분단과 전쟁이 빚어낸 온갖 슬픔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어린 서술 주체가 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운명적으로 맞이한 가족과 주변세계에 걸쳐있는 슬픔에서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며 자기정립에 이르는 심미적 경과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기 전쟁체험의 특수성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유소년의 시점에 주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소설에 있어서 화자의 선택은 스토리나 플롯의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화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사의 방향, 세계와 인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화자와 인물, 화자와 독자의 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카이저의 경우 “서술문학 예술의 기법은 서술의 근원 상황, 즉 서술되는 사건의 존재와 서술되는 청중의 존재, 그리고 이 양자 사이를 어느 정도 중개해 주는 서술자의 존재에 좌우된다.” 고 함으로써 서사문학에서 서술주체로서의 화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⁷²⁾ 결국 화자가 속하는 서술수준, 화자의 스토리 참여 범위, 그의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화자의 신빙성은 독자가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정도나, 그 스토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한국의 현대 성장소설에는 십대의 유소년 화자가 등장하며, 주로 일인칭 서술 상황에 의해 서술된다. 일인칭 서술이란 엄밀히 이야기해서 화자와 등장인물의 존재영역이 동일함을 의미하며, 일인칭 서술 형식의 본격적 형태인 일인칭 소설도 ‘나’ 라는 일인칭 화자가 사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건과 경험을 보고하는 자전적 형태의 서사적 제시 방법의 소설이 된다. 이러한 일인칭 유소년 화자에 의한 서술 상황은 순진한 시각을 통해 세계의 부조리, 성인들 세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 유소년 화자의 객관성과

72) V. Kaiser, 김윤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대방출판사, 1982, p.310.

순진성은 성장소설에서 유소년 화자가 지배적으로 채택되는 이유인 것이다.

유소년 화자 혹은 유소년 시선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최재서에 의해 처음 시도된 바이다. 그는 박태원의 「천변풍경」에서 소년의 시점이 가진 투명함이 ‘카메라의 눈’을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드는 장치로 주목했다. “왕성한 호기심과 아무 편견 없는 눈을” 가진 소년을 통해서 드러내는 서술에서 발견한 최재서의 작품평가는 ‘관찰자이자 투명한 시선을 가진 존재를 “최대의 걸작” 부분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⁷³⁾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유소년 화자나 그 시점을 내장한 분단 이야기의 출현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재서는 세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리얼리즘의 문학적 원리라고 본다. 그는 이 문제를 게슈탈트 심리학의 심리적 유형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인물의 행위에서 그 동기가 외부에서 오는가, 내부에서 오는가에 따라 그는 내향적, 외향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그는 많은 작품들이 중간항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⁷⁴⁾ 이 구분에 의거하면, 유소년화자의 ‘투명한 눈’은 외부로부터 체험된 비극의 세목들을 편견 없이 드러내는 일종의 매개물이자 하나의 서술 장치이다. 이것은 분단 현실이 지속, 심화되고 검열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자아에 가해진 수난의 원체험과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서 불투명한 체험을 환기하는 장성한 서술주체가 표방하는 미적 원리인 것이다.

통시적으로 전후소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6:25를 성인의 위치에서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데 반해, 70년대 이후로 80년대에 들어선 지금까지 6:25를 ‘소년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소설들이 하나의 성향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글쓰기의 세대교체와 이에 따른 경험영역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것은 차라리 전시대의 소설들이 총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동시에 전후 이데올로기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유소년의 시점은 자연스럽게 전후의 이데올로기 영역을 괄호 속에 넣어 버림으로써 여전히 전후세계를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전후의 지배담론에 대한 ‘낮설게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쟁의 의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체험하고 전후 상황, 즉

73)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p.105.

74) 최재서, 앞의 글, 같은 책, pp.99-100.

이념적 이데올로기, 배고픔의 문제를 ‘어떤 목소리에 담고 있는가?’와 ‘전후 부조리 상황을 어떤 인물 제시로 극복하려 하였는가’의 문제를 천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년대 작가들에서 보이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을 다루는 소설은 제외한다. 미체험 세대에 속하는 작가들의 분단이야기도 오양호가 지적하였듯이 ‘긴사고’⁷⁵⁾를 거쳤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성장소설을 산업화 시대의 논리와 연관하여 분석해온 관점과는 달리 폭압적 전쟁체험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자기존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670년대의 전후소설 중 유소년 화자가 등장하는 성장 모티프를 갖는 일련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소설들은 분단체험을 공통배경으로 하면서 성장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670년대의 전후소설을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은 성장의 문제를 고통스러운 과거기억과의 화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 후 성장소설 연구의 방향을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75) 오양호, 『한국현대소설의 서사 담론』, 문예출판사, 2002.4, pp22-23

“현실주의 소설의 가장 무서운 적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작품화하고, 긴 사고를 거치지 못한 것을 쓰려고 할 때 나타난다. 그러나 대중 취향의 중간적 글쓰기에서는 가능하다. 대중이란 그런 것을 눈치 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II. 전후 세대 전쟁 체험과 성장소설

1. 6·25 전쟁과 전후 세대의 전쟁 체험

1) 6·25 전쟁의 성격

아도르노는 체험을 “물화된 세계로부터, 그리고 강압(Zwang)이 된 체계로서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⁷⁶⁾라고 하고 있다. 소설에서 체험은 감각적인 것이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모든 사유가 본질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에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주체가 인식되는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기형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기되는 것이 인식의 개념에 감각적인 체험의 계기를 끌어들이는 것⁷⁷⁾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한국전쟁의 발발과 책임규명에만 맞춰져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와 ‘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것도 국내학자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주도되어 왔고 전통주의 혹은 수정주의라는 용어를 양산해온 측면이 있다.⁷⁸⁾ 이제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또 오늘의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한국전쟁과 한국사회에 접근해 가는 정치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중들의 전쟁체험과 기억을 토대로 한 사회사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한국전쟁의 역사를 복원하여야 하는 것이다.⁷⁹⁾

76) 김유동, 『아도르노의 사상』, 문예출판사, 1993, p.142.

77) 김유동 위의 책, p.145.

78) 한국전쟁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1-2차 사료가 해금되면서부터 국내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전쟁과 사회』이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79)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에서 저자는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왜 전쟁이 발생했는가’란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 중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났으며 전후 한국정치가 어떻게 재생산됐는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이 단순한 전투가 아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폭력을 수반한 고도의 정치게임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또 국가, 이승만과 지배층, 민중들이 각각 전쟁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피난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지배층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 같은 그들의 양태가 한국의 정치상황을 어떤 식으로 왜곡했는지를 파헤친

먼저 한국전쟁을 현재 남북한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남한에서 한국전쟁이란 “6·25”라는 ‘날짜’로 규정된, 전쟁 발발을 표시하는 기념일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를 통해 전쟁을 개시한 쪽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감만을 부추겨왔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제국주의와 이승만의 반역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남북한 서로의 전쟁 인식에는 민족과 국민과 인민의 권리가 설자리는 없고, 6·25전쟁 자체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김동춘은 기존의 한국전쟁 논의가 전쟁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문제를 한국전쟁이 민중에게 무엇을 남기고,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동춘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왜 전쟁이 발생했는가”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⁸⁰⁾ 이런 관점은 한국전쟁이 단순한 전투가 아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폭력을 수반한 고도의 정치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도록 한다. 한국 전쟁의 상황을 살펴봄에 있어 김동춘이 분류한 피난, 점령, 학살의 항목은 민중들이 인식한 전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피난’은 전쟁시기와 이후 한국인의 정치적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약 50년 전 6월 25일 남한 사람들은 전쟁 발발 자체에 그다지 동요하지 않았다. 48년부터 유격대 토벌작전과 3·8선에서의 잦은 전투소식에 만성이 되어 있었고 이승만을 비롯한 지배 엘리트들은 총선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처지에서 전쟁을 오히려 정치적 호기로 판단한다. 전쟁발발의 동요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이승만을 비롯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가능했던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층과 일반 민중들 사이에는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전자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냉전질서 하에서 한국전쟁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후자는 인민군이 내려와도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민군 치하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자들은 군, 경찰, 공무원 등

다. 아울러 권력기반이 취약한데서 비롯된 지배층의 반공 콤플렉스,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군대 및 경찰의 비민주성 등이 어떤 모습으로 정치구조에 투영됐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80) 오히려 “전쟁 중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났으며 전후 한국정치는 어떻게 재생산 되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김동춘, 앞의 책, p.78.

국가기구의 구성원들과 월남자, 기독교인, 지주, 자본가 층 등 일제 협력자, 남한의 지배층 일반 이었을 뿐, 대부분의 민중들은 북한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난도 초기 단계의 정치적 피난과 14후퇴 혹은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한 생존적 피난을 구분해야 함에도 모든 피난행동은 공산주의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해온 측면이 있다. 피난 과정과 사후처리에서 보여준 지배계층의 이기적인 형태는 조직으로서 국가는 존재했으나 국민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느닷없이 끌려 나온 그들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천릿길을 걸어 나오는 동안 신발은 해져 맨발로 얼음길을 밟고 있었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 전쟁의 최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교실이 틈도 없이 채워진 뒤에 다다른 형제들은 엄동설한에 운동장에서 몸에 걸친 것 하나로 밤을 새워야 했다. 누운 채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그대로 거적에 썩어지지 않은 채 끌려 나갔다. 시체에 썩어 줄 거적이 어디 있던 말인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지옥도 그럴 수는 없었다. 단테나 석가, 예수가 한국의 1951년 초겨울의 참상을 보았다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 모를 일이다.”⁸¹⁾

이 대목에서 당시 서울 수복 후 실태를 낯낯이 보여주고 있다. 당시 잔류한 사람들의 대다수이자 국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양민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커다란 적대심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호의 모두 가지지 않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이승만 정권이나 북한 정권이나 단지 지배층만 바뀌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지배층이었고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배층을 환호할 만한 지식역시 가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들은 물론 전쟁은 반갑지는 않았지만 당시 우익계열의 지배층과는 달리 공포와 위기를 느끼지 않았음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점령’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패배한 지역의 주민들을 자신의 복속 하에 두는 과정으로 전쟁의 연장인 한 점령정치는 권력의 극대화로서 그 자체가 독재체제인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양측에 의한 상호 점령은 전쟁의 산물이었지만, 그 기원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일제 잔재의 청산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의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은 일단 적으로 분류

81) 최영희, 「특집 :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 한국사와 한국전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p 27-28.

된 사람은 즉각적인 처형이나 납치의 방법을 택하고 있었고, 남은 인민군 점령하의 부역 사실만을 중점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다시 서울을 수복한 이후의 부역자 처벌은 그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잔류파와 피난을 갔던 도강파로 나누어 부역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였다. 이는 전쟁 발발 후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하고 수도를 버리고 갔으며, 한강다리를 조기에 폭파하여 많은 희생자를 냈고, 피난의 경고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수도 사수를 주장했던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잔류파와 잔류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운 행동이다.

남북지배층은 점령, 수복 등으로 이어지는 전선의 극심한 기복 속에서 정책을 뺑개친 채 체제 절대화 작업에 골몰하게 된다. 인민군의 반동분자 처리(친일 경력자, 친미주의자, 지주나 부르주아)로 사상적 우격다짐과 증오, 보복으로 전시체제를 휘저으며 반공, 사회주의를 신앙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점령의 체험은 이승만의 권력을 안정시켰고 대한민국의 국가 토대를 튼튼하게 해 주었다. 이것은 조국해방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호전성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극우정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정치사회학적 접근을 해 보면, 민간인 학살이란 전투로서의 전쟁 뒤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전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민중의 체험과 기억 속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전후의 모든 학살은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사적 보복의 양상을 지니는 경우도 결국 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군경의 실질적인 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전쟁, 그리고 학살은 1946년부터 시작된 정치 변혁과 정치 폭력의 가장 극적이고 치열한 형태이며, 1945년부터 구체화된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소련의 북한정치체제 수립,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인들 간의 정치 폭력의 연장 속에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의 학살은 첫째, 국가 기구에 의한 학살, 둘째, 인민군의 후퇴하면서 저지른 학살, 셋째, 사실상 국가의 목인 하에 이루어진 사적 보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적 보복은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반역’의 담론과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온 군대와 경찰의 반민중성·비민주성·상명하복의 정신이었다. 남북한이 갖는 ‘임시 국가’로서의 성격은 자신의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무력으로 타 세력을 제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정치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군사적인 대력의 상대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반국가 즉 외세의 앞잡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폭력과 살해가 정당화된다. 결국 남북한 간의 잔인한 학살은 바로 국가 건설기의 진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왜 남북한이 자신의 학살은 신성한 것이고 타인의 학살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전쟁시의 학살은 국가 탄생의 비밀이다. 학살은 과거의 일이지만, 학살을 저지른 국가는 그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민간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전쟁을 ‘사실상의 전쟁(정치 폭력, 유격전)- 전면전(전투)- 휴전(전쟁의 지속 혹은 일상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 과정 중에 공식화되지 않은 기억들, 즉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피 학살 민간인과 불의의 죽음을 당한 말단 병사들, 전쟁 와중에 ‘상처받은 몸’을 통해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점들을 조명해야 한다. 그것은 곧 국가의 관점이 아닌 민족의 관점, 인권의 관점에서 전쟁을 재조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편화 되고 억압당한 기억’을 되살리고, 이데올로기의 잣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석되어 온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바로 전쟁을 정치사회학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근대국가의 형성, 국가와 사회의 역학, 국가의 존재의미, 주권의 위상,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 군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긴장, 전쟁과 윤리, 국가 폭력과 인권, 전쟁과 민중 등의 쟁점들을 더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이론적 단서들인 것이다.⁸²⁾

우리는 3년간의 전쟁기간동안 남북한 합해 500만 이상의 인명 손실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북의 기습적이고도 무차별한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남한정부와 국민이라는 식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명확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미군 학살이나 남한 국군과 경찰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는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름 없는 민중들이 공식화되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기

82) 김동춘은 위 책에서 “한국전쟁 과정에서 민중이 당한 비참함과 인간 존엄성의 훼손은 오늘날 사회에 잔존한 야만의 흔적들, 즉 극우 반공주의의 광기, 소외계층의 궁핍과 사회적 배제 등의 현상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따라 한국 전쟁을 해석할 때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족 중심적 시각을 회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민족문제를 사회구성원의 차별, 고통과 희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역을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 갈 때 역사는 은폐, 왜곡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남북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한국전쟁을 재조명하여야 한다.

전쟁 이후 남북한 사회를 각각 장악하고 있는 권력과 그 지배방식이 사실상 한국전쟁의 연장으로서, 그리고 전쟁에 의해 구조화된 질서로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대화의 물고를 트고 지속적으로 협력할수록 ‘한국전쟁’은 덮어두어야 할 역사가 아니라, 덮어 두었던 기억을 복원하여 다시 써야하는 역사이다. 폭격 맞은 마을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끊어진 다리들은 예전에 복구되었건만, 민족의 가슴은 아직도 전쟁이 남기고간 상처와 뒤뜰린 증오로 가득하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휴전협정이 전쟁의 종결이나 평화상태의 지속이 아니었던 셈이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을까? 그리고 전쟁 논리가 정치 상황 속에 계속 잠재되어 앞으로 계속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분명 남북한 민중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철저히 위정자들과 외세의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된 분단 상황의 종결은 현재 우리 민족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이다. 이 과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민족이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 바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후 세대 전쟁 체험의 특징

해방공간의 나라 만들기가 완성되기도 전인 6·25전쟁이 터졌고 그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1948년에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조선 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남북의 단독정부 수립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심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동안 지배해 왔던 핏줄개념의 민족이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다른 나라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전쟁이 터진 것이다. 6·25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전쟁이다. 1950년대 문학이 겉으로든 내면적이든 전쟁을 모티프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당대의 상황이 강요된 상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전시’로 불리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3년 동안은 혼란과 파괴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유엔군을 포함하여 213만 명에 이르는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쟁 비용이 150억 불이라는 엄청난 물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전쟁은 1950년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렸다. 한 통계에 의하면 남한의 전쟁 피해자 총수는 약 131만 명이 사망하고 18만 3천 명이 부상당했으며 7만 명이 포로 또는 행방불명되었다.⁸³⁾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납북되었으며 무려 36만 4천 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었다고 한다. 또한, 적어도 20만 명의 남한 청년들이 강제로 북한 의용군에 가입하였고, 5백만이 넘는 남한 인구가 집을 잃고 방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⁸⁴⁾

이것은 북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며 게다가 전쟁이 남긴 보이지 않는 긴 흔적들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의 참상을 대충 짐작케 한다. 때로 이 전쟁은 ‘문명화 이전의 상황’ 이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참혹한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비극은 있으되 그것은 결코 말해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존재했다.

한국전쟁이 너무나 참혹하고 쓰라린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의 추악하고 파괴적이며 비도덕적인 측면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쟁과 연관된 것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되고 있고, 따라서 다른 시각에서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략…… 한국에서는 전쟁에 관한 심오한 소설이나 시도 많지 않거니와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감동적인 영화나 음악도 찾아보기 어렵다.⁸⁵⁾

여전히 전쟁의 마성(魔性)은 사그러들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수행된 군부의 팽창⁸⁶⁾은 오랫동안 전쟁을 신화

83) 국방연구소의 『한국전쟁 인명피해집』(1996)에 근거한 남한의 민간인 총 사망자의 공식 통계치는 37만 3,577명이지만, 4·19 직후 조작된 학살자유족회에서 파악한 숫자는 113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범,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편,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 삼인, 2000, pp91-92쪽 참조). 이러한 점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소재로 한 김원일의 『겨울골짜기』(1987), 4.3사태 비극을 거처온 자전적 화자의 성장기억의 역사화인 현기영의 『지상에 순가락 하나』(2000), 황해도 신천학살을 오구극 형식으로 풀어 상처의 카니발화를 통한 소통 가능성을 보여준 황석영의 『손님』(2001)의 현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84) 이채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사상』, 1990년 봄호, p.185.

85) 이채진, 위의 책, p.186.

86) 김세진, 「한국군부의 성장과정과 5·16」, 『1960년대』, 거름, 1984. pp. 95~98 참조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인 1950년 6월 한국군의 총병력은 10만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정도 규모의 병력을 보유

화하거나 토데미즘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950년 전쟁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문학적으로 그려질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이 시대의 정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토는 파괴되었고 경제적 궁핍은 극에 달하여 정부는 이른바 구호물자에 의존하지 않고는 국가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정치적인 혼란이 야기된 것은 물론 윤리의 파탄과 모랄의 부재 등 폐허화된 시대상을 보이게 된다. 살육과 파괴로 대변되는 시대, 그 결과 모든 출발을 불모의 땅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화전민의식’⁸⁷⁾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양극화는 이데올로기의 절대화를 초래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극단적으로 강화해 감으로써 이데올로기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성을 띤다. 이데올로기의 절대화는 이념의 모색을 차단하고 그 결과 이념의 부재라는 정신적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이데올로기 선택이 가능했던 해방공간과 달리 하나의 이데올로기만 신념차원과 윤리차원에서 강요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고의 유연성 확보가 어렵게 되고 경직된 지적 풍토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쟁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민족의 재편성’과 ‘외래문화수용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일상의 해체와 새로운 질서에의 요구로 표현할 수 있다. 전쟁이 뒤흔든 것, 그것은 거칠게 말하자면 식민주의에 의해 왜곡된 것이긴 했지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길항과 그 사이에 놓인 인물들의 내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순식간에 모든 기존질서를 철저히 파괴했고 변형시켰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봉건적인 형태로 물러서기도 했고, 때로는 급작스럽게 현대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반근대적인 생각과 탈현대적인 상상력을 뒤섞어 놓기도 했다. 그것이 어떤 것 이든 간에 전쟁의 폭력성에 모습을 드러낸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장비와 병력의 모든 면에서 북한 인민군에 뒤지고 있었다. 전쟁이 발생하자 남한에 서는 17~40세의 징집 가능한 인원에 대한 총동원이 단행되었다. 1952년에는 지난 2년 간의 전장에서 8만명의 장교와 사병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총병력은 25만에 달하였다. 한국군의 총병력은 1954년에 최고에 달했다.

곽중원, 『전쟁문학특집』, 「월간문학」, 1969. 10.

87)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사』 제2판, 일지사, 1994, p.267.

한국전쟁은 전쟁의 원인이나 전후 현실의 재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구의 상황과는 차별적 성격을 지닌다. 전쟁이 인간의 의미에 대한 반성의 매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후의 현실은 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국가 이데올로기가 더욱더 강화되어 가는 모순된 상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인식으로서의 ‘새로운 모럴’을 추구하던 작가들에게는 이 시기는 구체적인 현실의 퇴행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전쟁 체험과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강요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추구하던 작가들에게 삶은 오히려 왜곡된 채 더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의 시대 상황은 폐허가 된 토양에서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는 가운데 이념적 경직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 지적인 사고의 폭이 좁아진 것으로 요약된다 할 수 있다. 당대 사회가 혼란을 동반한 가능성보다는 혼란 그 자체로 점철되는 아노미 사회였다는 의미이다. 이른바 ‘신이 침묵하는 시대’⁸⁸⁾였던 것이다. 전후문학의 후반부터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시대라 할 수 있다. 심의 침묵만이 강조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문학을 이중적 의미를 떨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50년대는 민족적인 신성한 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밖으로부터 충격에 대응하여 안으로부터 폭발하는 역사적 추진력의 자기발견의 시대’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1953년에 3년간에 걸친 치열했던 전쟁이 기대치 않았던 방식으로 종말을 고했을 때, 이 시기 대부분의 문학적 활동은 대체로 새로운 작가의 등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작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낯선 체험을 적어낸 것이었는데, 대체로 「중군작가단」 활동의 소산인 것과 피난지에서의 창작으로 대별된다. 이것들이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차라리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쟁 시기에 전쟁의 경험을 자기화 할 수 있는 작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직 두 가지 방식만이 가능했는데, 전쟁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자기 체험이라는 협소한 영역 안으로 자신의 글쓰기는 움츠려 드느냐 하는 것이다. 후자는 적지 않은 소설적 성과를 낳았는데, 대체로 단편소설 형식에 대응한다.

88)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사』 제2판, 일지사, 1994, p.265.

전쟁체험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전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주체의 입장에서 새롭게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성과 부조리성을 우연적 사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현상이나 원인 역시도 인간의 삶의 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하고,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현재시점에서 반성적 거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곽중원은 이러한 전쟁문학을 내용상 1)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서 이념을 위해 효용성을 내세운 것, 2) 배경은 전쟁이지만 인간성은 파헤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3) 전쟁 그 자체가 주제인 것 의 세 종류로 분류한다. 1)이 대체로 전시에 썩어진 것들이라면 2)와 3)의 경계는 다소 모호한 감이 없지 않지만, 전쟁 자체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이는가에 의해서 그 경계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파괴와 살육으로 점철된 한국전쟁은 그 자체로 한계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휴전으로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종전(終戰)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상황은 연속성을 띠고 있다. 전후의 파괴를 복구하고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집중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복구의지만으로 전쟁의 상흔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생존권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수 없다. 정신사적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정신사적 문제를 문학연구 편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소이가 이것이다.

2. 6·70년대의 시대적 상황

사회 역사적으로 1960년대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지향성을 지닌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4·19는 비록 ‘미완의 혁명’이라는 말처럼 5·16 군사 정권의 발호 속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것이 당대의 현실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구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의 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전후 소설의 침체된 분단의식이 그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4·19혁명 직후였다. 전쟁 발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4·19는 전후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 내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표출된 사건이었다.

김학준은 소로킨의 『혁명론』에 의거하여 4·19를 제한적인 혁명으로 규정한다.⁸⁹⁾ 그 논거로는 소로킨의 『혁명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혁명에 충족하는 세 가지의 척도를 원용하고 있다. 그의 혁명 가능자는 첫째 피치자의 대규모 저항운동을 일으킬 경제적 동기, 곧 불의의 존재 여부, 둘째, 지식인의 기존 체제로부터의 이반(離反), 셋째, 새로운 사회적 가치 체계의 출현 등이다. 이 점에 기대면, 4·19의 혁명적 의미는 미완의 민주주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⁹⁰⁾

김학준의 지적처럼 정치사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유산(流産)으로 설명될지 모르지만, 4·19는 그러한 단선적인 계기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우선,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각성의 구체적 출발점이었다. 시민사회의 근대 기획을 위한 분수령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사건의 의의는 “현실변혁 지향의 운동을 포괄하는”⁹¹⁾ 일대 사건만이 아니기 때문이며 한국전쟁과 함께 뿌리내린 분단 현실이 더 이상 임시적인 정황만이 아님을 절감하게 한 구체적인 계기였기 때문이다. 4·19는 단순히 학생계층에 주도된 미완의 혁명이기도 했지만, 달리

89) 김학준, 「4·19혁명, 오늘의 의미」, 『신동아』, 1982. 4.

90) 김학준은 혁명의 세 가지 기본 징후가 이미 자유당 정권이 “반공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권력투쟁 또는 권력 장악의 주요한 무기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젊은 세대가 반발한 것, “중산 계층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4·19혁명이 일어났기에 그것은 불행히도 지탱되지 못하고 유산되고 말았다.(김학준, 위의 책, pp.146-150)라고 말한다.

91) 성민엽, 「4·19의 문학적 의미」, 김병익·김주연 편, 『해방 40년: 민족지성의 회고와 전망』, 문학과지성사, 1985, p.229.

보아 전후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부패로부터 ‘자기를 구제하는’ 노력이었다. 이것은 “전후과로 명명되는 50년대와 제 3세대로 구별되는 60년대 작가간의 변모”로서 “부패에 항거하는 자기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⁹²⁾는 표현이 가능하다. 분단문제가 ‘수난’이라는 반복된 소재로서가 아니라 구조화된 국가 체제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거대공룡의 파행상의 핵심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러한 과정에 속해 있다.

1950년대 전후소설에서 찾아지는 분단인식의 특징은 전쟁의 여파 때문에 분단의 전모에 대한 서사적 모색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간명하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전시체제라는 특수성 속에서 분단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여의치 않으리라는 점이 일단 고려될 만하다. 요컨대, 전쟁의 엄혹한 비극과 부조리 그 자체로 여겨진 실존주의적 인식이 분단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과정을 사장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4·19는 전시체제와 전후 복구경제 속에 배태된 ‘전후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문화사적 전환점이다. 50년대 전후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부패와 대결하는 사회적 역량의 축적이 그 증거이다. 축적된 힘은 분출하여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다. 그와 함께 분단과 관련한 제반 정치적 금기는 ‘공백상태’에 빠진다. 이 금기의 공백이야말로 분단인식에 있어서 전환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계기였다.

소설사에서 1960년대 초반이라는 시기는 분단문제와 연관지어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의미 하나를 꼽아보면, 이 시기가 소설사에서 현재까지도 유효한 분단인식의 패러다임 하나를 배태시킨 때였다는 사실이다. 민족사에 가해진 비극적인 역사적 체험으로서 분단문제는 50년대의 수난의식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그 모색의 통로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 같은 전환은 필연적으로 전쟁의 피해와 전쟁이 가져온 비극과의 거리두기에 의해서 가능했다. 여기에는 전쟁의 본질 해명과 같은, 50년대 전후소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성찰이 비로소 전개됨으로써 분단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결국, 전쟁의 본질 해명은 분단 문제와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관계였다. 이 두 가지의 과제가 거의 동시적으로 전개된 것이 소설사에서 1960년대 초반이 차지하는 의의인 것이다. 거듭 말하면, 이 문제는 전쟁과 전쟁의 여파가 비극으로만

92) 김병익, 「60년대 문학의 가능성」, 김병익 외,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pp.260-261.

끝나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근본적인 의문은 개인과 사회적 삶의 과탄이 ‘누구에 의해서’ 라는 것이었다. 이 의문은 차츰 ‘무엇 때문에’ 라는 심급으로 옮겨간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분단이라는 개념항 안으로, 그리고 전쟁의 비극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방식들로 속속 정돈되어갔던 것이다.

1970년대는 우리 역사에서 진보와 발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거론된 시대이다. 사회적으로 전쟁의 상처가 많이 아물고,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으로의 진입과 산업화의 가속력이 있었다. 삶의 여건도 많이 변화하여, 농촌 사회가 해체되고 농민들이 산업 노동자로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말미암아 도시 빈민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문학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 소설에 전례 없던 풍성한 자료를 제공했다.

60년대가 관념적 인식과 상징에 의존했다면, 70년대는 현실적 삶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1960년부터 70년대는 소위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이다. 국가적 차원의 담론 소위 ‘잘살아 보세’ 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발전에의 욕망을 전면화했고, 이런 지배이념으로 자발적인 동원을 통해 개발독재 시대의 국민 의식이 형성되었다. 요컨대, 개발독재 시대의 국민은, 발전 이데올로기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피지배 민중이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원 대상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⁹³⁾ ‘잘살아 보세’ 라는 국가적 차원의 담론은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대중적 감정을 자극하고 견인하면서 국가가 온 국민의 에너지를 경제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반공이데올로기는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 이외에 다른 가치에 대한 탐색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함으로써 금기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근거한 체제 경쟁의 이데올로기로 호환됨으로써 이에 일조했다.

이런 지배이념의 내면화를 통해 국민 주체로 형성되는 내적 논리를 6·70년대 성장소설, 혹은 성장 모티브를 보이는 일련의 소설을 대상으로 발전이데올로기와 국민주체화의 내적 논리가 깔려 있기에 그 근거로 작품 분석으로 논의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소설의 성숙, 성장, 어른 됨의 논리가 사실은 당대 지배이데올로기인 발전, 개발, 국민됨의 논리구조를 닮고 내면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93) 임영일, 「한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녹두, 1991, p.75.

기존의 분단 소설의 범주 설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분단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표현, 그리고 분단 상황의 극복을 향한 작가의 입장과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즉 분단은 작가가 재현해야 하는 ‘객관적 대상’으로, 작가는 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초월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주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란 인식의 ‘주체(작가)’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객체)’가 아닌, 주체를 구조화하고 추동하는 기반이자 주체의 의식과 무의식을 규율하는 근본적 토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 역시 분단을 객관적으로 인식 판단하는 초월적 주체라기보다는 분단이라는 물적 기반과 그것을 이데올로기화하는 집단 메커니즘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규율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분단은 선형적인 주체가 객관화할 수 있는 대상이나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기반해서 주체의 의식과 무의식이 규율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부정하면서 은밀하게 내면화함으로써 주체를 형성하는 합리화와 정당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소설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배경인 분단 문제를, 작가가 객관화하는 객관적 소여가 아닌 집단적 시대적 이데올로기 형성의 근본적 기반으로 보고, 이런 기반 위에서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소설의 서사와 당대 지배이념과 구조적 상동을 논하고자 한다.

3. 성장의 계기로서의 전쟁 체험

어린 존재에게 가해진 비극의 운명성이란 혹독한 폭력 앞에서 어떤 설명도 부가할 수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어린 존재가 겪는 체험의 국면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 분단이야기는 기억 속의 어린 존재가 처했던 자기체험의 설명 불가능함에 맞섬으로써 기억 속에 편재한 비극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는 존재론적 사회문화적 탐구인 것이다. 판단능력이 완비되지 못한 어린 존재들의 수동적인 존재방식 때문에 성장기의 비극은 더욱 고조된다. 비극의 상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소용돌이친 온갖 슬픔들과는 달리 언제나 떠도는 소문이나 가족들이 겪는 고초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과 가족의 고초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이들 어린 존재들의 처지다.

이들의 근본적인 상처는 아버지의 근엄한 제도와 규율, 어머니의 자애로운 보살핌 속에 안락한 문명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데서 온다. 그들에게는 성장이 문명화와 성숙화에 이르는 제반과정이 아니라 세계의 위악함을 겪으며 더럽혀진 추문의 사회적 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고초,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가족들의 죽음을 수락해야 하는 고행의 모습을 띤다. 이 상처는 장성한 뒤에도 치유 불가능한 불안과 공포에 접질리는 기억으로 출몰하며 안정된 일상에서는 은폐되고 외면하는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처는 비극의 해명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 여기에서 서술주체, 곧 비극의 틈바구니에서 성장의 고행을 겪어야 했던 자기 본래의 신원을 찾고 역사적 비극의 실체와 대면하며 분단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설적 자아가 탄생한다.

이 소설적 자아는, 어린 존재들이 체험한 결론내릴 수 없고 판단 불가능한 사건의 파편들의 기억이 가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숙명적 의무감이 만들어낸 글쓰기의 근원이자 주체이다. 왜 20대 이상의 성년 시기에 겪은 전쟁과 차이가 나는가의 문제는 판단과 인상의 차이에서 그 단서를 구할 수 있다. 판단이란 체험의 축적을 통해서 내려지는 일종의 문화적인 사유의 도식이다. 거기에는 물적 토대, 해석학적 위치, 가치관의 편향성, 취향, 관심 정도에 따라 형성된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판단의 기준이 있다. 경험은 체험의 유사한 것들을 분류하는 한편 이를 축적함으로써 반복적인 인상에서 도출한 개념화를 거쳐

판단의 도식을 마련하는 한편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도식화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내리는 반응이라 말할 수 있다. 판단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화적 구성물에 의한 개념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체험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반면 체험은 가공되지 않는 어떤 인상에 가깝다. 어린 존재들의 체험은 도식화와 개념적 구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파편적인 인상으로 남을 뿐이다. 이 인상은 체험의 명징함에 비해 사건 전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불투명함을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존재들에게 각인된 체험의 인상은 의식적인 것이어서 근원적인 체험으로 자리 잡는다. 그것은 사건 전모에 대한 해석의 욕망을 낳는 글쓰기의 기원이 된다. 상상력이 기억의 저장고에 마련된 근원적 체험들로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장기의 존재들이 치른 상처의 지속되는 일면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이러한 유소년기의 체험이나 성장기의 내상이 그의 삶을 결정짓는 근원성을 갖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체험한 성장기는 경험이 아닌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결국, 유소년화자에 의한 분단이야기는 유소년 시절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접했던 작가들에게는 그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원체험에 대한 해명을 통한 자기구원의 글쓰기라는 외양을 갖는다. 자신의 삶에서 이 의문투성이의 체험이 가진 진상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세계에 대한 의문,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영원히 풀릴 길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이야기는 40년대 전후에 태어난 작가들에게는 숙명에 가까운 해명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기의 기억 속에 얼룩진 살육과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비극의 근원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다.

회상을 거쳐 비극의 내막과 그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인식의 도정은 상처의 환부를 똑바로 응시하는 일이면서, 주체의 자기정립을 거쳐 아버지가 속했던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고 좀 더 관용하는 일이다. 달리 보아 성장기와 관련된 분단이야기의 성립은 전쟁의 외상으로부터 벗어나 분단 문제에 대한 탈이념적인 인식 혹은 소설적 자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주체는 자신의 성장기에 가해진 폭력과 상처를 제시하는 한편, 그 광포한 현실에 감염되어 위악

함을 모방하며 성장했던 내력을 분단의 현실, 전쟁의 비인간적인 폭력성과 연계시키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양산해 나간다.

굶주림은 생리적 차원에서 본능이다. 성장 소설들은 자기보존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원초적 욕망으로 설정한다. 이런 ‘전쟁과 굶주림의 결합 쌍’은 그간의 분단소설 연구에서 너무 자명하고 자연스러워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고아소년 혹은 아버지를 잃은 편모슬하의 소년의 존재조건으로서의 굶주림은 지극히 ‘사실적’ 조건으로 보일 수 있다. 좌익인 아버지-나중에는 불성실하고 게으른, 그래서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어린 소년인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설정, 즉, ‘전쟁’ 혹은 ‘분단’, ‘유기당한 아이’, ‘이념에 휩쓸린 아버지’ 라는 세 가지 변수가 여기에 얽혀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엮는 집요하고 일관된 파토스가 굶주림인 것이다. 성장의 서사는 굶주리는 아이의 눈이라는 원초적 자기보존의 파토스가 전쟁과 아버지를 관촬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아이화자의 입장에서, 이들은 유기당했고, 굶주림에 처해있다. 이 굶주림은 어른, 아버지, 그리고 이들이 벌인 알 수 없는 전쟁 탓이다. 이들은 아이이기에 이 상황에 책임이 없고, 무엇을 원하지도, 알고 싶지도, 꿈을 갖지도 않는다. 소설의 배경은 해방직후의 좌우익 분단 상황과 그로인한 비극이 벌어지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한중간이다. 주인공 소년에게는 물론 가족 전체에 가공할 폭력이 벌어진 시기이지만, 그 폭력, 전쟁의 원인에 대한 앎을 아이의 시선을 빌어서 계속 거부할 뿐이다. 그들이 가진 아이라는 지위는 좌우익을 판단해야하는 상황에서 ‘나는 모른다.’를 방패막이로 사용되거나, 무능한, 혹은 역할을 방기한 아버지에게 유기당하는 억울함, 부당함을 가증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생존, 자기보존의 가치로 렌즈화 된 전쟁은 좌우익의 대립이 아니라, 먹고 사느냐와 굶어 죽느냐로 이분화 된다. ‘전쟁과 굶주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실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법한 이 자명해 보이는 연동관계는, 그다지 경험적이지도 자명하지도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험적 자명성과 더 가까웠을 1950년대에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도 이런 선명함은 두드러지지 않았었고, 최일남의 「쑥 이야기」나 이범선의 소설처럼 전쟁기의 빈궁을 뽐진하게 그린 소설에서도 그 가난이 전쟁이나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이와 같은 ‘거부’나, ‘기피증’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상원이나 서기원 등의 소설과 같은 1950년대 소설에서도 오히려 청년이나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질서에 대한 복원의지를 그리는 관념적 경향의 소설이 더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직전의 60년대 초반의 작가들, 즉 최인훈의 「광장」, 「회색인」, 「서유기」 및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등의 소설에서 전쟁을 다루는 방식 역시 “밀실과 전쟁”이라는 비유처럼 이념적 근원을 통한 성찰이나 ‘환부 없는 아픔’처럼 추상적이거나 전체적인 사유와 이성의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을 그리는 이와 같은 구도, 즉 ‘전쟁과 굶주림의 결합의 짙을 통한 자기보존 욕망의 극대화’, ‘아이의 시선을 통한 전쟁과 분단에 대한 인식적 앎의 거부’, 이것을 마치 경험적 직접성인 것처럼 성정하는 사유방식은 6·70년대 성장 서사에서 독특하게 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 구도는 당대의 지배 이념이 되었다. 전쟁에 이념적으로 참가한 지식인 아버지를 ‘모른다’와 ‘알 수 없는 미친 짓’으로 의미화한 준거는 ‘그 짓이 쌀 한 톨 나지 않는 짓’, 즉 가족의 생존에 기여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좌익 지식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등가화 된다. 이 후 성장소설 변모 속에서 아버지의 이런 지위는 등가화 되는 계보를 잘 보여준다. 이 아버지들은 객관적으로는 좌익 이념에 주체적으로 참가한 지식인에서부터, 이념도 모르고 휩쓸린 백정(『노을』(1978)), 그리고 이런 이념과는 상관없는 전쟁직후의 장물아버지(이동하 「장난감 도시」(1979)), 그리고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가족을 거리에 내얹게 만든 아버지(윤홍길, 「집」(1972))들로 지속 변주된다. 시대가 지날수록 아버지가 가졌던 이념적 위상의 퇴각과 가족의 생존이라는 가치의 우세화 과정, 이 공통성이 성장소설의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아버지들은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이나 그들 자신의 성격에 의해 등락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했는가 아닌가로 판가름된다.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이를 굶겼다는 점에서 좌익 지식인과 소백정이 등가화 되고, 이들과 자유당 시기 허랑한 정치꾼(윤홍길의 「집」)이 등가화 되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공포의 극한 상황, 굶주리는 아이, 아이를 유기한 아버지라는 셋이 맞물리면서, 전쟁의 원인이나, 전쟁이 갖는 이념적, 정치적 차원은 함구된다. 아이의 생존, 아이와 가족의 자기보호만이 가치화 되면서 그것과 대타적으로 설정된 정치적, 이념적 영역은 점점 가치절하 되고 배제된다. 좌익 지식인과 백정과 도둑을 동일한 가치로 만들어내는 구조, 이것이 소년화자의 성장소설의 서사적 공통 경향이다. 이 공통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개인적 생존, 경제적 자기보존을 전면화하고, 그에 대립하는 공적, 정치적 차원

을 넘어 범죄 화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성장 이데올로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당대 국민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 점에서 좌우익의 판단 앞에서 아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반공을 설파하는 논리와 구조적으로 닮아있다.

이 부류의 소설에서 핵심적인 아이의 시선은 기존의 분단 소설적 관점에서 양면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아이의 시선이기에 분단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미흡한 한계를 보인다는 것, 또 역으로 아이의 시선을 빌었기에 반공주의의 사회에서 분단의 문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러시아 형식주의자의 말을 빌리자면 “낮설게 하기”인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시선이 내포하는 의미망은 이런 표현과 검열, 인식과 반영의 층위를 훨씬 넘어선 지점에 있다. 이는 특히 아버지의 복원 관점과 연관될 때, 더 두드러진다.

Ⅲ. 전후 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형상화 양상

1. 감각적 세계 인식과 아버지 되기의 실현 : 김원일

1) 감각으로 기억된 유소년의 모습

김원일은 30여 년에 걸쳐 방대한 작품을 꾸준하게 발표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 세계는 장대한 장편과 술한 단편들로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어두움’으로 요약되는 현실의 모순과 실존적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소설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 직후에서 6·25 전쟁 시기를 거치는 일련의 역사적 정황을 그려낸 소설이다. 그의 소설적 본령은 후자에 있다고 보아야 옳겠는데, 대개 장편 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소설을 묶어 ‘분단체험 소설’이라고 거칠게 규정할 수 있겠다.

분단체험 소설의 유형은, 어린 화자의 시선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소설의 형식과 맞물려 있다. 그의 분단 이야기는 ‘왜 싸워야만 했으며 수많은 아버지들은 죽어야 했고 어머니와 자신은 고통 받아야 했는가?’라는 역사적 의문에 대한 글쓰기의 모범이었다. 그 행로는 치유 불가능한 외상의 가족적 차원과, 사회 공동체적 비극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성장소설의 한국적 범례이기 때문이다.⁹⁴⁾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규약이나 이념, 부르주아의 이상적인 인간이념을 제시했던 유럽 성장소설과 달리 그의 분단이야기는 설명 불가능한 성장기의 기억에 담긴 거대한 사회악과 시대에 편만(遍滿)했던 광기를 탐문하는 한편 일상적 삶에서 지속되는 분단비극의 자취를 재현해 낸다. 이렇게 재현되는 이야기는 파행적 근대의 미시적인 국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한편 재현된 이야기는 국가권력의 이념적 허위나 폭력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역사적 현안과 응전해온 우리 소설의 역동성으로서 부정적인 분단 멘탈리티를 타파함으로써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문화적 실천의 단면이기도 했다. 여기

94) 김원일의 소설을 ‘성장 모티프로 읽는 관점은 최근 권오룡의 글 「역사의 이성을 찾아서」, 『어둠의 혼』, 김원일 중단편전집 1권, 문이당, 1997, p.331에서도 발견된다.

에는 사회현실의 폭넓은 이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현실 개조와 개인의 자기정립, 더 나아가 사회의 이상적 진보를 표방하는 내적 지향이 담겨있다. 김원일의 소설에서 분단의 실상은 성장기의 체험에서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해한 가족의 비극, 제한된 경험이 가진 재난의 불투명성에 대한 해명 대상으로 나타난다.

해방 이후 그 어느 날부터 좌우로 분립하여 싸우고 군대를 동원하여 동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며 살상을 자행했던 현실의 불가사의한 정황들은 성장기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장성한 뒤 소설 쓰기의 기원(起源) 하나를 형성한다. 이때 작가의 상상력은 폭력적인 세계와 그 너머로 존재하는, 죽음도 불사한 견고한 신념과 행동이 가진 의미를 판독하기 위해 사회역사적인 시선을 구비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이념적 대립은 아버지의 부재로 이어지고 아버지의 부재가 어머니의 훈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단한 어머니의 삶, 그 틈바구니에서 성장해온 작가에게 분단에 관한 글쓰기는 자신의 존재 증명과 관련된 윤리적 부채이자 필생의 과업이 된다.

김원일은 가족사적 경험의 차원 특히-아버지의 오랜 부재가 초래한 제반 경험과 생생한 감각의 재현한다. 감각은 몸의 체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직접적이면서도 생생한 흔적을 남긴다. 곧 어느 때라도 과거의 감각 그대로 환기되는 듯한 착각을 유발하는 것이다. 김원일의 소설에서 감각은 색깔, 배고픔, 어머니의 훈육 등으로 변주된다.

감각으로 나타나는 분단 이야기는 첫째 비극의 징조는 색깔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색은 짙은 보라빛이다. ‘분단의 가족사적 비극’이라는 문제를 역사적 맥락 안에 재배치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글쓰기는 아버지 찾기와 함께 남북한 사회를 억압해온 문제적 현실로서의 분단과 직접적 대면하고 있다. 평판 작 「어둠의 혼」(1973)은 ‘분단 비극의 가족사적 경험’을 담고 있는 기억의 원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여기에는 기억 속에 담긴 성장기의 ‘어둠’과 대면하는 근원적인 모습 하나가 나타난다.

대추나무 뒤편 하늘은 벌써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물도, 닭 벼슬 같은 맨드라미꽃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다 싫다. 어머니의 젖꼭지 빛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떠올리게 해주고 어머니의 핏명 든 얼굴을 생각나게 한다. 보라색은 또 말라붙은 피와 같고 캄캄해질 징

조를 보이는 빛깔이다. 열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그래서 야금야금 어둠이 모든 것을 잡아먹다가 끝내 깜깜한 밤이 온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다. 이 세상에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곳에서 살고 싶다. 나는 빛 속에 함께 끼어 놀고 싶고, 또 빛 속에서 자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⁹⁵⁾

비극의 모든 징조는 보라색으로 상징된다. 화자는 저녁 하늘의 짙은 보라색을 보며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피멍 든 얼굴을 떠올린다. 보라색은 가족의 모든 불행을 상징하며 고난스러운 시대의 표정을 담고 있다. 보라색이 물러나며 내려앉는 어둠의 세계는 참람한 처지와 결부된 시대 현실을 환유한다. 땅거미가 빛의 세계를 침범해오는 저녁의 시간은 어린 화자에게 그 비극의 무게를 증폭시킨다. ‘어둠’은 궁상에 내던져진 어린 존재의 절박한 상황과 세계가 가진 폭력성, 어른들의 세계가 가진 키워드이다.

마치 문신처럼, 한번 새겨지면 지울 수 없는 기억 속의 어둠은 어린 화자에게 굶주림 속에서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는 아버지의 요술”⁹⁶⁾, 좌익 남편을 둔 죄로 국가권력에게 흑독한 시련을 겪는 어머니의 비극을 깨닫게 해준다. 아버지를 밀고하라는 감시원들의 유혹을 견디는 한편 그 사실을 발설하는 일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모진 고문을 불러들인다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어린 존재에게 가하는 폭력과 동심을 짓밟는 사회현실의 국면은 어둠의 진의가 세계의 폭력성이자 아버지의 삶에 감추어진 수수께끼와 같은 슬픔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쉬지 않고 흐르는 강처럼 너도 쉬지 않고 자라 거라. 다음에 크면 어떤 길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평등을 가져다주는 길인지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⁹⁷⁾ 따라서, 성장한 화자가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으로부터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어둠 속의 수수께끼들이다. 그 이해가 깊어지고 확대되면서 분단과 전쟁의 수많은 곡절과 상흔을 감싸는 인간 성장을 이루는 이야기가 풀려나오는 것이다. 어둠에 속한 세목들은 ‘통비분자’, ‘빨갱이’, ‘좌익 가족’ 이기 때문에 겪는 개인적 수난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95) 김원일, 『어둠의 혼』, 김원일 중단편전집 1권, 문이당, 1997, p.218.

96) 김원일, 위의 책, p.215.

97) 김원일, 위의 책, p.236.

이 세목들은 간추려 보면 전쟁을 전후로 하여 형성된 분단 현실의 족쇄가 얼마나 일상과 의식에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감각은 배고픔의 문제로 재현되기도 한다. 현상적으로 아이들은 전쟁 혹은 분단 상황에서 지독한 굶주림에 처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병캐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와 같은 짓을 했던 청년들이 이미 일곱 명이나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죽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아버지는 한 줌의 연기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게다. 그 사라진 연기를 다시 모을 수 없는 것 같이 이제 우리 오누이들은 아버지고 불러 볼 사람이 없게 된다. 그것이 슬플 뿐, 다른 생각은 안 난다. - 중략 -

사실 나는 지금 보다 더 큰 괴로움에 떨고 있다. 굶주림이다. 배가 고프다. 지독히 고프다.

-김원일 「어둠의 魂」에서-

이 시기의 성장 소설에 보이는 굶주림은 가히 특수한 상황이다. 「어둠의 魂」(1973)의 어린 화자는 빨갱이 아버지가 즉결처분 당할 거라는 소문에 접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게 된다. 그 점이 슬플 뿐, 다른 생각은 나지 않는다.” 또 “경찰을 패해 쫓겨나 사라지는 아버지의 요술을 미처 깨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게 슬플 뿐, 나는 당장 해결해야 할 절박한 괴로움에 떠난다. 배가 지독히 고프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배고픔의 상황을 주인공이 직면한 절대적 상황으로 작용한다. ‘나’는 아버지의 임종과 배고픔이라는 두 상황 앞에서 절박한 것은 배고픔이라 분명히 선언한다. 당대의 현실적 서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성장의 시기에 문제 될 다양한 문제들이 사장되고,⁹⁸⁾ ‘성장’은 오로지 ‘굶주림 해결’로만 집중되었고, 이것이 전쟁 및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이 시기 분단 소재 성장 모티브 소설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⁹⁹⁾

공적 개념을 배제하고 경제적 근대화에 기초한 개인적 자기보존을 전면화한다고 해서 이 소설들이 ‘개인’을 막 바로 전면화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생존, 자기보존이 전면화 되어 가치로 성립되지만, 문제는 이 생존의 주체, 생존의 단위가 누구

98) 이 시기의 성장소설에는 성장모티브에서 자주 발견되는 성적 눈뜸조차 없다. 성과 관련된 성장의 설정은 80년대와 90년대에 나타난다.

99) 굶주림은 장편 「노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이는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나아가 최근의 김소진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아버지의 직무유기와 아이가 겪는 굶주림은 상당히 일관된 테마이다.

인가인 것이다. 그들은 누차 언급되었듯, 외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폭력에 대해 ‘모른다’ 로만 대응하고, 오로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어른들에 의해 유기된 아이들인 것이다. 즉 이들은 근대적 주체라기보다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가 보호하는가? 앞서 살폈듯이 전쟁의 원인인 사회적 공적 이념과 정치적 차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모르는 것으로 가치화한 상위의 가치는 어린 소년을 포함한 어머니와 가족의 생존이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체는 전쟁에 처한 국가도, 추상적 의미에서의 사회도 아니고, 더구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갈가리 찢긴 마을 공동체도 아닌 바로 가족이다. ‘집’, ‘우리집’ 으로 명명되는 가족은 생존의 주체이자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를 대신하는 제일의 공동체다.

윤홍길의 「집」, 김원일의 「노을」,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등 이들 소설 속에서의 집, 가족은 고향이라는 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그 도시에서 배를 굶아가며 공부하는 장남과 그 장남을 위해 생존을 위한 최극단의 아귀다툼까지를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로 이루어진 편모가정이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장남과 편모 중심의 도시에서 핵가족, 이런 모습은 비단 성장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면서 한국적 모더니티의 가장 일반적 조건 중 하나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감각은 몸에 습득된 훈육체험으로 기억된다. 1950년대 전후사회의 폐단과 함께 고단한 성장 체험을 탁월하게 그려낸 『마당 깊은 집』에는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 샅바느질로 호구지책을 삼는 모친이 어린 화자를 엄하게 훈육하는 부분이다. 어느 날, 주인집 파티를 구경하고 돌아온 화자에게 모친은 “당장 나가거라.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나가. 굶어 췌지든 얼어 죽든 집을 나가! 나가기 싫거든 솥 포대 다섯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¹⁰⁰⁾ 하며 심하게 꾸중한다. 꾸중을 견디지 못한 화자는 가출하여 대합실 나무 의자에서 모친이 자신의 손을 눌러 재봉틀 바늘 앞에 놓고 가지런히 바느질을 하는 꿈을 꾸다. “니도 이렇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까다. 에미가 밤잠 못 자서 제 정신이 아니라 내 손톱에다 바늘은 박았듯, 니도 세 끼 밥 묵고 살기가 힘든 줄을 이렇게 당해봐야 알 까다.”¹⁰¹⁾ 라는 꿈속의 처벌은 아버지 대신 엄하게 훈육하는 모친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100) 김원일, 위의 책, p.150.

101) 김원일, 위의 책, p.150.

신문 배달로 지친 몸을 이끌며 귀가하는 화자를 냉연하게 대하는 모친의 태도는 화자에게 ‘과연 우리 어머니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이다. 그 냉연함은 좌익가족이 겪는 설움, 가장 없는 가족에게 요구되는 억척스러움의 다른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마당 깊은 집』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장자의식을 세례 받는 어린 시절의 객관화가 도달한 드문 성취이다. 여기에는 대구 장관동 시절의 혹독한 훈육과정만 이 아니라 전시체제하 상류층의 부패상, 월남민들의 절망, 그 뒤로 반공 이데올로기의 엄혹함이 수시로 고개를 내미는 전후사회의 병폐가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비극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는 분단이야기는 해방 이후 국가권력이 자행한 비극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은폐된 학살의 역사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겨울 골짜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의 폭압과 침묵을 강요한 금기에 대한 도전이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을 소재로 삼아 자행된 국가 폭력의 야만성을 폭로한 이 작품은, 빨치산 활동과 대단히 조직적인 국가폭력, 거기에 얽힌 가족들의 희생을 재현하고 있다. 국군의 지리산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일어난 거창 학살사건의 전모는 전국 각지에 자행된 조직적인 학살의 일부였음이 최근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소재의 역사화는 좌우이념 대립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권력의 일상화된 야만성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둠의 혼』에서 『마당 깊은 집』에 이르는 분단이야기는 단순히 성장기에 드리워져 있던 기억 속의 어둠과 개인에게 가해진 트라우마의 재부피를 보여주는 데 바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서사는 예민한 감수성을 소유한 어린 화자가 점차 자라나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체감하면서 세계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한편, 낮은 사회적 층위들과 대면하는 과정이다.

2) 아버지 되기를 통한 억압적 과거의 극복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승인 즉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린 성장기의 이해 불가능함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전쟁이 성장과정으로 극복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가족 간의 혈육의 갈등 특히 이념으로 인한 아버지와의

갈등 역시 성장과 함께 아버지를 이해하며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아버지 되기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보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전쟁의 상흔은 화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세계에 대한 낯설음의 감정을 유발한다. 세계질서의 요체인 합리성과 절대적 진리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은 자아와 세계와의 거리감과 허무의식을 조장한다. 그리하여 존재와 존재주변에 대한 부조리 의식이 잉태되며 극한 상황과 대면하여 일체의 삶을 성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실존주의의 철학은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문학은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영향으로 김원일의 초기 소설에도 실존주의적 요소가 발견된다.

상처의 세계, 과거의 탐색을 거쳐 마련하는 역사적 지평의 발견은 김원일의 「노을」¹⁰²⁾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품은 고향을 등진 지 스물아홉 해 만에 출판사 편집부장으로 자수성가한 주인공이 삼촌의 부음을 받고 귀향했다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다. 그의 귀향은 이미 주위의 모든 혈육이 탈향을 했는데 때 아닌 혈육, 즉 잊고 싶은 과거가 되살아남으로써 마지막 남은 혈육의 죽음에 대한 참례의 길이면서도 “왜 사람들은 끝내 병들어 죽고 마는 자기 장래를 잊은 채 서로 헐뜯고 피 흘리며 싸우는가”라는, 어린 시절 품었던 의문을 인식하는 행로이다.

「어둠의 혼」에서 보였던 아버지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과 그 후의 삶의 방황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현재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오가며 얻어내는 근원적인 체함에 대한 해명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작품의 문제의식이다. 서술 주체에게 세계는 이해될 수 없는 “수수께끼” 자체이다. 세계인식의 불투명성은 상당 부분 어린 존재의 인식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삶과 절박한 이념 선택에 관한 내막에 대해서 유소년 화자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수수께끼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과편적인 인상’에 머문다. 수난과 비극은 그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주관적 차원에서 벗어나는 면모가 「노을」에서 발견되는 분단 이야기로서 가진 요소이다. 이것은 ‘유소년의 시선’에 대립된 ‘성년의 시선’이다. ‘성년의 시

102) 김원일, 「노을」, 『노을』, 문학과지성사, 1978(재판 1991).

선'은 어른/아이, 폭력/순수, 세계의 타락/유소년 존재의 수난 등 이항 대립적 도식을 넘나들며 분단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한편, “공포가 무엇인지 일찍 가르쳐 준 고향”을 통해 역사적 지평으로 확대되는 각성을 담고 있다. 소년 시절의 ‘서술자 시점’으로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과 ‘현재의 나’를 교차시킨 서술의 구조화 역시 이러한 각성의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아버지의 시대와 나의 회상을 겹쳐 놓는 방식은 분단의 비극을 번갈아 살필 수 있게 하는 작품의 의도이기도 하다. 장성한 자의 회상 속에서 작품은 해방 직후 경남 진영 땅을 중심으로 벌어진 좌우익의 갈등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자행된 살육의 역사를 환기해낸다.

화자는 좌익분자였던 아버지와 그 시대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어느덧 중산층의 삶에 진입하지만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취조를 받으면서 분단의 현실 속에 놓인 한 개인임을 절감하게 된다. 화자의 뒤늦은 깨달음은 분단의 비극적인 현실을 가늠하는 하나의 계기이며 자각의 첫 탄성이다. 그는 분단과 무관하게 살고자 했으나 얼마나 개인적이고 몰역사적이었던가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얻는다.

김원일의 소설 「어둠의 魂」에서 저주의 대상으로 지워 버렸던 아버지는 장편 「노을」에서 복원된다. 이 복원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분단극복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이 기존의 저변화된 평가이다. 「어둠의 魂」에서 아버지에 관한 서사의 대부분은 ‘모른다’였다면 이후의 소설에서는 모른다는 문제, 왜의 문제에 대한 탐구가 소설의 한 축을 이루고, 이것은 저주하고 지워버린 아버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즉 ‘모른다’를 어떤 ‘앎’으로 대체하고 그림으로써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원의 방식과 관류하는 이데올로기가 복원하는 주체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의 성장 우선주의가 반공과 결합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성장 이외의 가치를 공산주의와 등가로 설정하고 배제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북한 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정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고 아울러 한국(남한)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한 적대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부정적 반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성적 토론을 완전히 ‘압도하는 감

각' 이다.¹⁰³⁾ 이 점에서 본다면, 전후 남한 사회를 지배해온 것이 반공 이데올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시기적으로 각기 다른 방식과 하위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70년대 성장소설 속에 관류하는, 나아가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 일변도로 추동된 근대화 지상주의 속에 관류하는 반공이란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한다는 직접적인 선언이나 정치적 억압의 차원이 아닌, 고도 경제성장의 우월감 하에 경제외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함구와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이념과 결합되어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억압의 차원이 아닌 지배세력의 헤게모니에 기초한 '동의'와 이를 통한 자발적 동원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박정권에 의해 추진된 경제성장 정책은 '반공의 경제적 기반 강화', 즉 안보국가의 토대 구축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국가안보-경제성장-시장경제질서는 짝을 이루어 사회적 정당성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이는 1987년경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자아의 위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김원일 소설에서는 아버지 되기의 계기를 교육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노을』에서, 좌우익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고향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들 가족은, 도시로 이주하고 어머니와 아들은 점원이나 하급노동에 종사하면서 고향으로 학교를 마치고 670년대 간신히 “내 집”을 마련하고 도시에 정착한 이들이다. 이처럼 고향을 등진 가난한 편모가정을 이끌어간 감각 혹은 이념이란 다음과 같은 정서로 대변된다.

“오냐 내가 이 두 자식을 걸걸이 키워서 옛말하고 살 때, 내 팔세한 이노무 세상, 어데두고 보자.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 나올 것도 없는 쪼그라진 가슴팍에다 피로써 십자가를 그렸다.”…… 나에게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우리 형제를 앉혀놓고 이 말을 하시며 눈이 붓도록 우셨다.¹⁰⁴⁾

자식 잘 키워서 옛말 하고 살겠다는, 자기를 팔세한 이 세상에 복수하겠다는 이 원색적 욕망은 세상으로 대변되는 모든 공적 영역에 대한 철저한 외면을 기초로 개체화된 가족만의 자기보존 욕망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원리임을 말해준다. 사적 자기보존으로서의 생존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보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가

103) 권혁범, 「반공주의의 회로관 읽기」,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pp.141-142.

104) 김원일, 「미망」, 전집 4권, p.132.

족단위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전쟁 이후 한국의 성장소설에서 편모가장 모티브는 그 하위에 도시화, 교육열,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에의 욕망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근대성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즉 아이가 아버지를 가치절하하고 지우는 과정은 외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라는 보편적 근대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아들이 가족 편에 섭으로써 명분화 될 수 있게 되는 한국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김원일 소설에서 아버지 되기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다. 「미망」은 아버지의 오랜 부채를 둘러싼, 고부간의 착잡하고도 죽음을 통해서만 해소될 애증을 다룬 작품으로 일상에 깊게 드리운 비극의 그림자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분단 비극의 일상적 면모는 이념이나 헤게모니의 정당성 같은 거대서사를 버리고 예속적 삶에 대한 친착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분단의 깊게 패인 감정적 골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다. 고부간의 오랜 반목에는 삼십 년 넘도록 소식 없는 외동아들에 대한 간절함(조모), 남편의 따스함을 누려보지 못한 시집살이와 모진 세파를 헤쳐 나온 억척스러움(모친)이 부딪친 오해가 누적되고 그 안쪽에 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다. 서술자인 아들에게 마땅한 해결 방도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갈등과 반목을 바라보는 착잡한 감정만 있을 뿐이다. 하루도 다툼 없이 잠들지 못하는 고부간의 오랜 갈등은 분단이 분비한 일상화된 비극의 풍경 하나이다. 분단 비극의 일상적 현존을 포착한 작품의 성취는 조모와 화해하기 위해 간 칼치를 사들고 귀가한 모친이 조모의 죽음을 접하면서 드러낸 망연자실한 표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화해의 기회 상실에 대한 참으로 숙연한 메시지이다. 삼십 년 동안이나 고부를 붙들어 둔 반목을 씻어내려는 어머니의 화해를 위한 몸짓이 때를 놓치면 그 노력조차 공허해지고 만다는 뼈아픈 각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재현이 비록 분단의 여러 층위들을 단순화시켜 가족주의로만 국한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해서 그 설득력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망」의 계보학은 침묵 속에서 외아들을 고대하는 조모의 모성애나 모친의 팔자소관으로 여기는 남편을 향한 증오가 부딪치면서 일으키는 감정의 깊은 골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라는, 일상심리에서 분출되는 균열을 통해서 현존하는 분단 비극의 단면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요컨대 그것은 거대한 이념의 세계에 투신한 아들과 지아비, 아버지의 역사가 만들어낸 일상의 묵은 통증이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작품 표제인 ‘미망’의 뜻은 ‘남편(또는 아들)의 죽음과 홀로 살아남

음’ 이면서 ‘도저히 잊지 못함’ 이고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상태’ 를 모두 포괄한다. 「미망」의 화자가 바라보는 착잡한 시선에는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김원일 소설에서 어린 화자는 장성한 화자로 변주되면서도 되풀이하여 자기라는 존재의 신원 확인과 아버지 찾기를 소망한다. 이 같은 소망은 「연」, 「도요새에 관한 명상」, 『바람과 강』에서는 어느 곳에도 깃들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낭만적인 이해로 나타난다. 특히 『바람과 강』에서 “그저 내 마음 바람 따라 내 발길 닿는 데로 부평초 같이 살아왔다”¹⁰⁵⁾는 ‘이인태’ 씨의 회고처럼, 괴로움과 슬픔을 한데 용해시키는 달관한 자의 모습처럼 아버지는 이상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낭만적인 이해 건너편에는 평등세계를 앞당기려는 직업 혁명가이자 역시 불가사의한 아버지가 상정된다. 아버지 찾기의 행보는 김원일 소설에서 아버지를 향한 낭만적 이해와 역사적 이해라는 두 개의 지향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소설적 자아는 결핍과 두려움 속에 자라나면서 부재하는 아버지를 세상 어느 곳을 떠돌고 있는 역마살 돋은 존재로 이상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변혁을 위한 아버지의 행동에 담긴 가치를 알기 위해 골몰한다. 김원일의 분단이야기에서 아버지 찾기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비극을 조감하면서 차츰 그 행보를 넓혀가는 것이다. 「어둠의 혼」 말미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주검에 담긴 어둠, 세계의 수수께끼를 처음 역사의 지평에 올려놓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노을』이다.

『노을』은 「어둠의 혼」의 어린 화자 시점과 장성한 후의 시점을 교차 반복시키는 구성을 통해서 분단의 비극을 아버지 세대의 과오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로 이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의 고리 끊기’ 는 아버지 찾기 또는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는 논리를 역사의 지평에서 구하는 성장한 의식을 보여준다. 그 연장선에서 『바람과 강』의 아버지 찾기는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민족 앞에 저지를 과오에 대한 처절한 자기 속죄를 위해 말년을 돼지우리에서 보내려는 ‘이인태’ 씨의 모습에 주목하는 서술자의 시선은 민족을 배반한 자신의 죄과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인간다움을 향한 ‘이인태’ 씨의 행동을 통해 자칫 기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민족 앞에 고백과 참회를 시도하는 숙연한 제

105) 김원일, 위의 책, p.54.

의를 포착한다. 제의의 내용은 아버지 자신의 목소리를 빌린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의견 표명이며 낭만적인 아버지 이해의 극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노을』과 『바람과 강』에서 보게 되는 이질적인 아버지 상은 모두 아버지에 대한 낭만적인 이해와 더불어 역사적 실체로서의 아버지 찾기라는 두 개의 흐름에서 비롯된 특성이다.

2. 대립적 세계 인식과 원형성의 발견 : 윤흥길

1) 대립이 초래한 일상적 삶의 해체

윤흥길의 비극적 세계는 대립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대립의 양상은 어른과 아이의 대립과 이념의 대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대립의 종말은 죽음과 가족의 분리라는 극한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아이 어른의 대립 양상을 살펴보자. 윤흥길의 「기억속의 들꽃」, 「장마」는 성장기의 체험을 좀 더 예각화하여 유소년 존재들이 어른들의 폭력에 희생되는 악한 세계의 형상을 제시한다. 「기억속의 들꽃」은 비행기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피난민 고아가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고 만 일화를 담고 있으며 「장마」는 폭력적 현실 속에 입산한 가족과 함께 유혹적인 심문을 받으면서 순수함을 훼손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억속의 들꽃」은 “정갈한 청소부가 어찌다가 실수로 짐짝처럼 띄워하니” 남겨놓은 듯한, 피난 속에 가족을 잃은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마을에 나타난 피난민 무리를 보고 유소년 화자는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여 그들의 행렬을 따라가고자 한다. 천진난만한 유소년의 존재들에게는 전쟁이란 한낱 먼 곳으로 떠나는 원족과도 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 아이 명선의 출현은 이들의 천진난만한 반대편에 처절한 생존의 세계로 진입하게 만든다. 남장을 한 채 양식 값으로 금반지를 숨겨두고 이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피난지에서 더부살이하는 명선의 소문이 퍼지면서 금반지를 숨겨둔 곳을 찾기 위해 동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어른의 회유와 협박, 마을 사람들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명선은 금반지를 숨겨 둔 곳을 발설하지 않는다. 어른들의 회유와 협박은 유소년의 존재들 앞에 놓인 세계가 드러내는 야수성이다. 화자와 함께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다가 비행기의 폭음 때문에 발작하여 부서진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고 마는 명선의 죽음은 어른 세계가 가한 비극적인 기억이다.

우리가 명선이 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 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애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

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 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었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난 갔던 명선이나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땀을 해 줘서 어른들은 명선이 숙부에게 버림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명선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 날도 나는 명선이나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놓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은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그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 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듯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에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 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 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病的)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장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었다.¹⁰⁶⁾

한 송이, 그것도 내부 화자가 임의적으로 만듦에 놓은 이름 모를 들꽃 ‘쥐바라 송이 꽃’으로 화하여 사라지는 어린 영혼은 어른들이 만든 세계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화자는 독자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윤홍길 소설의 순진한 어린이들의 시점을 “아이러니의 묘미”¹⁰⁷⁾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세계에 손상되는 아이들의 세계를 그려내는 소설의 의도는 주로 전쟁으로 형성된 아동에 대한 비인간적인 폭력에 관한 것이다. 「기억속의 들꽃」만이 아니라 「황혼의 집」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보인다. 가족의 참담한 비극을 바라보는 소년 화자는 그 비극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 역시 비극에 감염되어 있다. 「장마」의 동만도 그러하다. 동만의 삼촌의 전사통지, 빨치산이 된 삼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가족의 수난에 동참하고 있다. 윤홍길의 초기 작품에 나타나는 유소년 화자의 성격은 “자신들의 존재를 안락하게 해주던 혈연적, 정서적 관계들이 무참히 찢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느 사이엔

106) 윤홍길, 「기억속의 들꽃」, 『제삼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107) 천이두, 「묘사와 실험-윤홍길론」, 『장마』, 민음사, 1980.

가 공포와 살의와 술수를 배우게 된다.” 108)는 것이다.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윤기 흐르는 흑갈색 그것에서 먹음직스런 향기가 풍겼다.

“쫄팍이다. 아저씨가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하면 이걸 너한테 몽땅 주겠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상한 과자 위에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꿀꺽꿀꺽 넘어가는 침을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조금도 부끄러워 할 것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단다. 어떠냐, 대답하겠니? 네 대답 한 마디면 아저씨는 친구를 만나서 좋고, 너는 이 맛있는 쫄팍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중략) 난 네가 팽창히 푹푹한 앤줄 알았는데 ……참 안됐구나.”

나는 또 한 개를 구둑발로 짓밟아 놓았다. 벌써 세 개째였다. 사내의 손안엔 이제 두 개의 과자가 남아 있었다. 사내가 별안간 껄껄 웃었다.

“너 이 녀석 우는구나. 못난 녀석 같으니라구. 애 꼬마야. 이제라도 늦진 않아. 잘 생각해 봐. 삼촌이 집에 다녀갔었니? 그게 언제지?”

어른의 비상한 수완을 나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진짜로 삼촌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막 시작할 때의 첫마디가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일단 얘기를 꺼낸 다음부터는 연자 새에 감긴 실처럼 전달밤의 기억들이 술술 풀려나왔다.¹⁰⁹⁾

「장마」에서 가장 탁월한 묘사의 하나인 위 대목은, 동심이 간교한 어른에 의해 무참하게 훼손당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사내와 어린 동만 사이에 놓인 초콜릿이라는 매개물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마적 유혹이다. 어린 존재의 수난은 어른들의 수난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린 존재의 전략은 그들을 유혹하여 가족을 배신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술책을 보여주는 세계의 악한 형상이다. 세계악과 아동의 순진무구함 사이의 이질적인 대비에는 가장 위악한 방식의 감시와 폭력이 손길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위태롭고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동은 사냥개에 사로잡힌 포획물에 가깝다. 동만은 유혹에 굴복해서 산사람이 된 삼촌이 전달 밤 다녀간 사실을 감시자에게 밀고함으로써 가족을 궁지로

108) 황중연, 「인간적 친화를 꿈꾸는 소설의 역정」, 『작가세계』, 1993. 봄, p.25.

109) 윤홍길, 「장마」, 『장마』, 민음사, 1980, pp.99-100.

몰아넣고 아버지를 고문당하게 만든다. 아버지를 고초 당하게 만드는 아들의 비행은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손상하는 것이면서 자신도 전략에 빠져드는 슬픈 모습이다.

이념의 대립 양상은 좌/우익의 대립, 가족의 붕괴 형태로 나타난다. 「장마」는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 간의 갈등과 치유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화자인 ‘나’가 어린 시절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린이의 시선을 작품의 관찰자로 설정하여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치밀한 묘사보다는 단순하고 순진한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 치밀하고 섬세한 사실주의적인 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에게 각성의 계기로 주어지는 것은 외삼촌과 삼촌,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¹¹⁰⁾이다. ‘나’는 이들 죽음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근본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는 삶에 내재하는 비극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계에 대해 미숙하고 무지하던 인물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비극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음은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 회의하게 만드는 불가피한 운명이다. 「장마」 속의 세 가지 죽음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나’에게 각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먼저 국군 소위인 외삼촌의 죽음은 전사통지서로 드러난다. 그러나 ‘나’는 전사통지서가 전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단순히 빗속을 찾아온 어른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어머니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오는 것을 인지할 뿐 그것이 외삼촌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한다.

외할머니는 이가 뽑히는 꿈을 되뇌이며, 예상하고 있던 아들의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완두를 까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외할머니의 손놀림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으며 자신만이 그것을 눈치 챘다고 자신한다. “나는 외할머니의 끊임없이 달짝거리는 함축한 입보다는 완두를 까는 작업에 더 관심을 모았다.”는 진술은 ‘나’가 현재의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세

110) 삼촌의 죽음은 이 소설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샤머니즘적 믿음으로 드러날 뿐 직접적으로 죽음을 증거해 주는 단서는 없다. 그러나 성인이 된 서술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 구조임에도 삼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 또 할머니와 외할머니에 의해 화자 역시 삼촌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삼촌 또한 소설 내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계의 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재의 상황 자체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죽음과 같이 삶에 내재하는 비극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삶에 내재하는 비극을 인지하고 있는 성인들은 비극을 비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미성숙한 주인공은 비극을 인지할 수가 없다. ‘나’는 단순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목격하고 관찰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나’에게 전사통지서는 단지 ‘종이 쪽’으로 인식되며, 외할머니의 행동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다. 어른들이 암묵적으로 외삼촌에 대해 불길해 하고 결국 전사 소식을 듣게 될 때 ‘나’가 외삼촌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어른들은 외삼촌의 죽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테지만 ‘나’에게 어른들의 생각은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가 기준에 갖고 있던 인식의 틀로 상황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외할머니의 행동을 통해 심리 상태를 유추해내기보다는 그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이 변화를 눈치 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차츰 어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심리 상태에 동화되어 간다. 이제 ‘나’는 이미 성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성인들의 행동과 대화를 관찰하면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받아들이게 된다. 새로운 인식의 틀은 이미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집단 규범이며 삶에 내재한 비극에 대한 깨달음이다.

‘나’는 외삼촌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꿈이 맞았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외할머니를 관찰하다가 ‘별안간 무섭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 그것은 ‘주술에 가까운 어떤 강렬한 기운’이며 결국 비극이 덮쳐 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맞췄다는 외할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나’가 느끼는 강렬한 기운은 외할머니의 샤머니즘적 신앙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나’는 외할머니를 무섭게 느낌으로써 더 나아가 삶에 내재한 비극에 대한 두려움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제 ‘나’는 비극이 덮쳐온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며, 성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노년기의 인물이 비극을 미리 ‘알아맞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현상과 현상 이면을 포함한 세계에 대해 폭넓게 인지하고 있는 성인들은 이미 비극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언제든지 비극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수긍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외할머니를 통해 삶에 내재한 비극에 대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이면에 외삼촌의 죽음이 있으며, 삶에는 죽음이 내재되어 있고 비극이 시시때때로 덮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외삼촌의 죽음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다만 전사통지서라는 매개물을 통해 사실이 전달될 뿐이다. 따라서 ‘나’는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하고 이해하기보다 막연한 상태로 존재감을 느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성장의 과정에 돌입한 ‘나’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번에 닥칠 비극에 대해 예측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삶에 내재한 비극을 ‘나’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할머니가 수시로 소년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는 “즈이 오삼촌 봉알도 꼭 왜술방울 땀으로 생겼지”라고 확인하는 행동은 아들의 죽음을 외손자에게서 재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나’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이미 ‘나’도 어느 정도 죽음에 관한 인식에 대해 이해가 생겨나고 있음을 말하게 된다.

두 번째 죽음은 삼촌의 죽음이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삼촌이 돌아오는 일이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¹¹¹⁾ 낙관적이 될 수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다고 느낀다. ‘나’는 이미 빨치산 삼촌이 처한 상황과 어른들이 삼촌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삶에 기본적으로 비극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비극이 닥칠 것을 예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비극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라고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나’가 외삼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죽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가망없이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도 비극에 맞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나약함을 인식하게 된다.

111) ‘하지만 아무리 어린 소견에도 그런 일이 달이 지고 해가 뜨듯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문장은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서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인이 된 화자의 평가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주체는 어린 화자 ‘나’이다.

이 소설에서 ‘나’의 몫을 살펴보면 성인으로 한 발자국 다가섬을 알 수 있다.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점쟁이가 말한 ‘아무날 아무시’에 집을 찾아온 것은 커다란 구렁이였고 할머니는 까무러치고 만다. 그리고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때 구렁이를 달래 숲으로 보내는 일은 외할머니가 맡는다.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 구렁이가 삼촌의 혼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 화해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있는 식구들과 구렁이에게 정성을 들이는 외할머니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나’이다. 속수무책으로 비극을 바라보는 것과 적극적으로 비극을 대면하는 것은 성인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이다. ‘나’는 구렁이를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가지러 방안에 들어갔다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도 한다. ‘나’는 비극이 발생한 현장에서 일을 수습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어엿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나’에게 죽음은 삶의 한 요소이며 ‘나’는 죽음이 갖는 의미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결국 할머니는 임종을 맞게 되는데 임종의 자리에서 ‘나’의 손을 잡고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준다. 죽음은 삶을 정화시켜 주며 남은 사람들을 겸허하게 만든다.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외할머니, ‘나’와 화해를 이루는 것은 죽음이 갖는 정화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삼촌을 기다리던 기간이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진술은 형태상으로 볼 때 성인이 된 화자가 가하는 논평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성인이 된 화자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미 ‘나’가 성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또 ‘나’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나’는 할머니를 용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할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성인됨을 뚜렷하게 자각할 수 있다. ‘나’는 외삼촌과 삼촌,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차츰 성숙해 가며 삶에 내재된 비극을 깨달음으로써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는 진술은 ‘나’가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 준다. 더불어 ‘지루한 장마’는 삶에 내재한 채 끝나지 않을 비극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장마」에서 죽음은 성인 세계의 코드로 작용하며 ‘나’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세계인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죽음은 필연적으로 남겨지는 자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남는 자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죽음을 체험한 인물은 성인 세계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2) 결합과 상징으로 표상되는 원형성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함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혹은 ‘종교’와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 혈연 공동체인 가족의 가치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한국사회의 특수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가족해체의 비극으로 대응 될 수 있는 것도 가족과 민족,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혈연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홍길의 문학적 출발점은 「장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장마」는 「황혼의 집」과 함께 윤홍길 문학의 본령이며 핵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두 작품의 발표로 작가 자신이 문단의 주목을 받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미 윤홍길의 역사에 대한 의식과 묘사로서의 소설적 가능성을 내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장마」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 끈끈하고 무덤고 고통스런 한 시기의 이야기를 토속적인 믿음과 전통적인 모성애와 상처받은 성장기를 통해서 전해준다는 점에서 윤홍길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편소설 가운데서 손꼽을 만한 걸작이다.

이 소설은 한집안에 살고 있는 두 노인의 관계가 ‘나’라고 하는 어린이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이 소설은 화자인 ‘나’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다가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국군에 입대했다가 죽은 아들을 가진 외할머니와, 빨치산이 되어 밤에나 찾아오는 아들을 둔 할머니가 한집에 살고 있는 이 소설의 상황은 바로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사회 전체의 축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두 노인이 나누어 가진 대립적 운명의

부딪침으로 더욱 비극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두 노파가 모두 각자의 아들을 잃고 말지만 이들이 화해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모성의 공통점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일이 두 노파에게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숙명으로 받아들인 역사의 비극을 두 노파는 한(恨)의 풀이 즉 해한(解恨)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구렁이의 출현이다. 비극의 정점은 구렁이가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정서에 의해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대신 하여 나타났다고 알려진 구렁이를 앞에 놓고 마치 살아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달래는 장면은 그것이 토속 신앙의 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판소리에서 짐짓 사설을 늘어놓는 것 같은 보다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그러한 방식으로 비극적 죽음을 언어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한을 달랠 길이 없음을 말해준다. 논리적으로 해명 되지 않은 이러한 구조 속에 극복의 의지를 숨겨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대립과 선전의 지배를 받는 역사는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반면에 한과 같은 근원적인 정서의 동질성을 발견할 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적대관계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외할머니’가 구렁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화의 언어는 일종의 주술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렁이를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언어를 주술적인 것으로 규정짓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렁이를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언어는 주술적인 것이기도 하다.

윤홍길의 전쟁체험 극복방식은 결합과 상징으로 나타난다. 가족을 매개로 한 결합의 가능성은 유소년 화자의 시각이 지닌 순수성으로 재현된다. 윤홍길의 「장마」는 1인칭 유소년화자의 시각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그리고 그 극복방안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극화된 화자가 등장하여 자신이 체험하고 관찰한 것, 들은 것을 들려주어 보고하는 서술 방식이다. 화자인 ‘나’는 산에서 불이 나고 시가전이 벌어지는 것을 단순히 어른들의 장난으로 인식하는 순진성(의도적인 왜곡?)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진성을 보유한 나이기 때문에 맑은 창이 세계를 보

여주는 것처럼 왜곡 없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의 상황을 재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장마」의 어린이 눈의 화자는 자신의 프리즘에 투사된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한다. 그 속에 자신과 연관된 서사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주제는 화자보다 그를 둘러싼 가족의 비극, 나아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라는 보편성을 지향한다.¹¹²⁾ 하지만 소년화자의 순진성이 시각의 협소화라는 문제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소년의 시점은 천진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세계가 가져다주는 충격과 상처를 일깨워 주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작중 인물의 내면을 천착하고 상황의 의미를 건져 올리는 데는 분명 한계를 드러내는 일면도 있다.¹¹³⁾ 그러나 소년화자의 순수한 시각을 통해 분열된 세계의 결합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장마」는 몇 가지 다른 상징성을 띤다. 장마란 크게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재난을 뜻한다.¹¹⁴⁾ 그러나 여름이 가면서 반드시 물러가는 것이며, 장마가 걷히고 나면 하늘이 더 맑고 더 높고 아름답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마는 제목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작품의 분위기와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마는 성숙한 자아의 서사 양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소년은 좌·우익의 갈등을 상징하고 있는 장마를 겪고 난 후, 성숙한 자아로서 성장하여 새로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자질을 획득한 것이다.

①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로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하고 내렸다. 비가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칙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② 지루한 장마였다.

112) 권택영, 「평면과 입체 서술」,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서문학사, 1991, p.44.

113) 조남현, 『우리 소설의 판과 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p.69

114) 전쟁 상태를 이런 장마와 비의 우기 상태로 표상화 하는 현상은 염상섭의 『취우』에서 비롯해 손창섭의 『비오는 날』 등의 일련의 작품에서 제시된다.

예문 ①과 ②는 소설의 시작과 끝이다. 소설의 시작에서 시작된 장마가 소설의 끝부분에서 끝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장마는 재난의 시작과 끝이며 곧 나타날 더욱 찬란할 햇빛을 예고한다. 이러한 시작과 끝은 소년의 성장의 한 주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육군소위인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도 장마 비가 쏟아지는 캄캄한 밤에 도착했고,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불화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시작되었고, 빨치산이 읍내를 습격한 것도 장마 비가 내리는 밤에 저질러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동생의 시체가 있는지 찾아보러 갈 때에도 ‘삿갓 위에 갈보를 받쳐 쓰고’ 가야 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리던 비가 할머니가 기다리는 ‘아무날 아무시’에 차츰 성글어지면서 구렁이가 나타날 때는 비가 그친다. 그리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를 하고 할머니가 ‘타다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을 때’ 장마는 완전히 갠다.

상징성을 보이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완두이다. 장마는 완두를 거둬들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만약에 밭에서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완두는 그냥 못쓰고 말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외할머니가 깐다. 외할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완두를 까는 행동만은 멈추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모두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할머니는 완두 까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완두는 노인의 소일거리가 아니다. 모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¹¹⁵⁾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들이 죽었음을 통지 받고도 몸을 꺾듯이 세우고 그대로 앉아서 콩을 까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또 할머니는 콩알을 까며 한의 응어리를 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소년의 눈에 비친 외할머니의 완두콩 까는 행위는 완두의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인공의 성장을 극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소설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¹¹⁶⁾

이 작품은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 및 장마라는 천재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제시하면서 그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전쟁은 어린 소년인 ‘나’에게 불신과 배반, 증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상처를 받게 한다. 즉 소년은 세 가지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어 샤머니즘적인 재생의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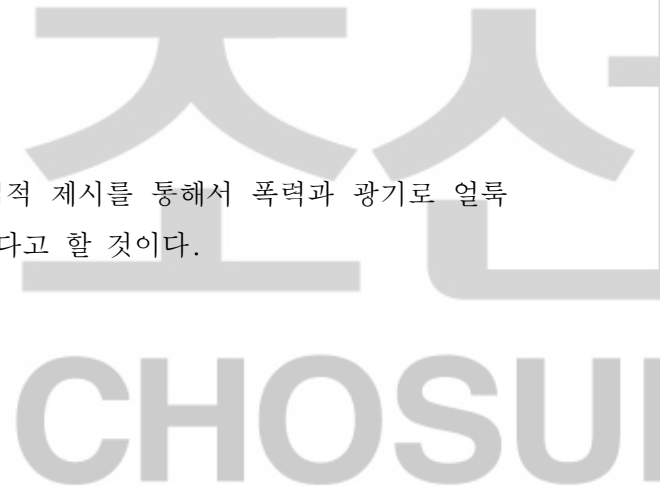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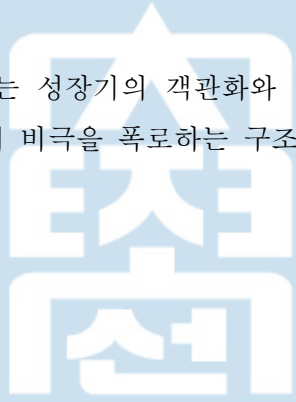
115) 김우중, 「윤홍길의 「장마」와 분단 극복」. 《문예중앙》(1997. 겨울), pp.182.

116)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를 어렵듯이 이해하게 되며 어른의 유혹과 배신에 의해 소년은 죽기를 바랄만큼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런 자학과 죄의식 속에서 소년의 의식은 성장한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표제인 장마는 여러 상징을 지니지만 그 상징들 중의 하나로 장마는 소년의 시련기로 볼 수 있으며 장마의 끝은 곧 소년의 성인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전쟁이 가져온 불신, 배신,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쟁은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죽음과 불신의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성인세계로의 진입을 다가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윤홍길은 「장마」에서 이념이 다른 아들을 가진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반목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인 비극과 토속적인 샤머니즘을 결합해냈다. 한편 비극적 상황을 관찰하는 ‘나’는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장체험과 결부된 분단 이야기는 언제나 주체 자신에게 가해진 상처의 의미와 함께 세계가 가진 폭력성을 확인하며 그 세계의 폭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그 지평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것은 지속되는 분단 멘털리티의 구조를 간파하고 그러한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제출하는 주체의 각성이 한층 구체화된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데올로기에 의해 자행된 반목과 갈등의 양상이 소위 당한자의 편에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함으로써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유소년화자는 그러한 점에서 탈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의 장치로서 검열의 심급에서 해방시킨 분단이야기를 어린 희생자의 성장기와 성장의 의미를 탐색하는 한편, 비극적 현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한편 주체의 자기정립에 이르며, 분단의 역사적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혀나가는 비 이데올로기적인 주체다. 이들 주체는 기억의 편린에서 사건의 전모와 세계의 폭력을 적발한다. 이들 주체는 비극의 상처로 얼룩진 성장기를 초래한 세계에 대한 의미 찾기와 자신의 신원 찾기라는 존재론적 모색과 함께, 고향을 부재하는 공동체의 기억을 자기정립의 장소로 삼아 화해 공간으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들 주체는 고향으로부터 분단의 비극을 넘어설 인물의 성공담을 전해 듣기도 하며 고향에서 아버지의 역사 속에 담긴 부질없는 대결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한다. 결국 성장기와 결부된 분단이야기는 기억 속의 제한된 인상으로 그친 불명료한 체험에 담긴 성장의 고행을 어린 화자를 통해서 역사화 하는 인식으로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

이야기에는 성장기의 객관화와 비극의 간접적 제시를 통해서 폭력과 광기로 얼룩진 과거의 비극을 폭로하는 구조 하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부정적 세계 인식과 위악의 정신 : 김승옥

1) 폭력적으로 인식된 어른의 존재 방식

김승옥의 작품에서 어른의 세계는 폭력으로 그려지고 있다. 악의 세계요, 폭력의 세계인 어른의 세계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갈 수 밖에 없는 세계이다. 결국 그 폭력의 세계와 순수의 세계가 부딪혔을 때 어지러움으로 나타난다. 돈 때문에 빨치산의 시체를 처리하러 나서는 아버지, 어린이가 꿈도 꾸지 못할 ‘남해’로의 무전여행을 떠나려는 형과 형 친구들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이면서 악의 세계로 그려진다.

1962년 『산문시대』에 발표된 「乾」은 참혹하고도 부조리한 현실을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작품이다. 세상에 때 묻지 않은 순진한 소년인 주인공 ‘나’는 이웃에 살고 있는 윤희 누나로부터 받은 심이 굵은 4B 도화연필을 학교에서 도둑맞았기 때문에 윤희 누나를 대할 때마다 뭔가 죄를 지은 기분으로 어깨가 움츠러드는 순진한 소년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나’의 삶에 대한 기대가 전쟁과 형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 그리고 아버지의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단분제와 관련된 소설들 중에 순진한 눈을 도입한 최초의 소설”¹¹⁷⁾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즉 하루 동안에 체험한 빨치산 시체 구경, 시체의 매장 등의 놀라운 발견과 체험을 통해 주인공인 ‘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과 음모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의 경험은 ‘나’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세계로 전이되어 감을 보여준다. 빨치산이 시(市)를 습격한 다음날 아침에 12세의 소년인 ‘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가지, 특히 어린이 놀이터가 됐던 왕국 같던 방위대 본부가 불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놀던 아름답던 옛날을 그리워한다.

117) 이동하, 「한국문학의 전통지향적 보수주의」,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9.

아아, 하루종일 그 지하실에 틀어박혀 우리들은 얼마나 가슴뛰는 놀이들을 하였던가. 애들 중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던 내가 그 지하실의 백회벽(白灰壁)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 한 아이는 초 동강이에 불을 켜서 들고 나의 손이 움직일 방향으로 불빛을 보내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그림 속에서 많은 애기를 끄집어내어서 지껄이며 떠들고 그 그림을 자기들이 그린 것처럼 아껴주고 다른 마을의 애들을 끌어와서 자랑도 해주곤 했다.¹¹⁸⁾

이 방위대 본부의 파괴는 유소년기에 있어서 아름다운 꿈의 세계를 상실한 것이다. 불타고 있는 방위대 본부를 ‘나’가 바라보는 것은 유소년기의 꿈을 키우던 곳을 잃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과거까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뜻하게 된다. 또한, 이 부분은 주인공인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상하게 한다.

‘나’는 학교 가는 길에 이웃집에 사는 윤희 누나를 만난다. 윤희 누나로부터 벽돌공장에 빨치산의 시체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나’는 친구들과 함께 흥분에 들떠 시체구경을 하러 갈 때는 제일 앞장서서 뛰어간다. 그곳에서 어느 영감이 “빨갱이 시체 구경도 한 이태만에 하는군” 이라고 침을 탁 뱉고 돌아서서 가자, 몇 사람이 그 뒤를 이어 역시 땅에 침을 뱉고 가 버리는 것을 본다.

나는 고개를 열른 돌려 버렸다. 다시 시체가 있었다. 흙을 파내오는 주황색 언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부터 까만색 레일이 잡초를 헤치고 뱀처럼 흐늘거리며 이쪽으로 뻗어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던져주는 구도(構圖)였다. 방금 잠깐 쭈시고 간 그 강렬한 색채들 때문에 나의 눈은 눈물이 나도록 쓰렸다.¹¹⁹⁾

위 인용문 중 희화적으로 묘사된 부분에서는 이 세계를 신식하게 된 한 소년이 그 세계를 얼마나 혼란스럽고 암담하게 보았는가를 간결하게 압축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나’는 시체를 본 후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이 어지러움은 ‘나’의 심리 상태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시체를 보고 난 ‘나’는 유소년기의 순수의 세계를 잃어버린 심리적 불안 상태로, 이것이 ‘어지러움’

118) 김승욱, 「乾」,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아출판사, 1991, pp.36-37.

119) 김승욱, 앞의 책, p. 44.

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와 형 친구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반장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빨치산 시체를 매장해 줄 것을 제의한다. ‘나’는 아버지가 불쾌하게 여겨 거절할 것을 기대하지만 아버지는 “약간의 보수” 때문인지 선뜻 대답하고, 형과 형 친구들도 빨치산의 매장에 함께 동참시킨다. ‘나’는 시체를 보면서 “어딘가 마음한 구석이 따뜻해 오는 그런 환상”을 가졌었는데, 그 시체의 매장을 아버지가 하게 되었다는 데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와 형들은 구덩이 속에 관을 내려놓은 후 돌을 던져 넣고 흙을 채워 매장을 끝내게 된다. 시체의 매장에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나’는 돌을 던져 넣는 것에 증오심을 갖는다.

나는 처음의 돌 몇 개는 남들처럼 천천히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나중엔 힘껏 마치 돌판매질 하듯이 던졌다. 내가 던지는 돌이 관에 맞는 소리는 탄 소리와 뚜렷이 구별되어 들렸다. …… 나는 힘껏 돌을 던졌다. 나는 돌을 던지면서 힐끗 노파를 쳐다보았는데 노파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내 오른팔에 더욱 세찬 힘을 느끼며 던지기를 계속했다.¹²⁰⁾

‘나’의 이런 의도적인 증오심에 의해 나타난 공적인 행동은 “약간의 보수” 때문에 시체 매장 일을 수락하는 아버지가, 시체 매장 일을 부탁하러 와서 “뺨어 있는 놈, 구역질” 등의 거친 말을 하던 반장 때문이다. 즉, 성인사회의 비인간성을 처음 느낀 당황함이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고, ‘나’는 성인들의 세계에 수용되어 버린다.

‘나’에게 오는 또 다른 충격은 형과 친구들 때문이다. 형과 형 친구들은 남해 무전여행이 도시의 파괴로 무기한 연기되자 하는 일없이 방을 뒹굴다가 아버지의 빨치산 시체 매장에 함께 동참한다. 시체를 매장한 후 산을 내려오다 형 친구들은 윤희 누나에게 어둠과 음란의 냄새를 풍기는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일에 형이 앞장서는 것을 보고 또한 충격을 받으며 산을 내려온 후 참을 수 없는 잠에 떨어져 버린다. 이 잠은 육체적인 피로에서 오는 잠이라기보다 정서적 손상 때문이라 할 것이다. 낮의 사건들, 빨치산 시체 매장, 형과 형 친구들의 윤희 누나에 대한

120) 김승옥, 앞의 책, p.50.

음모 등으로 인한 정서적 손상인 것이다.

윤희는 순수 정서의 표상이다. 윤희누나가 형들의 음모에 휩싸여 순결을 짓밟힌다는 것은 순수세계나 가치 있는 세계의 파괴를 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들 음모에 동참하고 오히려 한 수 더 뜬 행동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체 매장에 동참하며 받은 충격이 가져온 혼란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는 양심의 통증으로 눈을 감는다.

또한, ‘나’는 유소년의 친구이자 일본으로 피난 간 친구인 미영이네 집을 악의 장소로 사용한다는데 죄책감을 느낀다.

은 시내에 있는 애들이 모두 들어와서 놀아도 좁지 않을 정도로 단순히 넓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꾸며져 있는 곳이었다. 물이 말라버린 못에는 괴석(怪石)을 이리저리 엮어 붙여서 내 작은 몸뚱이가 들어가 숨을 수 있을 만큼의 동굴 따위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문을 열면 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면 또 문이 있고 이렇게 다섯 개의 문이 가지각색 장식으로 꾸며져서 달려 있는 연회색의 커다란 창고가 있고 또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세운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석등이 서양 사람처럼 큰 키로 서있기도 하고, -중략- 아아, 하루 종일 그 지하실에 틀어박혀 우리들은 얼마나 가슴 뛰는 놀이들을 하였던가. 애들 중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던 내가 그 지하실의 백회벽(白灰壁)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 한 아이는 초 동강이에 불을 켜서 들고 나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불빛을 보내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부러움과 감탄의 눈초리로 내가 그리는 그림을 바라보고 그 그림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지껄이며 떠들고 그림을 자기들이 그린 것처럼 아껴주고 다른 마을 애들을 끌고 와서 자랑도 해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미영이라는 계집애를 잊을 수가 없다. 내게 크레용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연필이나 연필 꽃이를 나누어주던 미영이. 1학년 때 어느 날이었던가, 이상스럽게도 둘만 그 지하실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쑥 미영이를 꼭 껴안아 버렸었다.¹²¹⁾

아아,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지 않았더니,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개 위에 먹칠을 해 버리려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 따지기보다 훨씬 앞서 맛보는 섭섭함. 하기가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영아, 내게 응원을 보내라. 그건 뭐 간단한 일이다. 마치 시체를 파묻듯이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¹²²⁾

121) 김승욱, 「건」, 『한국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p.109-110.

122) 김승욱, 앞의 책, pp.53-54.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을 느끼면서도 미영에게 모든 것을 미안해한다. 그러면서도 윤희 누나에게 거짓말까지 더해서 악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른의 세계는 악의 세계이고 어린이의 세계는 순수의 세계이지만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퇴행이라는 의식의 표현이다. 정상적인 성장은 악의 세계로 입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영’의 집은 유소년의 공간이요, 순수의 공간이다. 방위대 본부로의 전환, 폭격으로 무너짐, 형과 형 친구들의 윤희 누나에의 운간 암시는 악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다. 그 러함에도 나는 거짓말까지 더하여 윤희 누나를 미영이네 빈집으로 유인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 이는 입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나’의 마음속에 선과 악의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부름을 마치고 오는 길에 미영이네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담 위로 기어 올라가 말 타듯이 담을 타고 앉아 안을 바라본다.

바야흐로 나는 무서운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 간단한 말을 전해 주는 거런 책임이 희박한 행위로서 가담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 미영아 너의 집을 제공하라고 한다, -중략- 어느날엔가 아름다운 일본의 크레용을 내게 대한 선물로 가지고 돌아와서 네가 다시 그 집에 살게 되리라는 기대를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온갖 화려한 공상을 그 곳에서 끄집어 낼 수 있었다. 나는 온갖 화려한 공상을 그 곳에서 끄집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자, 미영아. 나는 이제 몇 분 안으로 이러한 모든 것 위에 먹칠을 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¹²³⁾

위 인용문에서 “모든 것 위에 먹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유소년의 상실을 뜻한다. 이런 순수의 세계에 먹칠을 함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나’는 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인의 세계의 부당함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못한 채 묵인하며 따라하는 소극적 태도이다. 위악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며 ‘나’는 불타고 있는 방위대 본부를 보러가기 위해 담에서 골목으로 뛰어내린다. 방위대 본부는 유소년을 상징하는 장소다. 그러나 그 상징의 장소는 파괴되어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굳이 방위대 본부로 가려하는 것은 죽음이나 어른들의 음

123) 김승옥, 앞의 책, p.53.

모를 몰랐던 순수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어른들의 비윤리적인 타락을 전쟁의 혼돈 속에서 목격하고 난 다음이다. 즉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乾」에서 ‘나’를 성숙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매개자는 형과 형의 친구들이다. 이들은 나에게서 외부세계의 유혹이다. 「乾」은 순진한 ‘나’가 전쟁으로 인해 유소년의 상징인 방위대의 소실, 빨치산의 시체 구경, 아버지와 형들의 비윤리적 목격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어지럼증’으로 표현되는 환멸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비윤리적인 성인의 세계에 동참하는 이중성을 보이며 악의 세계로 입문하는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다.

특히, 이니시에이션 소설에서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는 상징물이 「乾」에서는 ‘무너진 방위대 본부’로 설정된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가야할 길 즉, 어른들의 타락에 동조하지만 ‘나’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못한 채, ‘정서의 손상’을 입은 모습만을 보인다. 이제 ‘나’에게는 목격한 어른들의 타락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나’의 인생 또는 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생명연습」에서 회상되는 유소년의 시간대는 “초등학교 육학년 때, 사변이 있던 그 다음해 이른 봄”이다. 「乾」의 시간적 배경 역시 “6학년 때”이므로 1951년 무렵이다. 「생명연습」이 외디푸스적 가족 로망을 담고 있다면, 「乾」은 빨치산의 내습으로 불타버린 도시를 무대 삼아 위악한 현실에 오염된 채 순수를 모독하며 성장하는 성장담에 가깝다. 그러나 「乾」텍스트 곳곳에서 여순 사건의 흔적들이 파편처럼 널려 있다. 자전성의 출처를 가진 이들 파편은 변형과 응축, 대체를 통해서 텍스트의 전면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생명연습」에는 부재 처리되었던 아버지가 「乾」에서는 빨치산의 시신을 처리하는 노역자로 등장하고 있다. 작중의 어린 서술자는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업자로 변형된 아버지를 등장시켜 좌익 사상에 가담한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동을 취한다. 서술자는 아버지가 파놓은 무덤자리 안에 빨치산의 주검을 담은 관에 힘껏 돌팔매질을 하는 위악함을 보여준다. 그 위악함은 아버지의 정치노선에 대한 부정의 형국이다. 어린 서술자의 이러한 행동은 「생명연습」에서 보여준 내밀한 가족로망스 구도가 변주되어 아버지에 대한 부정과 거부를 한껏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악하고 고단한 성장의 주체는 아버지가 선택한 이데올로기란 “공공 뭉친 그런 신념덩어리”¹²⁴⁾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벽돌이 쌓여 있는 더미의 강렬한 색깔”¹²⁵⁾이 가진 “무시무시한 의지”, “적갈색과 자주색이 엉겨서 꺼끌꺼끌한 촉감의 피부를 가진 괴물¹²⁶⁾”임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적갈색과 자주색은 죽음의 부패를 상징하는 색이다. 빨치산의 주검은 아버지의 죽음 또는 시신으로도 해석해볼 여지도 충분하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은 더 나아가 자신의 순수한 동심에 대한 자해로 이어진다. 어린 서술자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하는 윤희 누나를 훼손하려 든다. 비록 형들의 부정한 모의에 스스로 가담하는 모양새를 가지고는 있으나 자신의 방위대 지하실이라는 동심의 처소가 사라진 지금 그 동심의 세계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는 이제 성인의 의례를 공모하는 조숙함으로 성장의 부정적 일탈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乾」은 전쟁에 대한 부정과 환멸이라는 의식을 동반하면서도 죽음에 가까운 아버지(또는 죽은 빨치산)를 동일시한 몸짓, 그 정치적 신념을 부정하며 여순사건에 관련된 트라우마 등 거기에 얽힌 성장체험을 세계의 타락과 오염을 받아들이는 성장담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자기검열과 위악적 주체의 발견

김승옥 소설의 특징은 위악적 주체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위악적 주체는 악을 가장한 허구의 주체이다 이러한 주체가 철저한 자기검열의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김승옥 소설을 다른 소설과 변별시켜주는 지점이다. 경제의 이데올로기가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억압하는 구조에서 성장은 당연시되고 합리화 된다. 악의 세계인줄 알면서도 입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악적 주체의 모습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근대화 논리를 비판하면서 근대적 논리 안에서 근대적 주체를 존립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

김승옥의 소설의 자기검열은 자전적 경험과 현실 상황에 거리를 두는 방법이 된

124) 김승옥, 「乾」, 『한국 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p.115.

125) 김승옥, 같은 책, 같은 쪽.

126) 김승옥, 같은 책, 같은 쪽.

다. 「乾」에는 여순사건에 연루된 좌익가족의 아들이 발설해서는 안 되는 자전적 내력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이 감지된다. 작품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상 선택과 활동이 가진 함의이다. 이를 김승옥의 회고 내용과 겹쳐 읽어 보면, 아버지와 현실세계에 대한 상호 관련성이 어렵풋하게 감지된다.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갈등을 느꼈지요. 아버지가 옳으나 내가 받은 교육이 옳으나, 그래서 독서를 일찍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곤 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일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남로당에 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아버지 세대에서 제국주의가 아닌 국가,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지원해주는 국가가 소련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맑시스트가 됐던 게 아닐까, 아버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이해해보고 있습니다.

- 좌담, 같은 책, 47쪽.

김승옥의 발언에서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갈등 부분이다. 조숙한 성장기에 가진 의문과 갈등은 아버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갈등은 아버지의 좌익 활동을 수궁하는 일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¹²⁷⁾ 자신이 받은 미국식 민주교육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담겨 있다. 사상에 대한 의문과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은 그의 1960년대 소설에서는 반공주의 강압적인 검열과 감시규율체계 때문에 표출되지 못한다. 그 결과 이야기는 빨치산에 돌팔매질을 하는 위악한 아동으로 초점화 되고 무전여행을 떠나려는 형의 욕망을 차단하려는 아버지의 윤리적 제재와 그 반발로 형들의 부정한 공모에 가담하는 오염된 존재로 분열된다. 세계의 위악함에 오염되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갈등을 은폐하며, 이데올로기의 남루한 모습과 붉은 벽돌담에서 무시무시한 적의를 절감하는 내용을 악화시키며, 급기야 이야기는 성장담으로 바뀐다.

김승옥의 소설에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의 현저한 결핍은 강압적인 감시체제에 따른 자기검열과 무관하지 않다. 아버지의 부재처리 또는 의도적인 누락을 통해 그의 소설이 보이는 관심의 행방은 억압당하고 금제의 벽으로 들

127) 「생명연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형의 윤리적 응징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러쳐진 사회, 그 사회를 관장하는 국가 아버지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되고 있다.¹²⁸⁾ 「역사」에서 보게 되는 하숙집의 청결함과,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잘 짜여진 일상은 국가아버지가 강요하는 가부장적 규율사회의 알레고리에 가깝다. 정결한 하숙집을 향한 ‘홍분제 투여’라는 퇴폐적인 방식의 해프닝은 국가 아버지의 가부장적 규율에 대한 신성모독을 희화화시킨 표현의 수위 조절을 잘 보여준다. 홍분제 투여를 해프닝으로 처리한 점과 이 사건을 저지른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외부 이야기의 존재는 정치적 비판을 감싸며 표현의 강도를 약화시킨다. 「역사」의 변형된 아버지 형상(곧 하숙집 할아버지)은 1950년대와 1960년대 국가라는 사회를 대변하는 가부장적 국가 아버지에 가깝다.

김승옥의 1960년대 문학이 1970년대에 이르러 윤리의식의 실종과 성적 방종의 세대묘사로 급속하게 전락하고 마는 연유는 규율에 대한 길항을 통해서 모색해온 아버지의 가치 찾기가 1970년대 이후 유신체제의 강압성 안에서 소시민화에 따른 좌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문학적 전략은 그의 1960년대 소설이 보여준 내적 긴장이 주체 정립의 계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구나 그의 문학은 군사독제의 파고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그 심미적 지향과 섬세한 감수성이 한껏 위축된다. 두 번에 걸친 연재 중단과 무기력증, 1980년 5·18 광주항쟁 이후 뒤따른 긴 문학적 휴면기는 그의 1960년대 문학적 소산들이 4·19혁명을 가능하게 한 1960년대 문화의 자장 안에서 잉태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작가들의 자기검열은 문학의 담론이 가진, 자전적인 요소나 현실의 소재를 허구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마음의 검열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표현의 약화, 의미의 전치를 통한 내용의 변형, 초점화의 이동을 통한 맥락의 변경 등을 거치는 창작의 심리학적 과정이다. 이때 자전적인 요소에서 누락시켜야 하는 가족사의 내력은, 프로이트의 맥락에서는 ‘리비도에 대한 추잡함’에 해당한다. 비단, 김승옥의 경우만이 아닌 좌익가족 출신의 작가나 월남민 출신 작가들은 자기검열을 통해

128) 그러나 김승옥의 소설에서 “빨갱이의 아들”이었다는 자전성이 표출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내가 훔친 여름』(전집 3권, 문학동네, 1995, 167-169)에는 강동순의 애인 ‘남형진의 입’을 빌려 발화되는 ‘공산주의자인 아버지’와 ‘빨갱이의 아들’이라고 고백 장면이 있다. 그는 강동순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녀의 아버지에게 희화적으로 자신의 가족사를 토로한다. 이는 자기검열에 따른 전형적인 ‘맥락의 변경’이다. 이는 초점화의 이동(프로이트의 용어로는 ‘중심점 이동’)을 통해서 자전성을 은폐하며 자기검열을 통과한다. 초점화의 이동을 통한 맥락의 변경, 의미의 전치(轉置)는, 앞에서 거론했던 지리산에 입산했던 외삼촌의 행적과 남로당원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고려하면, 자전성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버린 자기검열의 결과임을 확인시켜 준다.

서 자신의 결격사유인 집안사람의 좌익 연루를 자신들의 일상이나 의식 속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은폐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처리는 왜곡과 은폐라는 자기검열의 결과로만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김승옥의 경우 고단한 성장담을 가족로망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미적 효과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반공주의에 순응적인 주체를 주조해내려는 국가의 근대적 기획은 광복이후 자행된 폭력적인 권력과 제도의 무차별한 적용으로 나타난 바 있다. 억압적 규율에 따른 무차별한 반공주의의 적용은 작가들에게 공포증과 불안, 금기, 자기검열의 글쓰기를 낳았다. 작가들의 자기검열은 그런 측면에서 금기에 대한 가위눌림, 곧 공포와 불안을 불러온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반공주의의 억압과 공포는 자각과 저항을 행동화 할 시민적 주체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기도 했다. 작가들은 자기검열을 통해서 제도적 억압과 검열을 효과적으로 우회하는 문학적 장치를 마련하고 심미성을 강화하는 등 근대적 주체의 미적 기획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능동적인 효과를 창출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승옥의 문학은 자기검열을 통한 심미적 왜곡을 통해 자전성의 한계를 딛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사례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또한 순수의 세계에서의 탈출과 악의 세계로의 입사는 성장을 의미하고 그 성장의 세계로 이끄는 형과 형의 친구들의 세계로의 진입은 전쟁의 위악성을 극복하려 한 작가의 또 다른 몸부림이다. 이것은 순수의 세계로의 꿈이 산산조각 나 버린 것이다. 순수와 위악적 상황과의 갈등은 어지러움으로 나타난다.

윤희 누나 앞에 서자, 나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¹²⁹⁾

그 어지러움은 결국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작가의 자기 검열에 이르게 된다. 해방 이후 작가들에게 부과된 창작의 문화적 조건은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반공주의의 규율체제하에 놓여 있었다고 할 만하다. 반공주의는 집권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반공’ 그 자체를 보편화하고 영구화한다. 극우반공 체제가 성립된 전후 반공의 맹목적성을 상징하는 소위 빨갱이란 단어는 불행이도 우리

129) 김승옥, 앞의 책, p.127.

현대사의 전도를 정확하게 예측해주고 있다. ‘시사사전’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것도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가치로 군림하게 되는 과정은 더 이상 논증이 필요치 않다.

그러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는 전쟁을 거치고 냉전 및 분단체제가 구조화되면서 “수상- 불순- 좌익/좌경-친북-용공-간첩”이라는 반공주의의 자동적 조건반사의 회로판을 작동시키게 되고 나아가 “반공주의는 단순한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가 아니고 한국사회의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생체권력”¹³⁰⁾이 되기에 이른다. 생체권력화, 즉 억압적 자기검열의 광범한 완성으로 한국사회 전반은 사상 색명증(사상공포증)의 도가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보편화 과정에서 일어난 의미의 재구성은 먼저 우리/타자(또는 적/우리)라는, 민족이 아닌 사상의 종족성을 구성하는 정치적 기획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라는 범주는 타자에 대한 규정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타자의 관계는 좌우정치의 헤게모니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진영화의 결과이다. 우파 진영은 이 분할을 선/악의 구도로 몰아가며 특정한 장소와 시간의 특정한 가치와 이해가 모든 인류의 가치와 이해로 투사 시키면서 절대화를 시도한다. 반공의 일반화를 거쳐 확장된 인류의 차원이란 이를테면 절대적 가치의 최종점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는 축출하고 절멸시켜 야만 세계평화가 도래한다는, 인종주의적 전제가 당위적인 명제로 화한다. 반공의 이데올로기적 전제, 그 폭력적인 구성에 대한 회의는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전제이자 계율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전제가 회의되는 순간 이데올로기적 기반과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계율로 작용하는 것이다. 작가들은 반공 규율체계의 강압성과 이념 검증의 강박증에 사로잡혀 공포와 불안을 느꼈고, 검열과 필화, 감시와 처벌을 경험해야만 했다. 반공주의의 작가들에게 기입한 공포의 권력은 ‘반공’에 상처 주는 일체의 가능성을 금했고, 그 결과 작가들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나쁜 본보기’, ‘공산주의라는 악’에 동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담론과 그것이 ‘일반화 될 가능성’을 스스로 검열하기에 이른다.

130) 권혁범, 임지현 외,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pp.55-61.

반공을 유지하기 위한 특무대, 중앙정보부와 같은 기관을 설립과 운용,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한 사법제도와 행정 및 관료들의 축적, 공안문제 연구소 설립과 자문 등을 통해서 정치활동, 언론과 출판, 문학예술, 교육, 종교,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사회 전반을 망라한 방대한 감시체계가 구축되기에 이른다.¹³¹⁾

반공주의의 규정력은 작가들에게 공포와 자기검열이라는 심리적 현실은 창출한다.¹³²⁾ 처벌의 확신을 사회 성원들의 내면에 기입된 생체권력은 작가들에게, 금기에 대한 공포증을 야기하는 초자아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 ‘마음의 검열관’은 작가의 전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검열한다. 그런 맥락에서 반공주의는 처벌의 사법적 권능을 ‘정신’ 까지도 관장하는 규율체제로 전환시킨 근대 국가장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인 셈이다. 반공주의가 작가 내면에 기입한 것은 ‘처벌당한다’는 마음속의 확신, 혹은 그것보다는 미약할지 모르나 처벌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반공주의는 동서 냉전체제를 내면화시킨 규율사회 안에 가동되는 최소한의 전제이자 정치적 국면에 따라 달라지는 억압의 기제이다. 이 기제는 분단체제 안에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반복의 정서를 복제해내고, 맹목적인 친미주의를 증폭시키며 근대화 담론과 결합하면서 정권 안보의 정치적 효과를 누리는 ‘배재와 증오의 정치학’, 미시권력의 기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언어의 건축학적 구조를 해명하는 미학주의의 작업과정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미학주의가 지향하는 일련의 논의 절차는 언어의 유기적 질서와 구조화에 대한 편중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문학 외부의 현실과 그 현실의 억압성이 한국문학을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누락시키고 만다.

필자는 김승옥의 ‘반공주의의 억압과 그에 따른 한국문학의 왜곡’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가의 자기검열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김승옥은 월북가족이나 좌익가족 출신의 작가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러한 문학을 표방하지도 않았다. 그는 좌익 아버지나 외삼촌의 좌익 경력에 대해 침묵하였다가 뒤늦게 고백한

131)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p.302.

132) 감시와 처벌의 규율 장치는 일상적으로 인식되는 생활 영역을 떠나 추상적 의식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그 효과를 가시적인 강렬함에서 아니라 숙명적인 필연성에서 찾음으로써 처벌의 소름끼치는 광경이 아니라 처벌당한다는 확신을 사회적 성원들의 마음에 심어 놓는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3(재판), pp.213-302.

바 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가족사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 가진 함의보다도 그의 1960년대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아버지의 부재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자기 검열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프로이트의 논의를 빌리자면 작가의 상상력과 글쓰기라는 행위는 외현된 꿈-내용에 비유될 수 있다. 잠재된 꿈-내용을 의식 앞에서 기억해낸 환자의 외현된 꿈-내용은 창작심리와 글쓰기의 과정에 가깝다. 잠재된 꿈-내용을 외현된 꿈-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의식과 의식 사이에는 프로이트가 꿈-내용의 무의식적 검열을 비유적으로 언급해서 말한 ‘마음의 검열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존재는 무의식에서 분출되는 리비도의 공상을 추잡함으로 몰고 가며 외현된 꿈-내용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음의 검열관’은 신체에 기입된 반공주의라는 억압적 규율장치가 작가의 자기검열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무의식의 실체이자 자기검열의 보이지 않는 주체에 해당한다.¹³³⁾ ‘마음의 검열관’은 예측할 수 없는 상상력, 곧 리비도적 공상을 억압하고 제어하면서 신체에 기입된 공포를 견디어내기 위해서 자기보존과 방어의 심리기제를 가동 시킨다.

리비도적 공상에 대한 자기검열을 두고 프로이트는 ‘추잡함’의 삭제 또는 누락으로의 꿈-내용을 해석하지만, 반공주의의 강압적인 규율장치를 의식하는 작가들의 자기검열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외현된 꿈-내용’, 즉 기술된 것인 텍스트에는 좌익의 아버지에 대한 자기보존적인 침묵과 의도적인 은폐가 있어 보인다. 1940년을 전후로 태어나 10대의 성장기에 전쟁을 경험한 작가들의 경우, 이들의 문학적 자아는 트라우마와 상처의 불가해한 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왜 일어났는가, 왜 싸워야만 하는가, 왜 아버지는 부재하는가, 아버지는 왜 좌익에 가담했는가, 왜 아버지는 죽어야만했는가, 또는

133)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흥빈·홍혜경 역, 「꿈-검열」, 『정신분석학 강의』 상권. 열린책들, 1997, pp.193-210 참조. 프로이트는 ‘자원봉사’에 관한 꿈을 통해서 꿈-검열 기제를 리비도적인 공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파악하고, 검열의 결과를 추잡함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외현적인 꿈에서 잘려나간 부분(자원봉사의 꿈에서 웅성거림으로 나타난다.-인용자)이 검열에 의해 희생된 부분으로 이로 인해 꿈-왜곡이 생겨난다고 본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외현된 꿈의 균열된 부분(또는 삭제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의 꿈-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대다수의 경우 꿈-검열이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것 대신에 표현을 완화시키거나 유사한 것으로 변죽을 울리며 암시로 끝나고 마는 제2유형과 강조점의 이동에 따른 내용의 재편성을 통해 외현적 꿈에서 잠재적 꿈-사고를 추측해 낼 수 없는 제3유형도 있다고 본다.

왜 돌아오지 않는가, 나는 누구인가 등등 그런데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반공주의의 감시와 규율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쉽게 접근하거나 성취되기 어렵다. 이들 질문은 반공주의라는 억압적 금기의 벽에 부딪쳐 차단되고 마는 것이다.

어린 서술자를 등장시켜 유소년기 또는 성장기에 겪은 불가해한 체험으로 소급시킨 문화적 자아는 역사의 광기와 폭력을 응축과 상징, 우회와 암시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곧, 어린 서술자는 자기검열을 피해 고안된 존재인 것이다.

김승옥은 2001년 가을(9. 22) 한 좌담에서 좌익에 연루된 가족사를 처음 발언했다.¹³⁴⁾ 50여 년 가까운 침묵이 뜻하는 바는 그 세월만큼 안으로 삭히는 기간이 필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기에는 좌익에 연루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증이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의 규율체계가 엄존했던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말해주는 것은 작가 자신의 자기검열은 매우 치밀하게 작동했으리라는 심증이다.

회상에 따르면, 그는 1950년대 초등학교 시절 반공교육과 미국식 민주화 교육을 받았다는 회고와 함께¹³⁵⁾, 여순사건이 일어난 순천에서 성장했다는 것, 일찍이 시작된 독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 한설야니 이기영을 다 읽어치웠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루카치 정도가 새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그의 회상은 집안의 좌익 분들이 계셔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성장기의) 기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좌익적 분위기라는 게 싫은 느낌이었다는 것, 집안 외삼촌이 순천중학 학생동맹위원장이었다고 좌익 군인들을 따라 지리산에 입산했다가 조여드는 진압 작전에 위협을 느껴서 서울로 도망하였다는 것, 휴전 후 외삼촌은 개신교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는 일제 때부터 남로당 당원이었다는 것, 아버지의 전력 때문에 여순사건 이후에 집안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자 초등학교를 여러 번 전학 다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¹³⁶⁾

가족사의 내력을 조심스럽게 발언하는 김승옥의 태도는 가족주의 틀과 반공주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소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김승옥은, 김원일·이문구·이문열·김성동처럼 “반체제 분자의 자식”¹³⁷⁾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

134) 좌담 내용은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pp.18-67.

135)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pp.29.

136)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pp.41-42.

향하는 분단 문학에 합류하지 않는다. 이 차별성은 “집안의 좌익 분들이 계셔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성장기의) 기억”과 “빨갱이의 아들”이라는 자의식, 감시와 규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지닌 한 작가로 반공주의 검열기체에 순응했다고 보는 것도 온당치 않다. 1960년대에 주로 발표된 그의 소설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수, 순천이라는 공간, 그 안에 담긴 반공주의에 대한 우회적이고 징후적인 면모는 대단히 풍부하게 발견된다. 이는 곧 자기검열의 문제와 직결된 것임을 일러준다.

창작의 심리과정에서 작용하는 작가의 자기검열은 금기와 억압, 쓰려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의 충돌에서 발생한 균열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촉발시킨다. 이 노력은 권력자의 편을 끝없이 의식하며 표현을 약화시키거나 암시적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핵심적인 내용을 아예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암시와 생략, 회화화, 금기와 우회나 침묵 등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작가 자신이 반공주의라는 미시권력과 공포의 효과를 감내하며 벌이는 주체의 고투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권력과 규율에 저항하며 형성되는 시민적 주체의 경로에 해당된다.

김승옥은 자신의 문학의 방향성을 두고 대학교 2학년 때 쓴 데뷔작 「생명연습」과 그 후에 발표된 자신의 소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전략) 그래서 첫 데뷔작품이 내가 겪은 6·25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에게 6·25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주제로 대학교 2학년 때 쓴 「생명연습」이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세대의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6·25문학이라고 봐야 해요. 4·19세대의 문학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가 어린 시절에 겪은 6·25 이후의 체험담들이 결국은 우리 1960년대 문학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6·25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6·25 이후 한국인은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 민족 대혼란의 전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리학 적 전통문화가 깨져버리고 아직은 새로운 것이 붙잡히지 않은 세대, 이렇게 압축시켜 보자 해서 그렇게 썼던 거죠. 데뷔작 이후에 쓴 소설들도 거의 모두 그런 주제들이었죠.

-좌담, 같은 책, 32쪽.

137)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p.42.

김승옥이 말하는 ‘6·25에 대한 의미찾기’, 곧 「생명연습」에서 발견되는 6·25의 의미는 전쟁 그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가족에 미친 충격에 대한 글쓰기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 방향성은 작품의 의도가 전쟁이 초래한 아버지 상실의 충격과 그 부재에서 오는 상처임을 시사해 준다. 「생명연습」에서 가족 상황에 대한 유소년의 기억은 흡사 프로이트가 말한 ‘가족로망스’와 그 안에 담긴 외디푸스적 도정에 가깝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결핍에서 오는 어머니의 남성편력과 이를 응징하려는 형의 모의, 형의 모의가 실패하면서 좌절을 거쳐 감행된 누이와 나의 살해 행위, 뒤따른 형의 자살은, “인간의 성장의 전형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상력이 거기에 호소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¹³⁸⁾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성장기에 입은 트라우마, 전쟁의 상처를 추스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장일화에 가깝다. 그러나 그 상처는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떻게 변형되고 응축된 것인가? 일단 발화되지 않은 채 누락된 사실 하나는 죽음으로 처리된 아버지의 부재 또는 결핍이다. 이야기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 철저히 침묵하는 대신, 어머니의 남성 편력과 형의 윤리적 응징, 어머니와 형을 화해시키려는 누나의 슬픈 노력을 담은 가족로망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족로망스의 내용은 자전성과 결부된 트라우마를 감추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삽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 삽화는 대학 지도 선생인 한교수와의 대화나 회고담, 엽색행각을 일삼는 친구의 만남과 대화들이다. 아버지와 관련된 자전성을 삭제한 후에 남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어머니의 고단한 생계(살림살이)와 피난지에서의 궁핍상에 관한 소략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누나의 편지에서도 완전한 허구로 바뀐다. 하지만 이 허구성은 자전성의 출처를 가진 요소들이 이야기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기제에 지나진 않는다. “거의 완전한 허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사실, 완전한 허구란 없다), 가족 로망스 내용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 어머니를 의심하는 나의 무의식을 형과 누나로 분열시켜 애증이 교차하는 선악의 인물 구도로 바꾸어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명연습」의 자전적 출처를 가진 이야기의 본래 모습은 결국 형과 누나로 분화된 ‘나’의 부재 처리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아버지의 상실에 대

138)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p.41 각주 참조.

한 충격과 애정의 표현은 누락된 채(자기검열에서 삭제된 부분), 어머니의 부정에 대한 의심, 그에 대한 윤리적 응징이 형이라는 아니마, 어머니를 용서하며 형과 화해를 꿈꾸는 누나라는 아니무스로 분화 된다. 그러나 자아의 아버지 부재에 관한 이야기는 은폐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김승옥은 거기에다 한교수와의 대화를 끼워 넣은 다음, 한껏 주름을 지운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생명연습」은 아버지의 부재의 가족로망스를 한껏 주름을 가한 성장담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풍부한 함의를 가미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상처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환기해 내는 효과를 거둔 작품이다.

4. 탈공동체적 세계 인식과 통과제의적 귀향 : 이동하

1) 이념의 대립이 초래한 공동체의 파괴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어버리면 세상에 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이동하의 화자 담론을 이야기할 때 단적으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문장이다. 생리적 차원인 전쟁과 굶주림의 결합의 쌍, 이념적 차원인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하의 이 대립은 김원일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원일이 ‘이념에 휩쓸린 아버지, 그래서 능력 없는 아비’로 상황을 설정했다면 이동하의 그것은 자못 신념적이며 철학적이다. 화자가 고향을 떠나오기 전 학예회를 하며 교과서에 나오는 동극 ‘팔려가는 당나귀’를 한다. 그러나 악동들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연습 도중 폭소를 터트리곤 했던 것이다.

그 때까지 잔뜩 긴장해 있던 아이들은 가까스로 참아 왔던 웃음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그 어리석은 부자 역을 맡은 녀석들은 물론이고, 당나귀로 분장했던 녀석마저 누런 담요 뭉치 속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마구 웃어 짓혔다. 이런 속에서 끝까지 웃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담임선생 한 분뿐이었다. 「방아개비」란 별명의 그 꺾다리 선생은 웃음의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창 쪽을 향해 조용히 돌아서 있곤 했다. 그런 순간의 뒷모습은 한 그루 나무처럼 흰칠해 보였다. 우리들 중에서 먼저 웃음을 멈춘 아이들은 그제서야 선생의 어깨 너머로 하나씩 둘씩 시선을 모아갔고 그리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여름의 눈부신 하늘과 들판을 발견해 내고 새삼 종이 쭉이는 것이었다. -중략-

「웃어야 할 사람은 구경꾼들이지 너희들은 아니야.」

손바닥 위에 올려진 방아깨비처럼 아주 굹똥 동작으로 느슨히 돌아선 담임선생은 때면 그렇게 말했다. 선생의 기다란 두 팔이 다른 여느 때보다도 허리짘에서 허전하게 흔들려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어 버리면 세상에 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 후략 -

기억에 의존한 담화 형식들은 단편적이고 비연속적이라고 김현¹³⁹⁾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그 체험을 기술하고 있는 나의 현재 상태는, 그가 굉장히 감수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그것이 비판할 수 없는 기억들이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불연속과 단편성을 지적하는 이유를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짧은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하가 그의 글¹⁴⁰⁾ 후기에서도 밝혔듯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데 비해 자서전을 쓴 작가는 흔치 않다고 고백하며 그 이유를 “자신의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처럼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며 이 이야기는 자전적 소설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타자화된 화자가 등장하여 말하는 담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경제 이데올로기로 이념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서 ‘울고 싶을 때’, ‘웃고 싶을 때’는 이념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화자의 목소리가 아닌 내재된 화자에 의해서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개발 논리에 밀려 어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가. 그 행간에 눌러 있는 작가의 의도 속에 발전 이데올로기에 밀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념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는 것이다.

당시에 이념의 적 아니 정치적 적은 색깔의 논리로 묶어 교묘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엮어 대던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찾아낸 것이다.

이동하의 「전쟁과 다람쥐」는 고향 땅에 몰아닥친 전쟁의 여파로 인해 동심에 가해진 상처와 대면시킨 작품이다. 피난민의 수없는 행렬, 외국군의 주둔, 공부할 곳을 잃어버린 아이는 애지중지하던 다람쥐를 신주머니에 담아 학교 공터에 숨겨둔다. 그러나 주둔지가 된 교정에다 막사를 세우기 위해 동원한 중장비의 캐터필러가 다람쥐를 숨긴 곳을 갈아엎고 만다. 동심과 공존 가능한 다람쥐의 죽음은 동

139) 김현, 「가난한 문화의 현장」, 『장난감 도시』, 문학과지성사, 1982.

140) 이동하, 위의 책, p.207.

심에 가해진 상처를 뜻한다. 이처럼 폭력적인 현실은 멀리 아득히 느끼던 전쟁의 참혹함을 소년의 주변으로, 다시 유소년의 가슴으로 압박해오며 그 실체를 드러내며 죽음의 상처를 가하고 있다.

어롱어롱한 눈앞에 분수처럼 하얗게 쏟아지는 햇살이 일순 확 타올랐다. 고막을 울리는 총성을 들으면서 육은 허공을 짚고 퍽 쓰러졌다. 새까매진 하늘이 한바퀴 휘그르르 돌고, 빨간 태양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무거운 구둣발소리가 귀를 어지럽게 하고, 어떤 밝은 빛이 눈앞을 쓰리게 했으며, 또 몸뚱이의 어디인가 몹시 아픔을 느끼면서 육은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 육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주위가 어둠침침 이었다. 미병사(美兵史)들이 여럿 서성거리고 있었다. - 중략 -

신주머니에 잔뜩 흙이 묻어 있었다. 육이 성급하게 아가리를 열고 마침내 다람쥐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다람쥐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다. 부드럽고 색깔이 곱던 털은 엉망으로 구겨졌고, 복스럽던 꼬리가 나무토막 같았다.¹⁴¹⁾

아도르노의 체험의 이론에서 어지러움은 노이로제로 나타난다 하였다.

대중의 행동양식은 미메시스적인 현실적응과 자기유지가 뒤엉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유지가 함몰될 때는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난다. 노이로제와 같은 상태에서 주체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자아에 낯선 것(자연)이 자신속에 유입됨을 알 수 있다. 노이로제 상태의 자아는 이성이 자연에 종속됨을 체험한다.¹⁴²⁾

어린이의 시각에는 전쟁이란 부조리한 상황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보았던 것이다. 바로 동심의 내포화자가 인식하지 못한 이 부조리 현실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맞닥뜨리고 만 것이다. 다람쥐와 학교 등하교 길에 친구하고 놀던, 아니 날마다 교실에서 수업하다 어쩌다 한번쯤 야외 수업을 하였는데 오늘따라 첫 시간부터 야외 수업을 한 것이다. 우중충한 교실에서의 해방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러나 그 즐거워야 할 수업이 전쟁이란 체험이 부조리 상황에서

141) 이동하, 「전쟁과 다람쥐」, 『제 3세대 한국문학』 -이동하편. 삼성출판사, 1983.

142) 김유동, 『아도르노의 사상』, 문예출판사, 1993, p.147.

출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거인의 “갓땀! 게라웨이!” 라는 고향과 마주하게 되고, GMC 가 나타나고, 지프가 굴러오고, 불도저가 다람쥐를 여지없이 깔아뭉개버리고 만 것이다. 동심을 깔아뭉개 버리는 이 동심에의 상처는 내포작가의 회상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동심을 깔아 뭉개버린 폭력 이렇게 전쟁을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 어린 화자의 눈에는 이런 전쟁의 모습이 그저 달콤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자장가 소리 정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의 전환은 구체적이고 커다란 모습으로 감지되었다.

그 자동차의 행렬은 온 밤 내 계속된다. 그리하여 날이 밝으면 이번에는 피곤에 지친 인간의 물결이 길을 가득 메우고 남으로 흘러갔다. 다시 밤이 되면 길을 메웠던 인간의 물결은 들로 마을로 찾아지고, 그러면 또 자동차의 행렬은 시작되는 것이었다.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쉬임없이 부르릉 거리는 소리, 음색이 다른 여러 가지의 경적, 무거운 바퀴에 짓눌려 돌맹이가 튕겨나가는 소리……. 그런 음향들이 옥에 깨는 흡사히 어머니의 자장가와도 같이 신비롭고 달콤하여 잠자리에 누운 채 가만히 귀 기울여 듣다가는 그만 혼곤히 잠에 떨어지곤 했다. 그러면 그 온갖 소음이 잠속으로 파고들어 옥은 밤마다 술한 꿈을 꾸었다.¹⁴³⁾

별뿔뿔 하나가 동구 앞 갯가로 떨어지는 것을 마치 신호탄과 같이 인식한 이런 기체들이 결국 전쟁이란 현실로 유소년화자의 눈앞에 펼쳐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폭력으로 앞에 나타난다. 어린이 시각은 순수하다. 그 순수성 앞에 무자비한 폭력이 다가온다. 작가는 이 폭력의 원인을 이념적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데올로기에서 찾지 않고 단지 배고픔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코크스가 깔려 있는 좁은 마당엔 어느새 기다란 열이 이뤄졌다. 한결같이 오종종하게 찌들고 허기진 얼굴들이었다. 경이와 외경으로 가득 차 있던 눈망울들은 이제 영약하게 반들거렸다. 호주머니 속에 넣어 왔던 밀가루 부대며 시멘트 봉지 따위를 저마다 하나씩 꺼내들고 우리는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렸다. 허기가 가장 짙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재빠른 녀석들은 벌써 자기 몫을 받아들고 기세 좋게 언덕길을 달려 내려갔다. 아직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쪽은 그럴수록 더 마음이 탔고, 그래서 열이 자꾸만 흐트러졌다. 비록 맨 꿈무늬에 서 있는 아

143) 이동하, 위의 책, p.405.

이라 해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 적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내 차례를 지키기가 나는 언제나 힘들었다.

마침내 나의 몫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기쁨보다 더 큰 허전함을 향유 맛보곤 했다. 탈진한 몸으로 돌아서면 친구 태길이가 어릿광대처럼 허연 입을 하고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우리의 마을이 잘 내다보였다. - 중략 -

나는 몹시 지치고 허기가 졌지만, 그러나 어머니와 누나가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태길이가 다시, 한 줌의 전지분유를 집어내 어릿광대처럼 허연 입에다 털어 넣으며 내 뒤를 스택스적 쫓아왔다.¹⁴⁴⁾

교회에 간 것도 오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발전이테올로기에 편승해서 내가 주위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초점화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애써 서술은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보고 있는 ‘내’가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 성숙하게 된 ‘나’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다. 즉 이 작품에서는 상황을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 반성적 화자에 의해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작품에서 상황을 내부에서 바라보는 초점인물이 소년 혹은 미성숙한 주체의 시각임에 비해 그것을 서술하는 화자는 성인의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연작에서도 희미하나마 삼촌의 이념적 행위 탓에 아버지가 마을 이장을 하였음에도 고향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장난감 같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오물거리며 생존을 위해 아귀다툼하는 가족이야기다.

생각보다 여정은 짧았다. 마을을 출발한 지 불과 두세 시간 만에 우리는 도시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그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좀 실망할 정도였다. 내가 지금까지 상상한 바로는, 도시란 결코 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곳에 닿기 위해서는 철로 위를 바람처럼 내달리는 급행열차로도 하루 낮 하루 밤은 꼬박 걸려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가 타온 것은 툼툼거리는 짐차였다. 그것으로도 고작 두 세 시간밖에 걸리지 않다니……. 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무슨 결함처럼 내게는 느껴졌다.¹⁴⁵⁾

한편, 공부하는 장남과 모성을 핑계로 그악스러운 생존욕망으로 추동되는 편모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전후 성장 소설 모형에서 누이의 존재는 특이하다. 누이가 등장하는 소

144) 이동하, 「굶주린 魂」, 『제3세대 한국문학』-이동하 편, 삼성출판사, 1983, pp.254-255.

145) 이동하, 『장난감 도시』, 문학과지성사, 1982, p.18.

설들은 김승옥의 「건」을 비롯한 몇몇 소설, 김원일의 「갈증」,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등이 있다. 이들 소설에서 누이가 의미하는 것은, 어머니의 생존 욕망도 아버지의 공적이념도 아닌 제 3의 영역이다. 그것은 대부분 성적 욕망과 은밀하게 관계되어있고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누이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떠는 어린 소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존재이면서, 대부분 이 따스함과 금지된 성적 욕망과 겹쳐진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의 세계를 용인하고 어른이기를 받아들이면서 성숙의 세계로 접어드는 무렵 이 누이들은 소년에 의해 자발적으로 배제되고 희생당한다.

나는 가만히 누나를 돌아보았다. 어머니처럼 그녀도 고개를 꺾고 있었다. 웬지 그녀의 컷 불이 밧그레하게 물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장롱을 열었다. 그러고는 몇 점의 옷들을 골라냈다.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들이 죄다 누나의 것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렇다. 그 옷들은 죄다 누나의 것이었다. -중략-

어머니가 앞서고 누나가 그 뒤를 따랐다. 아주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같았다. 옷 보통이를 앞가슴에 꼭 끌어안은 어머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중략- 그곳엔 누나 친구 두 부살이 있고, 그의 네 오빠들이 있고, 그리고 또 무진장의 두부가 있다. 누나는 이제 거기서 산다. 그 집 민며느리가 된 거다.¹⁴⁶⁾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속의 누이 역시 가족의 절대적 가치화를 보여준다. 도시로 이주한 이 가족 앞에 아들인 나에게도 누나에게도 ‘집 밖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 앞에서 둘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한다. 나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과정은 「1일 점원」이라는 제목 하에 눈물겹게 묘사되어 있다. 백화점 점원으로 간 나에게 “잠자리와 세끼의 밥, 용돈과 의복,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조그만 점포까지 약속”된다. 뿐만 아니라 그 백화점은 자기네 가족이 생존을 연명하던 풀빵과는 비교가 안 되게 “화려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죄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난생 처음 자장면을 먹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유혹 앞에서 나는 “불결하고 냄새나는 그 께짝 방으로 온전히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었다.” 도시에서 다른 가능성과 풍요 앞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집’ 속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가게 점원으로 상징되는 더 큰 도시, 도시 속의 모험과 도

146) 이동하, 『장난감 도시』, 문학과지성사, 1982, pp.288~289.

전의 가능성은 가족 앞에서는 사악한 유혹으로, 혹은 속임수로 자리매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반면 누나는 이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화자에게 보여 진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나는 두부공장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며 돈을 벌지만, 이 누나에게 어린 화자는 적의를 보인다. 이 적의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다리병신에게 누나를 빼앗겼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부공장에 간 누나가 “두부살이 오르고 윤택해지는 것”에 대한 적개심이기도 하다. 이 적의에는 가족 밖에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족을 경유하지 않는 개인적 욕망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라는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어른으로의 성숙, 이 과정 속에 다른 개인적 욕망 혹은 다른 근대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배제, 이것을 필연화 시키는 전쟁과 분단의 체험이라는 성장소설의 기본 서사가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사적 생존만을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의 면모를 가족주의라 명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 유교적 가족주의와는 구분이 명료하다.(유교적 가부장제는 이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 후에 등장한다) 고향 공동체와 관련 속에서 가장의 권위 하에 존재하는 전통적 가부장제 하의 가족이 경쟁이 아닌 공존과 위계화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이들 전후의 성장소설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 가족의 단위가 이렇게 개별화되면서 무한 생존 경쟁에 돌입한 상태의 전후의 신 가족 형태는, 전통적 가족이 지녔던 권위와 위계형식이 박탈되고, 아버지로 상징화된 이념의 정치적 성격이 배제된 것은 물론, 절차적 합리성과 시민적 합의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도 배제된 것이다. 생존 단위로 전략한 전후 신가족의 이 무도덕성, 사인성(私人性)을 대변하는 것이 편모, 즉 여가장이다. 그 근거에는 요컨대 ‘에비’라는 기표가 갖는 효과와 그것이 환기하는 상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타자에게 어떤 것을 금지하려는 발화 주체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

2) 통과제의의 형식으로서의 귀향

소설에서 길 찾기는 통과제의적인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다.¹⁴⁷⁾ 길은 움직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아가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하는 일련의 고통, 각성 등의 과정을 함유하는 문화인류학적인 상징이다. 이 상징에는 소년으로부터 성인으로의

147)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 정음사, 1986, p.5.

전환, 무지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전이 속(俗)에서 성(聖)으로의 승화, 생명에서 불멸로 전환되는 초월적인 작용 등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¹⁴⁸⁾ 그러나 분단 문제와 관련해서 ‘길’은 세계 타락의 의미를 깨닫고 주체를 정립해 나가는 인식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고향’은 비극의 근원이 되는 공간이다. 고향은 성장기에 치른 혹독한 시련과 반목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원체함의 공간인 것이다. ‘귀향’의 행로는 비극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상상적 화해를 꿈꾸거나 주관적인 인식에 머물렀던 불가해한 수준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도정이다.

『우울한 귀향』¹⁴⁹⁾은 회상을 통해 성장기에 가해졌던 혼돈과 대면하고 그것의 극복을 거치는 통과제의적인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등단한 작가 지망생이 방학과 함께 귀향하여 친구 집에 머물며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회상이 병행되는 구조이다. 서술자는 성장기를 회상하면서 탈향을 결심했던 내력을 반추해 나간다. 가슴 설레던 순임과의 아련한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는 비극적인 과거와 다시 만난다. 순임 집안과 친구 철의 집안간의 갈등과 불화, 전쟁 속에서 순임의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았고, 철의 형이 오랫동안 방안 토굴에서 은신하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내력들이 회상된다. 또한 삼촌의 입대, 그가 몸속에 파편을 안고 제대한 뒤 폐인이 되어버린 기억들... 이것은 좌우대립의 갈등 속에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오래 반목하던 몰락한 순임과 철이 두 집안의 비극, 전쟁의 광풍으로 입은 상처에 관한 것들이다.

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탈각되어버리지만, 화자와 비극의 당사자들은 깊은 상흔을 안고 탈향 한다. 화자는 이러한 슬픔을 회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과거에 대한 가치혼돈을 청년기의 정신적 방황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고향의 과거를 응시함으로써 “자욱한 안개 같은” 기억을 글 쓰는 주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화자가 풍화작용 끝에 망각해버린 기억을 불러내어 고통을 반추함으로써 옛날 소꿉친구들이 겪었던 고초와 성장기에 드리워진 비극의 의미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리고 이러한 실체와 대면한 서술 주체는 자신을 포함해서 철이, 순임이 모두 비극의 “깊은 수렁”에

148) 김용희, 위의 책, 같은 곳.

149) 이동하, 『우울한 귀향』, 계삼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서, “가장 긴 전쟁”에서 수난당한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과거와 이별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조우는 존재의 자기정립을 위한 제의적 과정으로서 비극 속에 놓인 과거 속 자신의 신원 해명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서술의 주체는 낮익은 마을 풍경에서 “변해 버린 것”들에 주목하며 상처의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정립에 이르는 것이다.

“죄는 우리 성한테 있고, 순임이 아버지한테 있고, 또 울 아버지한테 있는기라. 반평생을 종살이했던 상전한테서 몇 뼤기의 불임을 얻어낸 아버지가 잘못했고, 그걸 도로 뺏어간 순임이 아버지가 잘못했고, 그기 억울하다고 앙심을 품었던 우리 성이 잘못했을 뿐인기라, 그저 그런 기라, 윤아, 나는 차말로 더 버틸 수가 없더라 말이다. 영미치겠더라 말이다. 차말로 미쳐뿌리겠더라 말이다.” 150)

고향을 떠나며 절규했던 철이의 고백을 생생하게 환기하여 듣는 비극성의 육성은 죄의 출처와 책임에 관한 것이다. 철이의 절규에는 스스로의 속죄를 통해서 비극에 대한 자기긍정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구원의 가능성이 발견된다. 그것은 살육과 파멸로 몰아넣는 수많은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어린 존재의 양심의 발언이다.

철이의 절규를 환기하는 서술의 주체는 고향 마을에서 벌어졌던 살육과 수난이 어느 한 시점에 횡횡했던 광풍이 아니었으며 누대에 걸친 지주-소작 관계의 뿌리깊은 갈등과 불화가 분단 현실 속에 증폭되어 발생한 비극임을 자각한다. 여기에 내포화자의 담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는 성장기의 기억으로부터 혼돈의 정체를 깨닫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의 호명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은 비극의 응시하는 주체의 내면성이다. 그가 고향을 다시 떠나 도시로 귀환하는 내면에는 도시로 상징되는 성인의세계로 진입하는 성숙한 개인의 의식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비극의 의미를 각성하는 제의적 절차와 주체 형성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회상의 주체는 “혼돈한 형성기를 보냈던 고장”과의 진정한 결별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부정이나 기억과의 단절이 아닌 고향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도 일어났던 비극이었음을 인식하는 주체로 거듭난 것이다. 즉, 비극은 고향만이 아니라 “이 땅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있을” 사건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150) 이동하, 위의 책, pp.188-189.

『우울한 귀향』에 나타난 귀향은 성장기의 회상을 통해 비극의 주관적 인식 차원을 벗어나려는 고통스러운 통과제의임을 보여준다. 그 “후즐근한 귀향”과 “피로한 방황”의 정체는 자신을 낳은 비극의 공간에 대한 신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성년에 이르는 과정이자 글쓰기였던 것이다.

도시를 성년에, 고향을 유소년과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았을 때 결코 즐겁지 않은 과거로의 귀향은 속에서는 피고름이 있는데도 겉의 전쟁이란 상처를 선불리 덮어 버리지 않고 헤집어, 근본적인 치료인 메스를 가해 치료하려는 외포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분단 이야기에서 성장기의 비극을 벗어나 주체의 정립에 이르는 글쓰기의 모습은 귀향의 행로를 가지고 있다. 『우울한 귀향』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은 과거의 기억과는 단절된 공간으로서 화해와 분단해소의 대상, 주체 정립을 위한 고통스러운 통과제의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귀향은 이들의 분단 이야기에서 비극을 회상하는 구체적인 공간이면서도 인식의 주체가 화해의 소망을 상상하는 적극적인 장소이자 비극의 자기화를 거쳐 자기 구원에 이르는 통과제의적인 의식의 원점이기도 하다.

IV. 결론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한국전쟁의 시기를 성장기로 한 작가들의 분단 이야기는 분단현실에 대한 주체의 정립과 그들의 각성과정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작가의 분단이야기에서 성장기는 악한 시대현실에 감염되면서도 스스로를 성장시켜나가는 가운데 순수의 모독, 삶의 고행에 대한 부피를 확인하면서 분단과 전쟁의 직접적인 상흔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들의 성장기에 미친 비극의 상황들로부터 미시적 혹은 거시적인 조망을 해나가는 기억이 글쓰기의 대상이다.

이들 작가는 자신의 성장기에 가해진 파편들을 더듬어가며 그에 대한 치열한 해명을 거쳐 역사의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각성으로 이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성장기의 기억에서 마주했던 운명적인 비극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주체를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의 각성은 그러나 상처받은 자신들의 어린 모습을 고통스럽게 발견하는 지난한 성찰이며 기억으로부터 이념의 광기, 국가 권력의 폭력을 다시 호명하여 그 부질없는 역사적 과오와 진지하게 대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의식의 근저에 가해진 시대의 충격을 객관화 시키는 일 자체가 미학적 거리로 조절 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초래된 비극의 충격으로 얼룩진 성장기의 원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처받은 기억을 불러내기에는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의 외압은 의외로 완강하다. 검열과 감시의 기제들은 현실적 공포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에 대한 비이데올로기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마련한 장치가 유소년의 시선이었다. 유소년의 시선을 통해 이들 작가들은 경험의 도식화 안에서 자신의 파편적인 체험들을 다시 추체험하는 글쓰기의 양상을 보여준다.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는 전쟁체험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으로 제시된다. 이런 시각을 지닌 작가로는 김원일과 윤희길, 김승옥, 이동하를 들 수 있다. 그 중 김원일은 가족사적 전쟁 경험은 즉 아버지의 오랜 부재가 초래한 제반 경험과 생생한 감각으로 재현되었다. 김원일의 소설에서 감각을 색깔, 배고픔, 어머니의 훈육 등의 주제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감각의 세계를 통해 전쟁 체험이 시공간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생생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원일 소설에서는 성장의 계기를 아버지 되기에서 찾고 있다. 아버지 되기

를 통해 도달하고자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었다.

윤홍길은 세계를 어른과 아이의 대립,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대립은 죽음과 가족의 해체라는 극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죽음과 가족의 해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윤홍길은 가족의 결합, 가족과 민족의 결합 방식을 제안한다. 윤홍길의 소설에 나타난 유소년 화자의 순수한 시각이야말로 가족을 결합시키는 매개가 된다. 이와 함께 상징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서 원형적 세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승옥의 작품에서 어른의 세계는 폭력의 세계, 악의 세계로 그려진다. 그 폭력의 세계가 지니는 강도는 어린 아이가 그 폭력의 세계와 만났을 때 느끼는 어지러움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김승옥 소설에서는 이러한 폭력적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악을 가장한 주체, 즉 위악적 주체를 내세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악적 주체가 철저한 자기검열의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악적 주체의 모습이야말로 근대화의 논리를 비판하면서도 근대화 논리 안에 근대적 주체를 존립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분단이야기에서 성장기의 비극을 벗어나 주체의 정립에 이르는 글쓰기의 모습은 귀향의 행로를 가지고 있다. 이동하의 『우울한 귀향』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은 과거의 기억과는 단절된 공간으로 화해와 분단 해소의 대상, 주체정립을 위한 고통스러운 통과제의의 대상이 된다. 귀향은 분단이야기에서 비극을 회상하는 구체적인 공간이면서 인식의 주체가 화해의 소망을 상상하는 적극적인 장소이자 비극의 가치화를 거쳐 자기 구원에 이르는 통과제의적인 의식의 원점이기도 하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 어린 존재들의 수난상은 세계의 어떤 다른 비극보다도 의미를 증폭시킨다. 그것은 어린 존재들 어느 누구도 세계의 폭력과 삶의 전략을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분단 이야기가 어린 존재들을 가혹한 수난의 구도 안에 배치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전쟁의 폭력과 가장 무관한 위치에 있는 어린 존재들을 전쟁의 현실에 배치함으로써 그 폭력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탱크와 다람쥐, 텅 빈 도시와 굶주린 아이들, 들꽃과 어른들의 탐욕, 초콜릿을 동원한 감시원의 회유와 아동, 이처럼 악한 세계로 유인하는 비극을 극적으로 부각 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동하의 「전쟁과 다람쥐」, 윤홍길의 「기억속의 들꽃」, 「장마」 등에 잘 나타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대비를 통하여 전쟁이란 부조리 상황의 비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더욱이 유소년의 화자를 등장시켜 담화를 진향해 가는 것은 이 효과를 백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전쟁이란 부조리 상황이 굶주림과 추위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전쟁이란 턱없는 부조리 상황을 만든 것은 어른들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배고픔과 추위를 어른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전에 개발 독재가 우리 사회의 중요 담론으로 등장하였고, 경제개발 이외의 담론은 허용치 않았던 6,70년대 시대적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들은 소위 “잘 살아보세!”의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전쟁의 참혹상을 밝히려 하였기보다는 예봉을 피해 어린이 시각을 통한 ‘낮설게 하기’를 시도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피하려 한 것이다.

또한 이동하, 김원일, 윤흥길의 작품을 통해 6·70년대 성장소설, 혹은 성장 모티브를 보이는 소설들에 보이는 성숙, 성장, 어른됨의 논리가 사실은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인 발전, 개발, 국민됨의 논리 및 그것과 결합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는 성장 서사를 통한 주체 구성이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발전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댕가로 경제외의 정치 및 공적영역에 대한 폐쇄를 용인하는 내면화된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제적 자기보존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발전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현실화되는 단위는 가족이다. 이 가족은 경제적 생존 이외의 다른 근대적 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배제를 기초로 성립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생존욕망이 내포하는 사인성(私人性), 무도덕성의 표상으로 편모가 자리한다. 또한 이 편모로 대변되는 생존 단위로서의 가족이 보이는 사인성, 무도덕성이 사실은, 공적 영역을 배재함으로써 성립한 국가가 가족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서로 친화적이고 이 친화적 기초위에 성장 주체가 존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기본서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일신서적출판사, 2002.
-----, 『제삼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 『한국 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 『내가흠친 여름』, 전집 3권, 문학동네, 1995.
- 김원일, 『제삼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 『한국 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 『오늘 부는 바람』, 문이당, 1997.
-----, 『마음의 감옥』, 문이당, 1997.
-----, 『어둠의 혼』, 문이당, 1997.
- 윤홍길, 『장마』, 민음사, 1980.
-----, 『한국 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 『제삼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 이동하, 『장난감 도시』, 문학과지성사, 1982.
-----, 『제삼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 『한국 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학위 논문

- 김경윤, 「최인훈 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김민령, 「한국현대 성장소설의 유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金泰延, 「1950년대 신·구세대 작가의 전쟁인식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배성희, 「김승옥 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양 희, 「성장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이민수, 「한국 성장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오은희, 「김승옥 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李東莘, 「金承鈺 小說의 時間構造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李廷蘭, 「金承鈺 小說의 敘述構造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이정석, 「김승옥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최낙범, 『한국 전쟁 소설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추진호, 「윤홍길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권오현, 「1960년대 소설의 현실 변형 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김혜영, 「모더니즘 소설의 글쓰기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남미영, 「한국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 최용석,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 비판과 극복의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기타 논문

-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133집, 국어국문학회, 2002.
- 곽중원, 「전쟁문학특집」, 『월간문학』, 1969. 10.
- 권명아, 「가족이야기, 그 역사적 형식에 관하여」, 『동서문학』, 2000, 겨울.
- 권성우, 「미문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소설가의 존재방식- ‘장난감 도시’의 작가 이 동하」, 『동서문학』, 삼중당, 1989.
- 권오룡, 「개인의 성장과 역사의 공동체화」, 『문학과 지성』, 1979, 봄.
- , 「시각의 확대와 성숙」, 김병익·김주연 편, 『해방40년 민족지성의 회고와 전망』, 문학과지성사, 1982.
- 권택영, 「평면과 입체 서술」,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서문학사, 1991.
- 김동환, 「한국 전후 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 방법 연구」,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 김병익, 「분단인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2. 2.
- , 「비극의 각성과 수용」, 『현대문학』, 1977, 여름.

- , 「60년대식 풍속변화-김승옥의 작품세계」, 『신한국문제작가선집 1』, 어문각, 1983.
- , 「‘핏빛’에서 ‘가을별’으로」, 『연』 해설, 문학과 지성, 1985.
- 김상태, 「1950년대 소설의 문체 연구」,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 김세진, 「한국군부의 성장과정과 5·16」, 『1960년대』, 거름, 1984.
- 김영범,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편,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 삼인, 2000.
- 김우중, 「윤홍길의 「장마」와 분단 극복」, 『문예중앙』, 1997. 겨울호.
- 김윤식, 「부성원리의 형식」, 『김윤식 문학 선집-소설사』, 솔, 1991.
- , 「60년대 문학의 특질-김승옥론」, 『김윤식 평론 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 , 「6·25와 우리소설의 내적 충격」, 『한국문학』, 1985. 6.
- 김재홍, 「이동하, 또는 실존과 휴머니즘」, 『한국대표문학선집 15』, 삼중당, 1982.
- 김종희, 「개인의 수난사에서 민족사의 비극으로」, 『동서문학』, 1990, 5.
- 김주연, 「개체화의 추구」, 『김승옥: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 김주연, 「억압과 열림」, 『문학과 지성』, 1980, 봄.
- 김치수, 「김승옥의 소설」, 『김승옥: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 , 『제 3세대 한국문학』 이동하편 작품론, 삼성출판사, 1983.
- 김 현, 「김승옥론」, 『현대문학』 1966. 3.
- , 「떠남과 돌아옴」,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92.
- , 「가난한 문화의 현장」, 『장난감 도시』, 문학과 지성사, 1982.
- ,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 『문학과 사회』, 1989, 봄.
- 박혜경, 「실존과 역사, 그 소설적 넘나듦의 세계」, 『작가세계』, 1991. 여름.
- 백 철, 「戰後五十年의 韓國小說」, 『韓國戰後問題作品集』, 신구문화사, 1961.
- , 「革命뒤에 오는 文學課題들 -젊은 世代에게 來日을 말한다-」, 『새벽』, 1960, 9.
- 송현호, 「해방 50년, 소설 장르의 전개와 유형론」, 『소설과 사상』, 1995. 여름.
- 서경석, 「60년대 소설 개관」,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 서정기, 「역사의 신화적 열림」, 『작가세계』, 1991, 여름.
- 서종택, 「해방이후의 소설과 개인의 인식」, 『한국학 연구 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 성민엽, 「분단소설과 복합 소설」, 『문학과 사회』, 1997. 가을.

- 신재기, 「가족적 삶의 서사적 범주-김원일론」, 『매일신문』, 1990.
- 신희교, 「성장소설과 상상력의 빈곤」, 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6호, 1997.
- 우한용, 「소설 이해의 구조론적 방법」,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평민사, 1994)
- 오생근, 「분단문학의 확장과 현실 인식의 심화」, 『그리움으로 짓는 문학의 집』, 문학과 지성사, 2000.
- 유기룡, 「1950~60년대 소설 -반항자상과 피해자상의 인물형」, 『한국소설사』, 김동욱·이재선 편, 현대문학, 1990.
- 유임하, 「한국 소설의 분단 이야기」, 책세상, 2006.
-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문학과 현실』, 민음사, 1975.
- , 「슬픈 도회의 어법」,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 윤병로, 「새 세대의 충격과 60년대 소설」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89.
- 이광호, 「깊고 어두운 자기 세계」 『김승옥문학상수상작품집』, 훈민정음, 1995.
- 이재선, 「인간적 실체의 회복문제」, 『한국문학진집 29』, 삼성출판사, 1985.
- 이정희, 「트라우마와 여성 성장의 두 구도」, 『경희대학교 고향논집』. 제25호.
- 이채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사상』, 1990년 봄호.
- 이태동, 「자아의 시선과 미망의 여로」, 『김승옥문학상수상작품집』, 훈민정음, 1995.
- 임영일, 「한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 연구회 편 『한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녹두, 1991.
- 임현영, 「분단 의식의 문학적 전개」, 『세계의 문학』, 1977.가을.
- 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한국문학』, 1985.6
-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김승옥론」, 『김승옥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 , 「이데올로기 혹은 짐승의 삶」, 『현대문학』, 1987. 7.
- 정문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외」, 정문길 편,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 정현기, 「1960년대 소설」, 『한국근현대 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85.
- , 「1960년대적 삶」, 『김승옥: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 , 「안개와 수군거림과 애욕의 시대를 지켜본 작가 : 김승옥론」. 『이상문학 상수상작가대표작품선 1』, 문학사상사, 1986.
- 조남현, 「美的 世界觀에의 入社式」, 김승옥자선대표작품집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아출판사, 1991.
- , 「도시적 삶의 징후들」, 『현대문학』, 1979.
- 진형준, 「유년의 체험과 상처의 변용들」, 『한국문학 대계』, -이동하 편, 동아출판사, 1995.
- 천상병, 「四一九以前の 文學的 贖罪 -왜 現實的이 되지 못했던가?-」, 『자유문학』, 1960.9.
- 천이두, 「存在로서의 고독」, 『김승옥문학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 , 「묘사와 실험-윤홍길론」, 『장마』, 민음사, 1980.
- 최원식·임규찬 편,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 최영희,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한국사와 한국전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최인자, 「성장소설의 문화적 해석」, 『문학과 논리』 5호, 태학사, 1995.
- 최일수, 「四一九以後의 文學的展望 -共通된 命題의 世界로-」, 『자유문학』, 1960.9.
- 최재봉, 「베스트셀러의 역사」, 『소설과 사상』, 1995, 여름.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담론 특성」 『韓國言語文學』 第44輯, 한국언어문학회, 2005.
-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김승옥론」.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 황종연, 「인간적 친화를 꿈꾸는 소설의 역정」. 『작가세계』, 1993, 봄.
- 홍기삼, 「전쟁 그리고 문화의 수면」, 월간문학 1073, 10.
- 홍정선, 「기억의 굴레를 벗는 통과제의」, 『노을』 해설, 문학과 지성, 1997.

단행본

-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 구중서, 『문학과 현대사상』, 문학동네, 1997.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 권오룡.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 김달중, 『한국의 외교정책』, 오름, 1998.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金相善, 『新世代 作家論』. 日新社, 1964.
- 金相泰, 『文體의 理論과 解析』. 집문당, 1983.
-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 정음사, 1986.
- 김유동, 『아도르노의 사상』, 문예출판사, 1993.
-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사』 제2권, 일지사, 1994, p.267.
- 김윤식, 『운명과 형식』. 솔, 1992.
- 김윤식. 『이청준론』. 삼인행, 1991.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2.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5.
- 김진기·조미숙, 『한국현대작가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 김형효,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9.
- 김혜영, 『모더니즘 소설의 글쓰기방법 연구』. 집문당, 2000.
- 김희보, 『한국명작 111선』. 김희보 역, 가람기획, 1994.
- 도진순,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당대, 2001 .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도서출판 월인, 2005.
- 민현기, 『한국근대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 지성사, 1988.
-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도서출판 들베개, 1989.
- 朴東奎, 『現代韓國小說의 性格研究』. 文學世界史, 1981.
- 辛卿得, 『韓國戰後小說研究』. 一志社, 1983.
- 오양호, 『한국현대소설의 서사 담론』. 문예출판사, 2002.
- , 『기억의 심연』. 이회, 2002.
- 이보영·진상범·문석우,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3.
- 이태동, 『한국현대소설의 위상』, 문예출판사, 1985.
- 임영천, 『문학 연구와 실천 비평』. 도서출판 새롬, 2005.
- 이종석, 『분단 시대의 통일학』, 한울, 1998.
- 조찬래 외, 『남북한 통합론』, 대왕사, 1998.
-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78.
- 정상돈, 「통일교육과 통일과정의 문제점 ; 대북포용정책과 통일교육 - 독일통일 과정의 교훈에 대한 재검토」 북한 통일연구위원회, 2000.
-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 조남현, 『우리 소설의 판과 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 천이두, 『한국현대 작가작품론』, 일지사, 1974.

- 최용석, 『한국 전후문학에 구현된 현실인식』, 푸른사상사, 2002.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번역서

- 로베르, 마르트. 김치수·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바흐친, 미하일.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발터 벤야민, 반성완역,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보드리야드, 장.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쥬네뜨, 제라르.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파펜하임, 프리츠. 황문수 역,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 1981.
푸코, 미셸.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3. 재판.
프로이트, 지그문트. 임홍빈·홍혜경 역, 「꿈·검열」, 『정신분석학 강의』, 상권 열린책들, 1997.
Kaiser, V. 김운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대방출판사, 1982.

외국 서적

- Bal, Mikie(trans. by Christine van Boheemen), *Narratolog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5, 1997.
Baldick, Chris.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6.
Banfield, Ann. *Unspeakable Sentences –Narr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Language of Fict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2.
Chatman, Seymour.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1978.
Dubois, J. and Others, *A General Rhetoric* (trans. by P. B. Burrell and E. M. Slotki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70, 1981.
Genette, Gérard(trans. by Jane E. Lewin), *Narrative Discourse*. Cornell Uni-

- iversity Press, Ithaca, 1983.
- Hawthorn, Jeremy. *A Concise Glossary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Arnold, London, 1998.
- Kinneavy, James L. *A Theory of Discourse*. W. W. Norton & Co. 1980.
- Martinez-Bonati, Felix(trans. by P.W. Silver), *Fictive Discourse and the Structure of Literatur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 O' neill, Patric.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96,
- Prince, Gerald. *Dictionary of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1989.
- Toolan, Michael J. *Narrative–A Critical Linguistic Introduction*. Routledge, London, 1988.
- White, Hayden. *Tropics of Discourse –Essays in Cultural Criticis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_____, *The Content of the Form –Narrative Discours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